

제4회 사학과 학술심포지움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일시 : 1994. 5. 26(목) 14:00~18:00

장소 : 목포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목포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3745

9

911
목8

KM3

제4회 사학과 학술심포지움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발 표 요 지〉

일시 : 1994. 5. 26(목) 14:00~18:00

장소 : 목포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목포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학생들에겐 격려를, 도움주신 분들에겐 감사라

저희 목포대학교 사학과에서는 지난 1991년 이래 전남지방의 역사를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학술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1991년에는 「해방직후 전남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 1992년에는 「전남지역의 향촌사회와 불교」, 1993년에는 「조선시기 향촌지배세력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각각 심포지움을 개최해왔습니다.

이번에 제4회를 맞는 이 심포지움은 금년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1백주년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주제를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는 전남지방에서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였고, 또 희생도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미약하여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사는 거의 정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금년 1백주년을 맞이해서도 그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와 같이 백지상태나 다름없이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어 기본적인 자료정리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도교수와 함께 이십여 차례 가까이 현지조사를 하여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워낙 짧았고, 학생들의 능력이나 시각이 아직은 미숙하여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발표요지에 담긴 최소한의 자료정리, 그리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등은 앞으로의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주리라 여겨집니다. 이 발표요지가 각 지방에서 향토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준비과정에서 잊지 못할 것은 현지조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입니다. 향토사에 애정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으며, 농민군 지도자 후손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도 불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시로 참여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사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료정리, 현지조사, 그리고 발표요지 작성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한 참여학생들에게 지도교수로서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지도교수로서는 농민군 후손들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걸었던 황톳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1994년 5월 26일

지도교수 박 찬 승

심포지움 진행순서

△ 일시 : 1994. 5. 26 (목) 14:00 - 18:00

△ 장소 : 목포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개회인사

심포지움 준비일정 보고

□ 주제발표(14:15 - 16:30)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1. 총론 :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과 그 성격 ----- 송태갑 (사학 3)
2. 장성·담양·옥과의 동학농민혁명 ----- 강소정 (사학 3)
3. 광주·나주·화순·동북·능주·영암의 동학농민혁명--- 김미경 (사학 3)
4. 영광·함평·무안의 동학농민혁명 ----- 노지은 (사학 3)
5. 구례·곡성·광양·순천·송주·좌수영의 동학농민혁명- 장신영 (사학 3)
6. 장흥·강진·보성·홍양의 동학농민혁명 ----- 박순미 (사학 3)
7. 해남·완도·진도·우수영의 동학농민혁명 ----- 황혜린 (사학 3)

□ 토론 및 질의 (16:30 - 17:30)

사회 : 황혜린

약정토론자 : 나선하 (사학 2)

박정임 (사학 2)

문유근 (국문 3)

정승화 (고고인류 4)

□ 강평 (17:30 - 18:00)

박맹수 (영산원불교대학 교수)

이해준 (사학과 교수)

□ 지도교수 강평

목 차

지도교수의 변 / 1
심포지움 진행순서 / 2
심포지움 준비일정(경과보고) / 4

□ 발표요지 □

1. 총론 :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과 그 성격	송태갑 (사학 3) / 7
2. 장성·담양·옥과의 동학농민혁명	강소정 (사학 3) / 17
3. 광주·나주·화순·동북·능주·영암의 동학농민혁명	김미경 (사학 3) / 25
4. 영광·함평·무안의 동학농민혁명	노지은 (사학 3) / 37
5. 구례·곡성·광양·순천·승주·좌수영의 동학농민혁명	장신영 (사학 3) / 47
6. 장흥·강진·보성·홍양의 동학농민혁명	박순미 (사학 3) / 57
7. 해남·완도·진도·우수영의 동학농민혁명	황혜린 (사학 3) / 69

□ 부 록 □

1.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일지 / 77
2. 새자료 / 87
3. 주요 전적지 지도 / 93

심포지움 준비일정

1. 주제확정 및 참여자 결정

----- 1993. 11월

전체 주제를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으로 확정하고, 전남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민봉기의 구체적인 실상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함.

참여자 7명으로 확정하고, 각 지역별 책임을 분담.

2. 문헌 자료 검토

----- 1993.12 - 1994.3.

주요 자료:

국사편찬위원회편, 『東學亂記錄』(상, 하) 강득

황현, 『梧下記聞』,

이병수, 『錦城正義錄』

국사편찬위원회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7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간행본)

『隨錄』

기타

3. 현지조사 1994.2 - 1994.5

1994. 2. 25 ----- 장흥 석대들, 남산, 벽사역,

이방언후손(이종찬, 용산면 인암리)면담

이사경후손(이정태, 부산면 용산리 지와물)면담

(강수의웅 안내)

1994. 3. 7----- 무안접주 배상옥근거지 대월리 조사

배상옥 딸의 며느리(정이순, 목포시 대양동) 등 면담

(무안문화센터 박석면씨 안내)

1994. 3. 18 ---- 담양 용구동접주 김형순후손(김종덕, 용구동)면담

김문화후손(김만옥, 용구동)면담,

이건호가에서 혈서 발견 (부록 참조)

1994. 3. 29 ---- 나주 지역 전적지 (광산구 김희규의원 안내)

1994. 4. 1 ---- 무안 해제접주 최문빈 후손(최석봉, 석용리) 면담

(박석면씨 안내)

1994. 4. 4-5 --- 구례, 광양, 순천지역 답사.

황현의 매천사당, 광의면, 섬거역(김영수노인회장)

- 옥룡면접주 서윤악후손(서순식, 옥룡면 상평) 면담
 봉강면접주 유석희후손(유중근, 봉강면 상봉리) 면담
 1994.4.7-4.9--- 법성포, 무장, 고창, 정읍, 원평, 전주, 공주,
 장성 황룡촌, 나주, 장흥 일대 사학과 정기답사
 1994.4.21 ---- 장성지역 답사. 공치선(북이면 상곡), 김낙주(북하면 용두
 리), 손홍모(북하면 신촌), 유광오(북이면 신목란) 등 후손
 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함.
 1994.4.26 ----- 함평 이화진후손(이경보, 손불면 죽장 마을) 면담
 1994.5.5 ----- 나주 오권선 일가(오학수,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 세동부락)
 면담,, 전유창 후손(전대성, 노안면 동산) 면담
 (김희규의원 안내)
 1994.5.5 ----- 함평 월야 접주 정안면 후손(정무석, 양정리 양정부락) 면담
 1994.5.12 ---- 해남 녹산접주 백장안후손(백종남, 완도수목원) 등 면담
 (백일만씨 안내)
 1994.5.7 ----- 장성접주 이춘영후손(이현준, 광산구 오룡동) 면담

** 그밖에 각 지역을 개인별로 현지조사

** 조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4. 원고집필 및 교정

- 1994.4.10. 각 지역별 농민봉기일지 작성 완료(부록 참조)
 1994.4.25. 초고 집필 완료
 1994.5.10. 초고 수정 보완
 1994.5.19. 초고 발표 (사학과 학생 대상)
 1994.5.21. 원고 최종 수정, 인쇄
 1994.5.26. 심포지움 발표

1. 총론: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개관

송 태 갑(사학 3)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의 지도하에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대단히 미진하다가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¹⁾ 또 금년에는 동학농민혁명

1) 1980년대 이후의 주요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 조경달, 1982, 「동학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9
- 정창렬, 1982, 「한말 변혁운동의 정치경제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 1, 창작과비평사
- 조경달, 1983, 「갑오농민전쟁 지도자-전봉준 연구」, 『조선사총』 7
- 홍성찬, 1983, 「1894년 집강소기 설포하의 향촌사정」, 『동방학지』 37
- 한우근, 1983, 「동학과 동학란」, 『한국학입문』, 학술원
- 신영우, 1984, 「1894년 영암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 김용섭, 1984, 「매천황현의 농민전쟁 수습책」, 『고병익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 정창렬, 1985, 「고부민란의 연구」, 『한국사연구』 48, 49
- 박찬승, 1985,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 3, 창작과비평사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농민집강소의 활동」, 『한국문화』 6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40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 『한국사연구』 50, 51합집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시기의 집강소의 설치」, 『한국학보』 41
- 신영우, 1986,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 52
- 정창렬, 1987,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한국사연구입문』 2판
- 신영우, 1988, 「1894년 영남북서부지방 농민군지도자의 사회신분」, 『학림』 10
- 이이화, 1989,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1989년 겨울호-1990년 가을
-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 연구』(연세대 사학과 박사논문)
- 정진상, 1992,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 한국역사연구회편, 1991-1993,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2, 3,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1백주년기념사업회, 1994,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1백주년을 맞아 많은 연구자들과 언론에서 이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묻혀 있던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어 동학농민혁명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아직은 기존 연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이들 연구는 대부분 농민혁명의 주류 -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 - 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 각 지방에서의 농민봉기에 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894년의 농민혁명은 문자 그대로 전국적 규모에서 일어났고, 특히 호남지방의 경우 전 고을이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서의 농민봉기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남지방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한 무대였다. 전북지방이 농민혁명의 진원지였다고 한다면, 전남지방은 농민혁명의 배후 근거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전남지방에서는 많은 수의 민중이 이 봉기에 참여했으며, 그만큼 희생자도 많았다.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한 전투가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 황룡촌전투, 나주성전투, 장흥 석대들전투, 광양·하동전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다할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제 본 심포지움에서는 전남지방에 한정하여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각 군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주요 전투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정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연구팀은 『동학란기록』(상, 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오하기문』, 『동학사』, 『錦城正義錄』 등 주요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접주들의 명단을 가지고 현지를 방문하여 그 후손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접주들의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 농민봉기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구전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한정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접주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 이미 다수의 후손들이 농촌을 떠나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들었지만,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의 역사과정에서 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이 후손들에게 불리하여 이를 감추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 총론에서는 전남지방에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남

9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네시기로 나눈다. 첫째는 1894년 ‘고부봉기’의 단계, 둘째는 3월 이후의 제1차 봉기단계, 셋째는 5월 집강소 단계, 넷째는 10월이후의 제2차봉기의 단계이다.

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전개는 1894년 1월(이하 모두음력)의 고부봉기부터이지만, 이 고부봉기는 이미 1893년 보은집회 시기부터 준비하여왔다. 고부민란의 보고를 받은 조선정부는 고부군수 조병갑을 파면하고, 용안(龍安)현감 박원명에게 온건 무마책을 쓰도록 하여 당일 현지에 부임하게 한다. 신임군수 박원명이 고부 농민들에게 전임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인정하고 민정을 잘 파악하여 수습에 힘쓴 결과 사태는 수습된 듯 하였다. 그러나 그 뒤이어서 안핵사 이용태는 봉기한 농민들이 해산되기를 기다려 발령을 받은 지 한달이 지나서야 800명의 역졸들을 이끌고 와 고부 전군을 장악하고 동학교도와 농민을 잡아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해산한 농민은 더욱 불만이 가중되고 무장으로 피신한 전봉준은 이 곳에서 동학의 남접도소(南接都所)를 설치하여 농민군 4천여명을 모으고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게 된다.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전봉준은 태인의 김개남, 금구의 최경선, 무장의 손화중 등과 함께 3월 20일에 1차 봉기의 횃불을 들었다. 1차 농민봉기는 고부민란의 실패로 침체국면으로 들어섰던 농민봉기가 전국적 규모의 농민혁명으로 새로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각지에서 봉기한 농민군들은 백산으로 모여 전열을 가다듬어 총대장(總大將)에 전봉준(全奉準), 총관령(總官領) 손화중(孫化中)·김개남(金開南), 총참모(總參謀) 김덕명(金德明)·오시영(吳時泳), 영솔장(領率將) 최경선(崔京善), 비서 송희옥(宋熹玉)·정백현(鄭伯鉉) 등으로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농민군의 ‘사대명의(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이때 전라남도 일대의 농민군들도 백산(白山)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주요 인물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靈 光 : 吳正運·崔時澈.

務 安 : 裴圭仁·裴圭贊·宋寬浩·朴琪雲·鄭敬澤·朴淵教·魯榮學·魯允夏·朴仁和·宋斗玉·金行魯·李敏弘·林春京·李東根·金應文.

長 興 : 李仁煥·李邦彦·姜率秀.

潭 陽 : 南周松·金重華·李景燮·黃正郁·尹龍洙·金義安.

昌 平 : 白鶴·柳亨魯.

長 城 : 金斗煥·奇宇善·奇東수·朴振東·姜戒中·姜瑞中.

綾 州 : 文章烈·趙鍾純.

光 州 : 朴成東·金佑鉉.

羅 州 : 吳中文·全有昌.

寶 城 : 文章衡·李致義.

2)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22-23쪽.

靈 巖 : 申聖·申欄·崔永基.
 康 津 : 金炳泰·南道均·安炳洙·尹世顯.
 興 陽 : 柳希道·具起瑞·宋年浩.
 海 南 : 金道一·金春斗.
 谷 城 : 趙錫夏·趙在英·姜日洙·金玄基.
 求 禮 : 林春奉.
 順 天 : 朴洛陽.

농민군 지도부는 3월 27일경 '격문(檄文)을 만들어 전라도 일대와 전국에 발송하여 백성들의 호응과 궐기를 촉구하였다. 3월말경 농민군의 개편이 마무리되자 농학혁명의 기치인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들고 전라도 수도인 전주를 점령하기 위하여 태인(泰仁)·금구(金溝)로 진출하였다. 농민군은 금구에 진출하였을 때 전라 감영군 1만여명이 농민군을 치러 온다는 정보를 듣고 일단 고부로 물러났다. 농민군은 금구에서 부안을 거쳐 고부로 후퇴하였다가 관군을 만나 황토현에서 격전을 벌여 승리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후 농민군은 정읍·고창·홍덕·무장·영광·함평을 거쳐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 700여명을 격파하고 주야 강행군을 하여 4월 26일, 27일에 관군보다 앞서 전주에 무혈입성하였다.

그러나 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나라의 앞날을 염려한 전봉준은 화약을 모색하였다. 정부측에서도 농민군이 요구하는 폐정개혁 27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여 5월 8일 농민군은 전주에서 철수하여 귀향하였다.

그러나 민씨 척족정권은 농민군과의 약속인 폐정개혁안 27개조의 실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일병을 조선에서 철수시키려는 정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5월 19일에는 홍계훈의 초토군을 회군시켰으므로 사실상 전라도에는 정부의 무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농민군은 무장을 유지한 채 각지에서 실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전라감사 김학진은 7월초 전봉준을 전주로 불러 官民相和의 기를 위에서, 각군현에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여 수령과 함께 농민군이 폐정개혁을 주도해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각 군현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농민군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주체가 된 폐정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집강소는 김학진과 전봉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어서 형식상으로는 官民相和의 틀위에서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민군에 그 실권이 있었다.

그런데 집강소 시기에 농민군이 전라 도 전역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나주성은 여전히 관군측의 수중에 남아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금성정의록』에는 "53개주 가운데 하나만 푸른 잎파리 같다는 민요가 들려왔다. 적들은 비록 백만 대중이라도 실로 넘볼 길이 없었다"3)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었다. 『금성정의록』에서

3) 李炳壽, 『錦城正義錄』, 44쪽.

11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이병수는 나주가 “성첩이 완고하고 병기가 튼튼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점거당하거나 빼앗기게 된다면 저들이 소굴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집어삼키려 한다”⁴⁾고 하였다. 농민군 입장에서는 언젠가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일격을 당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었다. 농민군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으나 나주는 결국 함락되지 않고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에게 ‘등에 찔린 가시같고 눈에 박힌 바늘과 같은 곳’으로 남게 된다.

조선에 들어온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된다. 청일전쟁이 끝나가면서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에 전봉준은 반일, 반침략투쟁을 위한 재봉기를 선언하게 된다. 전봉준의 재봉기 통문에 호응하여 삼남각지의 농민군이 우후죽순처럼 봉기하여 9월 28일을 전후로 하여 삼례역에는 수만명의 농민군이 집결하게 된다. 한편 충청도 보은에 대도소를 두고 있던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은 종교적 입장을 고수하여 처음에는 무력투쟁에 가담하지 않다가 이 때는 항일구국투쟁이라는 대의 앞에 결국 봉기에 동참하였다. 그 결과 북접도 무장봉기하여 순병희의 지휘아래 수만명의 농민군이 청산에 집결하였다. 전라도 삼례에 집결한 남접의 농민군과 충청도 청산에 집결한 농민군은 10월 16일 논산에서 합류하여 먼저 천연의 요새인 공주를 점령하는 전략을 세웠다.

개화과정권은 농민군의 이러한 재봉기에 당황하여 신정회를 양호순무사로 임명하여 관군을 추가로 남하시켰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정부군은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후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그것도 일본군의 감독과 지휘를 받았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스스로 농민군을 진압하겠다고 나섰다. 개화파 정권도 이를 요청함으로써 일본군과 조선정부 연합군은 농민군과 본격적인 전투에 나서게 된다. 일본군과 조선정부군은 세방향으로 나누어 공주방어 태세를 갖추고 각지에서 봉기한 농민군들과 싸웠다.

한편 전남지방의 농민군은 북상하지 않고 호남지방을 지키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대비를 하게 된다. 이때 전남지방에서 봉기한 농민군 지도자와 농민군 수(이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다음과 같다.⁵⁾

長興:李邦彦 5,000. 海南:金炳泰 3,000. 務安:裴圭仁 1,000. 長城:奇宇善 3,000. 羅州:吳勸善 3,000. 咸平:李00 2,000. 順天:朴洛陽 5,000. 興陽:柳希道 3,000. 寶城:文章衡 3,000. 光州:朴成東 4,000.

농민군은 일본군의 방어진지인 공주를 3면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혈전에서 일본의 막강한 무기와 화력에 눌려 마침내 우금치 전

4) 같은책, 39쪽.

5)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47-49쪽.

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전남지방에서는 우금치 패전 이후 농민군은 재개를 위한 결사적인 항쟁이 계속되었다. 나주에서는 우금치 패전 이후 그동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나주성 함락을 위한 일전이 11월 24일 시도되었다. 11월 23일 농민군은 나주성과 10리거리에 있는 남산정과 태평정에 진을 치고 북문밖(현 성향공원 함박산)까지 공격해 갔다. 그러나 관군은 선봉장 정석진을 앞세우고 기습하였다. 농민군을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화력의 열세에다 기습까지 당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퇴각한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 나주는 초토영이 설치되어 토벌군의 총본영이 되었다.

순천·여수에서는 11월 10일 농민군이 전라좌수영을 대대적으로 공격한다. 농민군 4만여명은 덕양역(현 여천군 소라면 덕양리)에 이르러 좌수영의 정찰병을 물리치고 종고산에 웅거, 성을 공격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성의 수비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3일간 머물다가 일단 덕양역으로 후퇴하였다. 좌수영군대가 11월 20일 덕양역에 진을 치고 있는 농민군을 기습하였다. 이때 관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는데 농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좌수영까지 밀고 갔으나 좌수사 김철규는 여수 앞바다에 있던 일본군함 쓰쿠바호에 지원을 요청하여, 일본군이 출동함으로써 관군과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앞에 농민군은 쫓기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우금치 패전 이후 전남 장흥에서는 농민혁명 최후의 전투인 장흥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12월 1일 장흥에서 동쪽으로 40리 떨어진 사창(현 장동)에 집결한 농민군은 장흥출신 이방언등이 이끄는 1만명이상의 대병력으로 여기에는 금구·나주·광주·화순·보성 등지의 농민군까지 합세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이같은 위세로 벽사역을 점령하고 기세를 몰아 장녕성을 함락시켰다. 이어 12월 10일 병영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나 이날 관군은 일본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세길로 나누어 장흥으로 급히 내려오고 있었고 정부군의 이규태군이 12일 강진을 거쳐 장흥에 들어오게 된다. 농민군은 관군과 석대들에서 일전을 하게 되나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관군에 농민군은 패배하게 되고 흩어지게 됨으로써 농민혁명의 종식을 고하게 된다. 이후 모든 지역의 농민군은 계속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재기하지 못하였다.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전략은 일본군을 중핵부대로 하고 조선군을 전면배치하면서 남하하는 것이었다. 농민군 진압을 전담한 일본군 후비보병 독립제19대대장 南소좌는 병력을 3개부대로 나누었다. 즉 첫째 중대는 서울을 출발하여 동로로 강원도를 거쳐 충청도의 증앙을 통과 전라도로 내려 왔고, 둘째 중대는 서울을 출발하여 중로로 충청도에 들어가 앞예와 마찬가지로 충청도 증앙을 거쳐 전라도 남단에 이르렀으며, 마지막 중대는 인천을 거쳐西路로 충청도의 서해안 지대를 우회하여 전라도 서남연안 지대를 거쳐 전라우수영으로 향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군은 부산을 경유하여 원군차온 일본군과 군함 2척으로 남해안과 도서지방까지 들어가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농민군 여당을 처절하게 학살하였는데, 그 정도는 “각 중대는 적의 무리를 소탕하여

13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그 패잔병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⁶⁾ 일본군과 정부군은 농민군을 단순히 진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라도 남단 해안지역 끝까지 추적하여 '토벌'하였다. 농민군에 대한 기본적인 진압방침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의 다음과 같은 전투 성과 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⁷⁾

훈령을 받은 대로 적도를 전라도 서남부로 몰아 쫓았는데, 그 들은 장흥부근 전투후 흩어져서 그 소재를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지방인민을 권장하여 그들의 소재 수색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인민(민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군대의 위세를 빌리지 않고는 수색 포박할 수 없어 군대를 南西 각지에 分屯시켜서 東徙를 뒤쫓아 잡게 했다. 이렇게 하여 민병이 잡은 적도를 지방관으로 하여금 처형케 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海南부근 250名, 康津부근 320名, 長興부근 300名, 羅州부근 230名 기타 咸平縣·務安縣·靈巖縣·光州府·綾州府·潭陽縣·順昌縣·雲峰縣·長城縣·靈光·茂長 각지에서도 모두 30내지 50명 정도씩 殘賊을 처형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다시 일어날 걱정은 없을 것 같다.

농민군에 대한 토벌은 일본군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본군은 조선침략을 목적으로 저항의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땅의 민중들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1906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일의병이 다시 봉기하였고, 특히 전남지방은 1908-10년 가장 많은 수의 의병이 봉기하여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것이다.

3.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의 특성

전남지방 동학농민봉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남지방의 동학농민군은 농민군의 주력을 이룬 전북지방의 농민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차 봉기시 전남지방의 농민군은 상당수가 백산봉기에 참여하여 황룡강전투 등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또 2차 봉기시에는 농민군 주력의 배후를 지키는 구실을 맡아 나주성전투, 광양·하동전투 등을 감행하였으며, 농민군이 공주에서 패퇴한 뒤에도 최후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주성 재공격, 장흥 석대들 전투 등을 전개하였다. 일본군측은 이 지역 전투에 임하면서 농민군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토벌이 행해졌고, 따라서 그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전남에서의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분포양상을 보

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4쪽.

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2쪽.

인다. 이 지방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접주들은 광주의 손화중·최경선, 무안의 배규인, 순천·광양의 김인배, 장흥의 이방언 등이다. 그 다음의 세력을 가졌던 접주로는 나주의 오증문(오권선), 담양의 남용삼, 홍양의 유봉만, 함평의 이화진, 영광의 양경수, 해남의 백장안, 장성의 기우선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의 세력이 비교적 약했던 곳으로는 영암·강진·화순·농주·옥과·구례·곡성·완도·진도등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나주를 제외한 모든 곳이 농민군의 세력권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⁸⁾

세제, 이들 농민군세력은 다시 대접주들을 중심으로 몇개의 권역으로 그 세력을 나누어볼 수 있다. 광주·장성·나주지역은 손화중·최경선의 세력권에, 담양·옥과·구례지역은 남원의 김개남세력권에, 장흥·강진·보성·해남지역은 이방언의 세력권에, 순천·광양·송주지역은 김인배의 세력권, 무안·함평지역은 배상옥의 세력권에 각각 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대접주들 가운데 손화중·최경선·김인배·김개남 등은 모두 노령 이북, 특히 고창·태인·금구지역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접주 외에도 영광에서 활동한 양경수·송문수·오하영·오시영 등은 모두 고창·무장출신들이었다. 이는 당시 노령이남지역에서 이방언·배상옥 외에 특출한 대접주를 배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도 이 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적어도 농민혁명 초기에 전남지방 농민군은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전북지방의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전남·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령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남과 북의 농민군세력에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세제, 전남지방의 농민군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부농, 혹은 중소지주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장흥의 이방언·이사경, 무안의 배상옥, 해남의 백장안, 나주의 전유창, 광양의 서운악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농민군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몰락양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오권선, 김문화와 같은 인물들도 있다. 또 평민이나 천민출신의 지도자로서 담양 용구동의 김형순, 구례의 임정연 등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농민군 지도자들은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건설의 목표는 같았다.

네제, 접주 밑에는 接司·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 등의 직책이 있었는데, 접주·접사·도집·교수는 집강을 겸하기도 하였다.⁹⁾ 이들 중간 지휘자들도 어느 정도는 문식이 있는 이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들의 지휘아래 움직이고 있던 일반 농민군들은 사회적으로 평민·천민, 경제적

8) 『東學亂記錄』 「李圭泰往復병墓誌名」, 503-504쪽

“... 茂長·靈光·光州·潭陽·長興·務安·咸平·同福·興陽·扶安·長城·古阜等 邑 當爲大窟穴 統而言之 則無邑不窟穴 ... ”

9) 이들 각 직책의 임무는 「전봉준공초」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5 전남지방의 등학농민혁명

으로는 영세농민·상인·수공업자 등이었을 것이다. 이들 일반 농민군들이 바로 전봉준이 백산에 발표한 「격문」에서 말한 ‘민중’일 것이며, 이들 ‘민중’은 농민혁명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사주체로서 떠오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장성 · 담양 · 옥과의 동학농민혁명

강 소 정(사학 3)

1. 장 성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무장에서 기포한 후 4월 7일에는 고부에서 전주 감영군과 황토현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전주감영군을 격파한 동학농민군은 이후 남쪽으로 향하여 홍덕, 고창, 영광을 차례로 점령하고, 4월 16일에는 함평현을 점령하였다. 이 때 서울에서 내려온 초토사 홍계훈의 군대는 농민군을 뒤쫓아 내려왔다. 전봉준은 영광까지 따라온 홍계훈의 경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4월 21일 주력부대가 장성으로 향하면서 일부 병력을 나주 방향으로 이동하게 했다.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21일 장성에 이르러 월평삼봉밀에 진을 쳤다. 23일 홍계훈의 선봉 이학승이 이끄는 경군 3백여명(전봉준의 공초에는 7백여명으로 되어 있음)은 길을 몰라 헤매다가 어느덧 장성에 이르러 황룡강 건너편 황룡촌 월평장터에서 농민군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학승은 그때서야 사면이 모두 농민군임을 알았다. 이학승은 농민군의 세력이 너무 커서 먼저 공격해올까 두려운 나머지 대포를 쏘아 공격하니 순식간에 농민군 수십명이 쓰러졌다.

농민군과 경군의 황룡촌전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농민군은 황토재에서 전주감영군과 제법 큰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나, 조선의 최정예부대와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경군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쿠르프식 야포, 회전식 기관총, 모제르식 소총 등의 최신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반면 농민군은 각 고을을 점령하고 각 군현의 무기들을 접수하여 무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경군의 무기에 비하면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¹⁾

갑자기 경군의 습격을 받은 농민군은 월평삼봉쪽으로 후퇴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학이 날개를 펼친 듯 대형을 넓게 벌리었다. 그리고 조금뒤 대나무로 만든 ‘장태’ 여러개를 굴려 경군의 총알을 피하면서 경군에 반격을 가하였다. 이때 전봉준은 농민군에게 “등에는 청을(靑乙)부적을 붙이고 앞옷깃을 물고 엎드려서 장태를 굴려라. 그러면 적의 포탄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군령을 내렸다.²⁾ 앞옷깃을 물게 한 것은 허리를 펴 수 없는 자세에서 농민군을 오로지 앞으로만 달리게 하려는 전봉준의 특출한 전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경군은 삼면으로부터 쳐내려오는 농민군의 위세에 놀려 도망쳤으나 끝내 황룡강가에서 몰살을 당했다.

1)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3.

2) 이병수, 『금성정의록』, 55쪽.

이학승은 패잔병을 이끌고 영광방면으로 달아나다 신호리마을 뒷구릉에서 농민군의 추적을 뿌리치지 못하고 항전을 했으나 병사 다섯명과 함께 농민군의 칼아래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황룡강전투이다. 이 전투의 승리로 농민군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날 싸움에 참가한 농민군과 관군의 수는 기록마다 다르나 대체로 농민군 4천여명, 관군 3백여명정도였다. 아무튼 경군과는 최초로 벌인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관군을 사살하고 대포 2문과 양총 1백여정을 노획하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³⁾

황룡강전투때 ‘장태’라는 것이 새로 등장하였는데 장태의 만들새와 모양을 두고는 이설이 많다. 관계기록을 찾아보면 어떤 기록에는 “장태라고 하는 것은 청죽(靑竹)으로 엮어 닭의 장태와 같이 만든 것으로 그 밑에 차바퀴를 붙인 것이며 그 속에는 군사가 앉아 충질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장태를 만든 사람은 장흥접주 이방언으로 그의 별호를 이장태라고 불렀다”⁴⁾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는 “갑자기 큰 죽룡을 밀고 나오는데 길쭉하게 둥글면서 닭체와 같은 것이 10매였다. 바깥으로는 칼을 꽂아 고슴도치와 같았고 아래에는 쌍바퀴를 달고 굴리면서 다가왔다. 관군들의 연환과 시책을 모두 죽룡이 막아 주어서 적들이 그뒤를 따라 포를 쏘고 크게 부르짖으며 밀려왔다”⁵⁾고 나와있고, 다른 기록에는 “그들이 함평에 있을 적에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다가 장태 몇개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수십아름이 되었고 길이는 10여발이 되었다. 북쪽으로 올라갈 적에 그 장태를 운반해서 장성 월평참에 이르렀다. 앞에는 큰 장태를 굴려 앞드리고서 밀고 오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게 했다. 이와 같이 하니 포환이 들어가지 않았다”⁶⁾고 되어 있다. 장성접주 이춘영의 아들인 이규익은 아버지 이춘영에게 들은 바로는 세번째의 『금성정의록』의 기록과 비슷하다고 한다.

동학농민군이 서울의 정예부대를 격파한 장성의 황룡강전투는 지방군을 격파한 황토재전투와는 그 의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전주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력층을 쓸어 없애고 새로운 민중세상을 만들겠다는 동학농민군의 계획이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워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현재 황룡강가의 격전지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이학승이 죽은 자리(현 황룡면 장산리 황룡중학교 건너편 박내열웅(73세)의 돼지사육장 옆)에는 1897년 최익현이 비문을 쓴 ‘贈左承旨李公學承之殉難碑’가 서있을 뿐이다.

장성은 갈재(노령)를 넘으면 곧 1894년 농민군 봉기의 진원지가 된 정읍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은 1894년내내 농민혁명 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

3) 배항섭, 「농민군의 최초 점령지 영광, 함평, 장성, 나주」 『예향』 (1993년 3월호).

4) 오지영, 『동학사』, 479쪽.

5) 황현, 『오하기문』.

6) 이병수, 『금성정의록』, 55쪽.

19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황룡촌전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동학교도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장성지역에서는 1차 기포시에 김주환, 기우선, 기동도, 박진동, 강계중, 강서중 등이 일어났으며 2차 기포시에도 기우선이 3천여명을 거느리고 일어났다.⁷⁾

그런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장성의 대접주검 총사령관인 이춘영이 일찍이 황룡촌전투에 적극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고 자기집인 황룡강 토말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장성 동학당 포고문과 동학군 포고문, 그리고 폐정개혁 12개조를 발표하였다고 한다.⁸⁾ 토말은 현재 광주직할시 광산구 오룡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살다가 작년에 작고한 이춘영의 아들 이규익이 자기집에 천도교 광산교구를 설치하고 그의 방에는 동학교주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 동학농민군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나 『동학약사』의 고증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것 같다.⁹⁾

동학농민군은 일본침략자들이 대궐을 침입하고 친일정권을 세워 국정을 요리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자 일제히 봉기하여 남, 북접이 연합해 서울로 가기위해 공주로 진격했다. 그러나 공주에서 일본군이 주축이 된 관군의 신무기를 당할 수 없어 참담하게 패배한 후 마지막으로 태인에서 11월 27일에 5천명이 대항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전봉준은 그곳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장성의 입암산성으로 들어가 장성별장 이종록과 동식동숙하고 백양사에서 일박한 후 순창의 피로리에서 체포되었다.

또한 패주하는 동학농민군은 장성을 거쳐 남하하느라 법석이었고 그들을 추격하는 관군의 토색질로 장성지역은 그 폐해가 컸으니 장성출신 유생 변만기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1월 22일 시장을 돌아보니 장이 서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초저녁 별처럼 드물었으며 동학군이 운집하여 온통 살벌한 분위기였다. 흥덕, 고창의 동학군 1천여명이 나주로 갔다. 11월 24일 고부의 동학군 3백여명이 깃발 7개를 앞세워 장성에 왔기에 점심을 대접했다. 정읍과 고창의 동학군 수천명이 장성에 유진하여 읍과 유탕리에서 수일간 떠나지 않아 식사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¹⁰⁾

한편 동학농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전남일대는 관군의 학살과 약탈이 휩쓸고 갔는데 장성의 경우를 관군측의 기록에서 몇가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7)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24쪽.

8) 이춘영, 『동학약사』.

9) 이춘영의 증손 이현선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춘영은 황룡강전투때에 장성의 대접주검 총사령관으로 큰 공을 세웠고 황룡강전투후 갈재를 넘어 전봉준접과 합세하여 전주에서 전장을 치르고 공주전투후 후퇴하여 돌아와 처가인 박씨의 선산인 수연산에서 3년간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 (1994. 5. 8).

10) 변만기, 『봉남일기』.

12월 5일 선봉진의 각 부대가 장성에서 유숙했는데 정읍의 동학 거괴 손덕수와 순화중부대의 정정철 그리고 장성의 아치실에서 잡아온 장성의 거괴 이봉학등 3인을 어제 오시(午時)에 군민을 장대에 모여 효수시켜 경계했다.¹¹⁾

12월 14일 좌선봉진의 첩보에 따르면 장성전체가 군기를 모두 빼앗기고 동학도가 고을에 가득하여 읍이나 촌을 막론하고 모두 동학당으로 뭉쳤는데 본진이 진주한 후 방을 붙여 효유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각 면과 리에 지시하여 동학의 거괴를 잡은 후 경중에 따라 처리하게 했다.¹²⁾

장성부의 동면 용두리(현 북하면 용두리인듯함)는 본래 동학의 소굴이었으므로 병정과 별군관 이재화, 황범수등을 파견하여 거괴 3인을 잡아 즉시 죽였는데 별군관들은 깊이 소굴에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을 세웠으니 포상해야 한다.¹³⁾

12월 19일 장성 수성별장의 첩보에 따르면 장성부의 북이면 금곡접주 한덕일과 김사문등을 잡은 현봉호의 사연과 그들의 처리결과를 보고했다.¹⁴⁾

1895년 1월 2일 장성부사겸 소모사의 첩보에 따르면 본부의 장내인 공기로·남라구·이궁궁·한덕일·김사문 등이 모두 “동학군의 거괴요, 악인으로 군기를 약탈하고 공납을 막으며 사사로이 백성들에게 세를 징수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공기로는 고부의병들이 잡아와 장날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김종익과 함께 효수했고 이기주, 공치환, 남라구, 이궁궁, 한덕일, 김사문 6인도 효수하였다.¹⁵⁾

또한 장성부 경내의 강일음은 장성읍의 동학 거괴로 읍성을 지킨다고 관장을 협박하여 무기를 빼앗고 민간의 재물을 겁취하였으며, 손익영은 도당을 모아 인근 고을까지 가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정하표는 동학의 접사로 민간에 폐를 끼쳤으며 강유음은 강일음의 동생으로 동학의 접사가 되어 그 형을 따라 불의와 행패가 심각했다. 또한 손홍모는 북하면 신촌접주로 행패가 심했고 숨어살면서 무기를 숨기고 후일을 기약했고, 공치선은 북이면 상곡 접주로 악한이며 곡성군의 군기를 빼앗았다고 한다. 그리고 본부 북이면 목란리에 사는 유광오는 정읍접주로 정읍과 장성에 출몰하면서 많은 폐단을 끼쳤고, 추영시, 손기환 등은 모두 동학의 접

11)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568쪽.

12) 같은 책, 604쪽.

13)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04쪽.

14)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13쪽.

15) 같은 책, 650쪽.

21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솔로 흉악무도했으며, 백태일, 오영기등은 본부 복이면 제암점솔로 악질적인 행태를 자행했으므로 12월 27일 장날을 기해 거리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여 모두 효수했다.¹⁶⁾

이상은 관군측의 기록인데 필자는 금년 4월말 복하면 신촌접주였다는 손홍모, 복이면 상곡접주였다는 공치선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장성을 찾았으나 현재는 그 후손들을 찾을 길이 없어 그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

2. 담 양

1894년 3월 고부 백산기포시 담양에서는 남주송, 김중필, 이경선, 황정옥, 윤용주, 김의안 등이 참여하였다.¹⁷⁾

1894년 4월 고부 황토현전투시 담양에서는 국인묵이 병졸을 이끌고 전주감영군측에 합세하여 농민군과 맞서 싸웠다.¹⁸⁾ 고부 황토현에서 패한뒤 국인묵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다시 담양으로 돌아오는데, 전주화약 이후 6월 2일에는 농민군 40여명이 정읍 경계로부터 담양으로 들어와 수성청에 불을 지르고 수성별장 국인묵의 집을 부수게 된다.¹⁹⁾

담양에서는 1894년 여름쯤 동학농민군이 한참 기세를 올렸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담양 용구동(현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을 꼽을 수 있다. 관군측의 기록을 보면 당시 용구동은 “동학을 하지 않은 자가 아주 적으며 끼고 도는 흉도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동조자를 배양하고 나가서는 독을 뿜어냈다”²⁰⁾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남원의 화산당점과 담양의 용구동점은 ‘强接’으로서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다.²¹⁾

최근 총무처에서 발간한 『동학관련판결문집』에는 담양 용구동의 농민군과 담양읍의 향리층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이 실려 있다. 용구동의 접주 김형순과 김문화가 그 해 7월 담양의 아전으로서 당시 농민군 진압을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던 국홍묵을 살해하였다.²²⁾ 그 해 12월 농민군이 관군과 일군에 의해 패퇴하면서 동학괴수 김형순과 김문화 등은 이 마을의 무리를 이끌고 마을뒤 용구산으로 들어가 피신하였다. 이 사실을 안 담양수성군들이 산

1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51쪽.

17)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24쪽.

18) 『隨錄』.

19) 『隨錄』. 국인묵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후, 1907년경 김동신이라는 의병장 밑에서 의병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전북 순창 및 전남 담양에서 활약 하였다.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 제1권, 591쪽.

20)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21) 황현, 『오하기문』 2筆, 43쪽.

22) 국홍묵은 일제하, 해방직후 언론인으로서 활약한 국기열의 부친이다.

을 포위하고 수색했으나 줄게 몇만명을 잡았을 뿐이요, 그 우두머리는 장성 백양사쪽으로 달아났다.²³⁾ 그러다가 그해 겨울(음력 1월 22일) 김형순이 압행어사에 의해 정읍에서 잡혀 담양으로 이송되어 왔을 때, 국홍목의 아들 국재봉, 국제준 등이 칼로 찔러 복수극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용구동 접주 김형순과 김문화(접사)의 후손들은 아직도 담양군 주평리에 살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김형순은 그때 상처를 입었으나 죽지 않았고, 광주로 이송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처형 전날 옥리에게 목욕물을 청하여 옥사의 벽에 물을 칠하여 벽을 헐고 탈옥에 성공하였다고 한다.²⁴⁾ 그리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김형순의 집은 대단히 가난한 빈농이었다고 한다. 한편 김문화는 용구동의 서당 훈장으로서 지식층에 해당하는 이였으며 그해 겨울 정읍으로 피신하여 이후에도 생식을 하며 도를 닦았다고 한다.²⁵⁾

금년 4월 필자는 용구동의 한 주민(이건우씨)로부터 갑오년에 자기 할머니가 쓴 혈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해 본 결과, 그 혈서는 그 해 12월 관군과 일본군이 농민군 토벌을 위해 용구동에 들어와 거의 모든 주민을 잡아가지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제휘)은 절대 동학교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소장이었다. 그 여인은 이 혈서소장으로 남편의 목숨을 구해냈다고 한다.²⁶⁾ 이 혈서는 당시 용구동사람들이 당하였던 수난을 짐작케 한다.

한편 월산면에는 이종섭이라는 양반지주가 있었는데 그는 가문의 재산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일가붙이들의 강권으로 그해 여름 농민군 접주가 되었다고 한다. 그해 겨울 관군이 내려왔을 때 그는 이를 극력 변명하여 관군의 오랏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²⁷⁾

또한 담양에는 남웅삼이라는 동학거괴가 있었다. 그는 김개남이 전주성 함락 이후 6월 25일 3천군을 거느리고 남원으로 들어갈 때 선봉장으로 활약한 남주송과 동일인으로 보인다.²⁸⁾ 그는 남원에서 김개남의 신임을 얻어 전량관(典糧官)이 되었다. 남웅삼에게는 국춘기(국기연)이라는 서기가 있었다. 국춘기는 담양사람으로 형제·친척들이 모두 담양아전으로 동학군의 침입으로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남웅삼의 서기가 되었다고 한다.²⁹⁾ 9월 30일 남웅삼과 국춘기는 남원을 출발하여 10월 1일 담양에 도착하였다. 김개남은 10월 10일 경 수만명을 이끌고 남원을 출발, 전주로 향하는데 이때 김개남은 남웅삼에게 같이 가기를 청하나 병을 청하고 가지 않았다. 김개남이 부상한 뒤 남원을 지키기 위해 10월 23일 남원으로 가게 될 때까지 남웅삼은 담양읍을 장악하고 있었다.³⁰⁾ 그 뒤 남웅삼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가 1904년 일진회원이

23) 「순무선봉진동록」 『동학란기록』 상, 593쪽.

24) 김종덕웅(김형순의 조카)의 증언 (1994. 3. 18).

25) 김만옥(김문화의 증손)의 증언 (1994. 3. 18).

26) 이건우씨의 증언(1994. 3. 18).

27) 고문서 「勸獎 潭陽士人 李鍾燮」 (이해섭씨 소장).

28)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41쪽.

29) 정석모, 「갑오약력」 『동학란기록』 상, 69쪽.

23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되어 전주에 나타난다.

담양에서는 12월 4일 22명이 잡혀 이문영·채대로미·장대진·임송도는 포살되었고, 국문보·김희완은 나주에 압송되었다. 이곳 전주 이장태도 일본군에 잡혀 포살되었고 그 부하 15명은 담양의 감옥에 갇혔다.³¹⁾

12월 11일에는 일본군과 관군40여명이 담양에서 광주로 나왔다가 다시 나주로 빠졌다. 이들 일본군은 나주 초토영에서 다시 바다쪽으로 재배치되어 파견되고 있었다.³²⁾

3. 옥 과

옥과는 조선시대 옥과현이었는데 1909년에 창평군 옥과면으로 이속되었다가 1914년 곡성군으로 통합되었다.

4월 9일 전라감사는 동학도 수천명이 옥과관부로 들어와 본현감을 묶어 놓혀 놓고 관곡을 모두 탈취하여 정읍으로 갔다고 보고하였다.³³⁾ 이는 옥과의 동학도들이 백산봉기에 참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옥과지방에서의 농민군의 활동은 확인되지않으나 12월 3일 京軍이 담양부에 들어올 때 옥과의 의병 100여명이 그에 앞서 담양에 들어왔다는 기록,³⁴⁾ 12월 12일 옥과거과 전재석, 김낙유, 황찬목을 포살했다는 기록,³⁵⁾ 그리고 옥과 前縣監인 劉正孝는 의병을 일으켜 비류들을 많이 잡아 공을 세워 6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얻었다는 기록,³⁶⁾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해 여름 집강소기에 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0) 같은책, 70쪽.

31) 「全羅道所捉·所獲東徒成冊」 『동학란기록』 하, 707쪽.

32) 「선봉진정보첩」 『동학란기록』 하, 231쪽.

3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6쪽.

34) 같은 책, 16쪽.

35) 「全羅道所捉·所獲東徒成冊」 『東學亂記錄』 下, 708쪽.

36) 「甲午軍功錄」 『東學亂記錄』 下, 714쪽.

3. 광주·나주·화순·동복· 능주·영암의 동학농민혁명

김 미 경(사학 3)

1. 광 주 · 나 주

전봉준과 손화중은 전라도 무장에서 4천명의 농민군을 모으고 ‘창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농민전쟁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후 3월 25일 백산으로 진출하였다.

백산기포에는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때 나주에서도 오권선, 전유창 등이 참여하였다고 한다.¹⁾ 농민군들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4월 12일에 영광을 점령하였다. 영광점령 후 16일 오전에 함평을 향해 출발하여 곧바로 함평을 점령하였다.

함평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전봉준은 초토사 홍계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작전을 펼쳤다. 먼저 18일 나주공형(公兄)에게 통문을 보내어 나주목사의 의중을 떠보았다. 그는 통문에 적기를, “우리들의 이번 의거는 위로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케 함이라. 지나는 읍마다 탐관을 징치하고, 깨끗한 아전을 상주며, 아전의 폐단과 민막을 바로잡고, 전운영의 폐단을 혁파하며, 폐하게 아뢰어 국태공(대원군)을 모셔다가 나랏일을 다스리게 하여 난신 적자(亂臣賊子)와 아첨하는 자들을 모조리 내쫓으려는 것이 우리의 본의일 뿐이다……고결(古訣)에 말하기를, ‘광주와 나주 사이는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하였고, 도선(道詵)이 이르기를, ‘광주와 나주의 땅은 밥짓는 연기가 영원히 끊어진다’ 하였으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 뜻을 목사에게 곧바로 고해 각읍에서 모은 군인을 모두 풀어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갇혀 있는 도인을 즉시 놓아준다면 우리들은 나주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 임금의 백성으로서 어찌 공격할 수 있겠는가. 가부간 속히 회답하라” 하였다.

이에 목사 민종렬은 “명분없는 거사는 법에 의해 주륙되어야 하며 부도덕한 말은 듣고 싶지 않다”²⁾고 회답을 하였다.

경군이 영광에 도착할 무렵, 전봉준은 홍계훈의 경군을 분산시킬 의도로 농민군을 나주와 장성으로 나누어 진격시켰다. 전봉준은 경군을 장성쪽으로 돌리고 나주쪽으로는 경군을 영광에 묶어둘 정도의 군사만 내려 보냈다.

당시 민종렬은 4월초부터 성을 굳게 수비하고 백성과 관리를 엄히 통솔하고 있었다. 또한 군중들에게 이르기를, “본고을은 50개 고을 중에서 제일 보

1) 오지영, 『동학사』, 24쪽.

2) 황현, 『오하기문』, 1筆.

장된 고을인데 지금에 와서 나주가 없다면 호남이 없을 것이며 호남이 없다면 온 국가가 몹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재난이 하늘까지 이르렀는데 수비하지 않으면 어찌 책임을 다했다고 하겠는가? 또 적들이 꼭 나주에만 호기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첩이 완고하고 병기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점거당하거나 빼앗기게 된다면 저들이 소굴로 삼고 장차 세력을 굳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라고 이르고, 영장 이원우(李源佑)와 향리 정석진(鄭錫珍)과 더불어 대대를 편성하고 각 촌락의 장정들을 모집하여 16개 초(哨)로 편성하여 훼손된 성첩을 보수하고 군량과 부식도 지급케 하였다.

나주는 본래 12고을의 진영을 관할하고 있어 기고(旗鼓), 창검(槍劍), 활(弓弩), 탄약(彈丸), 대완포(大碗砲), 장대포(將大砲), 천보총(千步銃), 화살(片箭), 긴화살(長箭) 등을 오랫동안 무기고에 저장해 두었는데,³⁾ 이때에 이를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민군 주력부대는 21일 장성에 이르러 23일 홍계훈 부대와 맞서 승리를 거두고, 27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경군의 전주성포위와 청·일 양국군의 파병 등으로 인해 5월 7일 홍계훈과 화의를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그리고 7월초에는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의 타협에 의해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는 집강소가 설치될 즈음 나주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처음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전라도에서는 나주, 남원, 운봉의 세 고을의 수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주의 대도소(大都所) 지시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에 대도소는 최경선을 나주에, 김개남을 남원에, 김봉득을 운봉에 보내어 동학군을 이끌고 굴복시키도록 했다. 그런 중에도 나주목사는 읍내 백성을 모집하여 최경선이 이끈 3,000명의 동학군에 대항하여 성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나주는 호남의 대읍(大邑)으로 서북편에는 준급(峻急)한 큰 고개에 둘러싸여 있고 동남편에는 큰 강이 성첩을 안고 굽이도는 천연의 요새다. 나주는 또 원래부터 다른 고을보다 더 심히 동학을 지목하여 미워하기도 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적지않은 동학교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최경선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전봉준은 최경선에게 군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고 스스로 몇사람을 데리고 나주읍으로 직접가서 담판에 나섰다. 전봉준은 성의 동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바로 관아에 들어섰다. 당황한 목사는 황망히 일어나 그가 누군가하고 물었다. 그는 “나는 동학군 대장 전봉준이요. 주관(主官)은 괴이히 여길 것이 없

3) 이병수, 『금성정의록』(번역본), 38-39쪽.

27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소. 그대도 조선사람이요 나도 조선사람이라 조선사람으로서 대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저어하시오? 방금 우리나라는 외이(外夷)가 독한 손을 내밀어 침략을 피하고 국정은 나날이 그릇되어가서 나라의 존망이 목측(目測)에 있으니 그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어서 바빠 꿈을 깨시오” 라고 했다. 목사는 전봉준의 늠름한 기풍을 보고 또 그가 말한 것을 듣고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전후의 사유를 듣기를 청할 뿐이었다. 전봉준은 이에 천하의 대세며 홍계훈과 강화했던 당시의 이야기며 각 군에 집강소를 두고 서로 나라일을 의논케 된 사실을 말했다. 말을 듣고는 이에 거역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순순히 전봉준의 지시에 따랐다.⁴⁾

전봉준이 나주성에서 민종렬과 담판을 한 것은 8월 13일이었으며 전봉준은 성안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주를 떠났다. 떠나는 날 아침 전봉준은 나주 장령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모의를 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자기와 수하들이 입고온 수십 벌의 옷을 벗어주면서, “수개월 땀에 젖어 더러우니 세탁해 놓으면 며칠안에 돌아와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나주를 빠져 나왔다. 나주 장령들은 다시 돌아올 때 해치워도 늦지않다고 생각해 성문을 열어 주었다⁵⁾고 한다.

그러나 나주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나주城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城內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城밖의 각 面里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⁶⁾

당시 나주목사 민종렬⁷⁾은 營將 이원우와 함께 7월 18일 정부로부터 파직당하게 되는데 이는 김학진이 나주 목사의 파직을 요구하는 전봉준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에 그렇게 장계를 올렸기 때문이었다.⁸⁾ 그러나 민종렬은 나주를 떠나지 않고 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8월 19일 민종렬은 城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나주 목사로 재임명되었다.⁹⁾ 이 즈음은 당시 개화파 정권이 농민군 진압의 방침을 정하기 시작한 때였다.

4)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39-41쪽.

이병수의 『금성정의록』에는 집강소 설치에 실패했고 목사 민종렬의 타이름을 받고 도망쳤다고 했다. 이병수는 이곳 도약소 직월의 소임으로 민종렬을 높이려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 같다. 황현의 『오하기문』에는 집강소 설치를 권고했다가 실패했다고 썼다.

5) 이병수, 같은 책, 51-52쪽.

6)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는 나주의 각 면·리에도 집강이 임명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靑浦 생활사 박물관 소장 고문서 「羅州名錄」).

7) 민종렬은 민비와 같은 민씨이지만 복인이며 민비와 촌수로는 가깝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비는 閔種烈과 그의 동생 閔種黻을 같은 민씨라고 총애했다고 한다(『오하기문』, 2筆).

8) 황현, 『오하기문』, 2필.

9)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8월 17일.

전봉준은 집강소 설치 문제로 나주에 다니오는 길에 장성에 있는 손화중을 만나 2차 기병문제를 상의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 맞서야 하므로 1차기병때 보다 더 많은 농민군을 필요로 했으나 추수를 앞두고 있었기에 쉽게 대군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더구나 북접교단과의 노선충돌로 인해 본격적인 기병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전봉준은 9월 12일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기병을 확정짓고 삼남의 농민군에게 봉기하여 삼례로 모이라는 통문을 띄웠다. 최경선은 이때 삼례로 가서 5,6일 동안 머무른 후 전봉준이 손화중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광주로 내려왔다. 당시 전봉준은 손화중에게 광주·나주방면의 방비를 당부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민종렬이 나주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고, 또 일본군이 배를 타고 서남해안에 상륙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10월 20일경 손화중, 오권선 등이 이끄는 농민군은 나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仙岩에 집결하고 선봉대를 砬山¹⁰⁾에 보냈다. 이때 나주목사 민종렬은 성 밖으로 출정하여 농민군을 토벌할 생각을 굳히고 수성군에게 출병 명령을 내렸다.

김창균을 선봉장으로 임명하고, 김성진을 중군장으로, 정석진을 후군장으로 하였다. 각자 포군 2百名씩을 통솔하여 나주로부터 5리쯤 되는 石岬里로 출진하였다. 김창균이 연로(年老)하다 하여 도통장 정석진을 선봉장으로 김창균은 후군장으로 교체되었다. 수성군은 20일 저녁은 석현리에서 주숙하고 21일 진시(午前 九時경)에 행군하여 광주 침산(砬山)에 농민군 선발대가 진을 치고 있어 양방은 1 km쯤 되는 지점에서 접전을 벌였다. 농민군 선발대는 수성군에 밀려 후퇴하고 말았다. 수성군은 계속 진격하여 농민군 본진이 진을 치고 있던 광주 선암(仙岩)에 도착하여 강(황룡강)을 사이에 두고 접전이 벌어졌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적과 냇물 하나 사이의 거리에 이르니 적들은 조총을 난사했다. 도통장이 강 언덕으로 가까이 가서 강충삼에게 먼저 대완포를 쏘게 하니 포탄이 떨어진 곳에 적의 무리들이 어지럽게 죽어갔다. 또 천보총을 연발로 쏘아 대니 적들은 크게 무너지고 인마(人馬)가 서로 밟혀 사망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적들을 소탕시켜 버리도록 하고 군을 소집하여 점검해 보니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다¹¹⁾

하니 농민군의 피해는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성군은 선암전투를 마치고 서봉산 작전으로 발길을 옮겼다. 서봉산 작전에는 나주 접주 오권선 집안의 나주 吳氏 재각이 있었는데 수성군이 재각에 불을 질러 분풀이를 했다.¹²⁾

10) 現, 광산구 하산동 침산부락.

11) 이병수, 같은 책, 61-62쪽.

12) 이병수의 『금성정의록』에서는 이 사실을 서술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29 전남지방 등학농민혁명

나주 수성군의 1차 출병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작천에서 나주로 가는 지름길로 회군(回軍)하였다.

한편 전봉준 부대는 공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효포와 곰티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전세는 농민군이 불리하게 되어갔다. 11월 9일에 농민전쟁의 최대 격전인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지만 정부·일본 연합군의 최신식 무기의 화력은 막강하여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농민군들은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나주 수성군은 11월 8일 영암으로부터 시급한 보고를 받고 9일에 출정하지만 이미 농민군이 후퇴해 버렸기 때문에 10일에 회군하였다. 그날밤 민중렬은 오권선이 나주에 들어와 성안을 점령하려고 기세가 대단하다는 보고를 받고 2차 출병의 지시를 내렸다.¹³⁾ 수성군은 11월 11일 정오에 행군하여 주엽정(朱葉亭)¹⁴⁾에서 멈추었다가 하룻밤 자고 12일에 40리쯤 가서 북창참(北倉站)에 도착하니, 농민군들은 광주 두동(斗洞)¹⁵⁾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성군은 두동으로 출진하지 않고 죽산(竹山)¹⁶⁾ 앞 봉우리 부근에 진을 쳤다. 이때 오권선과 같은 집안으로 풍치(風峙)¹⁷⁾의 오용선(吳龍善)이 밥 한 말과 술 한 동이를 준비하여 군중으로 보내왔다고 한다.¹⁸⁾

다음날 아침, 즉 11월 13일 아침 수성군은 농민군이 용진산(龍珍山) 위로 진을 옮기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용진산으로 출진하였다. 농민군과 출전한 수성군은 용진산 중봉에서 부딪쳐 접전이 벌어졌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적들은 산위에 거점을 두고 관군은 아래의 거점을 두었으므로 지형적 조건이 맞지 않아 우려하고 있는 순간에 접응장 박근육과 박재국, 최윤용, 구유술 등이 병을 이끌고 와서 우측편 산상으로 진을 치고 저들에게 삼면으로 공격하였다. 또 민병들은 좌우로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으니 군중들은 모두 날뛰었고 임여현 등을 좌측에 불을 질러 식량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다”하니 농민군들은 북쪽길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나주 수성군은 2차 출병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군하였다.

11월 16일 함평·무안 등지의 농민군들은 무안 접주 배상옥의 지휘아래 무안군 경계인 고막포 등지에 집결하여 나주성을 위협하였다. 이에 나주 수성

13) 이병수, 같은 책, 65쪽.

14) 現, 노안면 금동리 노안지소.

15) 現, 광산구 두정동 두동마을.

16) 죽산은 『금성정의록』의 저자인 謙山 이병수가 옆 마을인 송치에서 태어나 죽산으로 이사해 와서 살다가 나주로 이사가간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권선이 살던 세동에서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 한편에는 이병수가 오권선보다 6살위인데, 나주 오씨 세력에 놀려 살았기 때문에 이병수가 오권선을 시기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광산구 의원 김희규 씨의 증언).

17) 풍숙(風宿), 또는 ‘바람지기’라고도 함.

18) 이병수, 같은 책, 66쪽.

군과 박훈양이 인솔하는 민병들은 출진하여 초동(草洞)마을에 진을 치고 17일 아침에 장동역에서 농민군과 접전을 벌였다. 농민군은 수성군측의 대완포에 눌러서 쫓기었으며, 농민군은 고막교를 건너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¹⁹⁾

11월 23일 남산전투는 오권선의 나주공략을 위한 최후의 전투였다. 이 최후의 전투의 오권선은 다른 지역에 도움을 청해서 나주공격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전력을 다한 것 같다.

12月3日 興德縣監爲牒報事 本縣境內曾有之東學徒黨 去月望後稱伐羅州守城軍 一并聚往 尚未回還緣由云云. (12월3일 흥덕현감이 첩보 드립니다. 본현의 경내에 일찌기 동학의 무리가 있었는데 지난달 보름 후에 나주 수성군을 정벌한다고 칭하고 간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²⁰⁾

위의 자료로 보아 흥덕 일대의 농민군들도 나주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민군들은 금안면(金安面) 남산촌과 태평정(太平亭) 등지에 진을 치고 밤이 되자 북문(北門)밖에 함박산(咸朴山) 가까이까지 왔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금산의막(錦山義幕)에서 군당번이 불을 피우다가 막사에 불이 붙어서 대매듭 튀는 소리가 마치 대포를 연발하는 소리와 같았으며, 불이 붙은 노끈 모양이 도깨비 불이 열을 지어 반짝거리는 것과 같았으니, 농민군들은 놀라서 남산촌 부근 지역까지 퇴각하였다”고 한다.²¹⁾

다음날 24일 도통장 정석진은 군을 정돈하여 兵을 이끌고 남산촌까지 출진하였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선봉진 정석진과 손상문이 포수 백여명을 이끌고 남산앞에 이르러 숲이 가려서 우거진 곳을 가만히 엿보았더니 농민군들은 소를 잡아 포식하려던 참이었다. 이때 일제히 포를 쏘아대니 농민군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전사자만 350여명에 달하였다”²²⁾고 한다.

이때 수성군 측에서 오권선을 사로잡으려 하였지만 오권선은 노새를 타고 멀리 도망쳤다.²³⁾ 오권선의 마지막 나주城 공격도 실패로 돌아가니, 이때 정

19) 현재 고막원 주변의 주민들에 의하면, 수성군은 밤산에 진을 치고, 농민군은 고막원 뒷산에 진을 친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으며, 농민군은 수성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고막교의 다리위 床板을 모두 걷어 버렸다고 한다 (박성렬씨(75세) 증언. 1994. 5. 5).

이는 『금성정의록』의 기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567쪽.

21) 이병수, 같은 책, 72쪽.

22) 이병수, 같은 책, 73, 84쪽.

23) 아마도 수성군 가운데에서는 오권선의 아버지 제자들과 오권선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오학수씨의 증언, 1994. 5. 5). 그러나 나주 수성군은 12월 21일 오권선을 잡으려 부안까지 50명이 출동할 정도로 오권선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

31 전남지방 등학농민혁명

부는 11월 24일 나주에 초토영(招討營)을 설치하고 나주목사 민종렬은 초토사로 제수되어 나주성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11월 그믐날밤 南平을 공격하여 점령한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12월 1일²⁴⁾ 남평이방 정남홍(丁南洪)이 와서 급보하기를, 적의 두목 최경선이 본군으로 직접 쳐들어와서 관가의 부금(符金)이 수탈당하고 있으니 출정하여 적을 토벌해 달라고 하니, 명령을 내고 도통장 정석진과 도위장 손상문, 부통장 김재환, 중군장 김성진, 참모 박재구 등에게 정예 포병 3백명을 통솔하게 하고 의거 통령 박훈양(朴薰陽)에게 민병을 거느리고 합세하도록 했다”²⁵⁾고 한다.

수성군은 4일 남평 접계에 도착하여 월연대에 진을 쳤는데, 이미 농민군들은 능주 지역으로 후퇴한 뒤였다. 바로 이어 능주 이방들이 보낸 문장에도 “적도들이 이미 흩어져 도망쳤다”하니 나주 수성군은 회군하였다.

또한 광주에서는 12월 1일 사시쯤에 순화중 부대가 해산을 선언하고 능주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광주목에서는 이후 능주 방면으로 장교와 병사를 파견하여 접주 주윤철, 박윤화, 정수해, 이봉조, 허인을 잡아 물고하였으며, 광주접주 박사집과 나주접주 전유창을 역시 체포하여 초토영으로 압송한다는 것을 첩보하였다.

당시에 체포되거나 처형된 인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월 2일 광주 농민군 전수길(全秀吉)이 나주에서 효수되었다.

12월 3일 동북(同福)에서는 광주로부터 남평을 거쳐 후퇴한 최경선의 농민군이 동북 수성군과 능주의병 연합군과 접전을 벌였으나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동북 수성군측은 농민군 220명과 접전하여 157명을 포살하고 63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그 가운데 최경선을 일본군에 압송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이형백(李亨伯)은 폐사(弊死)했으며, 장운학, 박건양, 김중현, 김병혁은 경신평사, 이밖에 59명은 동북獄에 가두었다가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다. 최자중(崔子仲), 노익호(盧益浩), 전경선(全敬善)²⁶⁾은 8일 상부 압송 도중에 사망하였다. 이때 동북 수성군을 지휘한 이는 吳相潤, 吳啓鍊, 吳啓曄, 吳允述 등으로 이들은 동북의 유력한 향리 가문이었다.²⁷⁾ 또 능주의병은 曹憲默(前萬戶), 梁周默, 尹滋

에 이 추측은 믿기 어렵다(『金洛喆 歷史』, 5쪽 참조).

24) “去月晦夜 有千餘賊徒欄入南平 破碎公堂 竊曳該守 砲傷者爲兩處 奪去印符 急報曉至 仍爲發軍 則賊已散去 營由捕得 蓋各邑賊徒 嘯聚光州 至有此去者也”(『李奎泰往復書并墓誌』, 『동학란기록』 하, 504쪽).

이병수의 『금성정의록』에는 12월 3일로 날짜를 잘못 기록하고 있다.

25) 이병수, 같은 책, 74쪽.

26) 전유창(全有暢)의 字가 敬善인 것으로 보아 全敬善은 全有暢인 것으로 추측된다.

慶 등이 지휘하였다.

12월 7일 화순 접주 이규석(李圭錫)을 체포하였다. 또 12월 8일에는 화순 접주 왕일신, 조번개, 김용보, 김자근을 5일에 체포하여 勿故하였다. 12월 9일 화순의 최성칠(崔性七), 최범구(崔範九)가 체포되어 신문 중에 사망하였다.

12월 10일 영암으로부터 장흥과 강진 병영을 점령한 농민군이 다음에는 영암을 범하겠다고 성언하고 있어 곧 영암으로 쳐들어 올 것 같다는 첩보가 도착하니 나주 수성군이 출정하였으나 농민군이 공격하지 않자 회군하였다.

12월 10일 남평 농민군 10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5명을 포살하고, 접주 나홍집(羅鴻集), 허재중(許在中), 박신환(朴信煥), 박덕기(朴德己), 김사현(金士玄) 등을 나주로 압송했다.

12월 11일 능주 동학도 13명을 체포하여 7명을 당장 포살하였으며 6명은 일본군에서 호수하였다.

12월 11일 나주 강도수, 정사십, 이화삼 등 13명을 동오면(東五面) 의거소 統首 柳紀淵에게 체포당시 포살하였으며, 한달문, 주심언 등 14명은 나주로 압송되었으며, 두동(斗洞)접주 최국서(崔局西) 등 3명이 두동 충수에게 체포당시 포살되었다.

12월 18일에 광주 백반석(白般石), 이여일(李汝日), 김찬숙(金贊叔), 이선규(李先圭), 심필중(沈必仲), 박윤식(朴允植), (이상 동학접주), 신재석(申在石), 김성춘(金成春), 최서중(崔西仲, 孫華仲 起包將), 김유복(金有卜, 崔敬善의 馬夫), 우복록(禹福蓀, 高敞 崔西仲 馬夫), 김민성(金民成, 慶尙道 白般石의 姪), 엄소사(嚴召使)는 勿故하였다.²⁷⁾

이렇게 나주는 끝까지 함락되지 않은 채 후에 초토영이 되어서 전봉준, 최경선, 손화중 등 세 두목들이 차례로 나주 감옥으로 압송되었고, 수 많은 농민군 지도자들이 인근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되니 농민군들에게 나주는 恨이 맺힌 곳이 되었다.

2. 주 요 인 물

1) 오 권 선

오권선의 字는 中文으로 철중(1861) 辛酉生으로 삼가면 세동부락에서 태어

27) 洪性讚,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1992, 29-30쪽.

28)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72쪽.
「전라도소착·소획동도성책」, 『동학란기록』 하, 707-709쪽.

33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났다. 오권선의 집안인 吳씨들은 삼가면을 중심으로 본양 도림일대에 수백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토반으로써 지금까지도 “삼도 본양은 오씨 아니면 일이 안된다”고 한다.

오권선의 아버지 吳南圭는 권선이 어렸을 때 나주 성내에서 서당훈장을 하였으며, 권선은 어려서부터 ‘글 잘한다’는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오권선은 성장한 뒤에는 다시 세동에서 살았는데 집은 초가 2칸으로 가난하였지만 똑똑했다고 한다.²⁹⁾ 오권선은 삼가면의 나주오씨 가운데 방계로서, 신분은 양반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몰락한 전형적인 몰락양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성정의록』에 의하면, “동도 괴수 오권선은 곧 우리 고을 삼가리 사람인데 본래 부랑아로 저들에게 물든지 오래된 자로 저들의 이른바 구동학(舊東學)의 대접주였다고 한다. 그 도당 수 천명을 거느리고 고부로부터 장성 완산에서 3차에 걸쳐 접전을 하고 괴수를 도와서 합세한 자라고 한다”³⁰⁾고 기록하고 있다.

세동 吳鶴洙氏의 증언에 의하면, 오학수씨의 증조부 吳碩煥氏는 헌종때 庚戌生으로, 세동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오권선을 통해 동학군측에 자금을 대주었다고 한다. 그는 嘉善大夫工曹參判의 교지까지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吳氏 문중에 吳駿善은 철종 辛亥生으로 엽전 5백냥을 수성군의 경비로 내놓았다고 한다. 그는 금성 토평비문을 쓴 송사 기우만의 제자로서 보수적인 유생이었다.

오권선은 나주성을 함락하기 위해 사력을 다 하지만 나주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7월에는 최경선과 합류하여 나주공격에 나서지만 실패하여 나주성안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그는 성밖에서 집강소 활동을 해야만 했다.

나주 수성군과 10월 21일, 11월 12일, 11월 24일에 걸쳐 여러차례 접전을 벌이지만 큰 희생만 당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주 수성군 중군인 정석희가 서봉리에 있는 오씨의 재가에 불을 질러서 오권선으로 하여금 평생 죄의식에 빠지게 하였다.

오권선의 끈질긴 도전은 11월 14일 노안면 남산부락 서답바위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 농민군이 길을 막고 있을 적에 큰 상여가 나왔다고 한다. 농민군은 출출한 김에 상가의 술잔이라도 얻어 마시려 상여를 멈추게 했는데 상여가 넘어지면서 수성군이 쏟아져 나와 농민군을 기습하였다.³¹⁾ 농민군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오권선은 말을 타고 달아났다고 한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금산에 가서 살았다고 하며 오권선의 墓 또한 금산에 있다고 한

29) 세동 오학수씨의 증언(1994.5.5).

30) 이병수, 같은 책, 42쪽.

31) 이이화,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오권선」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이는 『금성정의록』과 다른 내용이다.

다. 오권선은 오씨문중의 재실을 지을 돈을 마련하고자 고향에 가겠다고 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아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다.

〈羅州吳氏世譜〉에는 그의 죽은 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의 손자 종덕씨도 할아버지의 일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한다. 아마도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살았던 것 같다.

2) 전 유 창

全有暢은 天安 金氏 대제공파 全世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859년에 現 광주시 광산구 동산동 동산마을에서 비교적 부유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3월 25일 백산 기포에 참여하여 나주 접주로 활약하였다. 후손들은 그가 “동학 난리때 광·나주 열두고을 접주였다.”고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³²⁾ 또한 같은 천안 전씨인 전봉준과 자주 내왕하였으며 전봉준이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러 갈 때 전유창이 전봉준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2월초 농민군이 패하여 능주방면으로 후퇴할 때, 전유창은 동생 전유원에게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全有元은 집으로 돌아와 성류산 호랑이 굴에서 하룻밤 피신하고 동오리 전수진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피신하였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까지 다 죽는다”고 하여 아침식사 후 내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평 월계에 친구 김氏 집에 가니 며느리 맞은 지 3일밖에 안되었는데 그 방을 치워주며 피신시켜 주었다고 한다.

그가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귀가이후 서당훈장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편, 전유창은 동북에서 12월 6일에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하는 도중, 12월 8일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³³⁾

3. 수성군과 의병, 군공로자 명단

1) 나 주

수 성 군

장수(將帥) 정석진(鄭錫珍)	차장(次將) 김재환(金在煥)
도통장(都統將) 정태완(鄭台完)	부통장(副統將) 김재환(金在煥)
도위장(都衛將) 손상문(孫商文)	중군장(中軍將) 김성진(金聲振)

32) 전대성씨 증언. (1994. 5. 5)

33)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572쪽.

35 전남지방 등학능민혁명

통찰(統察) 김창균(金蒼均)	별장(別將) 박근옥(朴根郁)
별장(別將) 문낙삼(文洛三)	별장(別將) 박운칠(朴允七)
별장(別將) 전학권(錢鶴權)	이(吏) 기학연(奇鶴衍)
이(吏) 이돈기(李敦祺)	이(吏) 김근환(金根煥)
이(吏) 장길한(張吉翰)	이(吏) 최운용(崔允龍)
이(吏) 최문섭(崔文燮)	이(吏) 최일봉(崔一鳳)
천총(千摠) 최성순(崔聖純)	대장(隊將) 김기옥(金基玉)
집사(執事) 고덕봉(高德鳳)	집사(執事) 손치홍(孫致洪)
군관(軍官) 전공서(錢公瑞)	이(吏) 양원길(梁元吉)
이(吏) 구유술(具有述)	군교(軍校) 문관후(文寬厚)

의 병

좌수(座首) 박상수(朴祥壽)	유학(幼學) 김경환(金景煥)
유학(幼學) 럼유진(廉有鎭)	유학(幼學) 홍우현(洪佑鉉)
유학(幼學) 유기연(柳紀淵)	

2) 능 주

전만호(前萬戶) 조헌묵(曹憲默)	유학(幼學) 양주묵(梁周默)
유학(幼學) 윤자경(尹滋慶)	

3) 영 압

군수(郡守) 남기원(南起元)	군관(軍官) 손창식(孫昌植)
수성장(守城將) 하태명(河泰命)	

4) 동 북

전오위장(前五衛將) 오윤술(吳淪述)³⁴⁾

34) 이병수, 같은 책, 40쪽.
「갑오군공록」 『동학란기록』 하, 714-727쪽.

4. 영광·함평·무안의 동학농민혁명

노 지 은(사학 3)

1. 영 광

고부의 민중봉기가 계기가 되어 3월 하순 백산에 모인 농민군이 고부·태인·원평·금구·부안·정읍·홍덕 등지를 석권하고 무장에서 3일간 머무른 뒤 전남 지역에 처음 진격한 곳이 영광이다. 그때가 4월 12일경이다.

영광은 이미 1893년 3월 27일에 있었던 보은 집회에 백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동학도의 세력이 상당한 곳이었다.¹⁾

영광군수 민영수의 학정으로 1894년 2월 28일 김국현을 장두로 하여 읍민들이 폐막을 고친다며 관아에 들어가 군교를 찢고 민영수를 공격하는 등의 민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3월 20일 무장기포시에 영광에서는 오정운(吳時運)·최시철(崔時澈) 등이 두령급으로 참여하였다.²⁾

남하하는 농민군이 무장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민영수는 4월 9일부터 법성포로 피신해 도망할 준비를 했다. 그러다가 4월 12일 영광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법성포 창고의 곡식을 싣고 칠산 앞바다로 도망쳤다.

일부 농민군은 무장에 머무르고 4월 12일 일부가 영광으로 진격했다. 1만 여명의 농민군이 영광 성으로 쳐들어가 점령한 후 이곳에서 4일간 주둔하며 성 밖의 부자 조정언(正言:벼슬이름)과 김진사 집에서 밥을 날라다 먹으면서 매일 낮으로는 진법을 조련하고 밤으로는 경문을 외우며 농민군을 훈련시키고 인근 고을에 통문을 띄워 동참을 촉구했다.

영광에 머무른 지 3일째 되는 14일에는 법성포로 진격했다. 법성포는 수군 진영이 있어 수성군과 수군, 많은 무기, 탄약고가 있고 漕倉이 있어 수천석의 쌀이 보관되어 있기에 언제나 난리가 있을 적에는 일차적인 공격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미를 보관하고 있던 법성창의 곡식을 군량미로 확보하기 위해 법성포구를 둘러싼 앞뒷산과 구유포 앞뒷산에 관군으로부터 빼앗은 화승총과 창검·죽창을 들고 진을 치고 있다가 마침 세곡을 싣기 위해 한양호가 도착하자 그 중에서 5,6십명이 배에 뛰어 올라 金容眞과 선장 田中富之助, 항해사 永野源次郎, 기관수 德永淺次郎 및 德永正一 등 5명을 거친 새끼줄로 세게 묶었다.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약 4백여미터쯤 되는 곳으로 끌고가 협박한 뒤 일본인 4명은 풀어 주었다. 농민군들이 다음날 아침 한양호를 쳐부순다는 말을 듣고 한양호는 그날 밤 몰래 군산항으로 돌아갔다.³⁾ 그때 법성진의 이방을 동학군

1) 「聚語」, 『東學亂記錄』 상, 118쪽.

2) 吳知泳, 『東學史』 초고본, 22쪽.

3)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0, 51쪽.

이 잡아다가 군기고와 곡창의 열쇠를 내어줄 것을 다그쳤으나 완강히 불응하므로 장작더미에 올려 놓고 화형에 처하려 하니 다급해진 이석진이 할 수 없이 열쇠를 내어 주어 위기를 모면했다.

법성포가 표적이 된 이유는 한가지 더 있었다. 법성포에서는 일본상인들이 배를 몰고 들어와 일본에서 가져온 각종 잡화와 석유를 비싸게 팔고 한편으로는 쌀을 헐값에 사서 실어가기에 바빴다. 법성포의 모든 객주나 여각은 일본인들이 사고 파는 물화를 중개 알선해주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농민군에겐 눈엣가시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객주나 여각을 습격한 것이다.

한편 초토사 홍계훈은 경군인 장위영병 8백여명을 이끌고 4월 6일 군산에 도착하여, 임피에서 하루를 보내고 4월 7일 전주성에 들어갔으나 농민군의 위세에 지레 겁을 먹은 경군의 반 수가 도망가버린 상태였다. 홍계훈은 농민군의 위세에 놀려 농민군과의 접전을 피한 채 성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가 무장·영광이 거둬 농민군에게 함락되자 다급해진 홍계훈이 정부에 증원군을 요청하니 장위영 병정 3백명과 강화병 5백명의 원병을 총제영증군 황헌수 인솔하에 4월 19일 현익호에 실어 인천항을 출발하여 법성포로 급파하였다. 그래서 홍계훈은 육로로 4월 21일 영광에 왔고 증원군은 4월 23일 법성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홍계훈이 군관 蔣鎮宇, 運糧監官 金泳泰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또 軍官 金洛龜, 李奎文을 보내어 영접하게 하였다.⁴⁾ 그러나 이미 그때는 농민군들이 함평에 무혈입성한 지 5일이나 지난 뒤였다.

농민군의 2차 봉기시에 영광에서는 오하영(吳河泳)·오시영(吳時泳)이 8천군을 거느리고 일어났다고 오지영(吳知泳)은 『동학사』에서 말하고 있다.

농민군의 패전 이후 영광의 농민군 중 관군의 손에 잡혀 죽은 지도자급으로는 송문수(宋文洙)·오탈숙(吳泰淑)·최준숙(崔俊淑)·양경수(梁京洙)·이현숙(李玄淑)등이 있다. 그 구체적 처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94. 12. 3 이현숙에 의해 송문수 포살 뒤 착수하여 착납.

진사 金應善에 의해 양경수 捉得砲殺⁵⁾

1894. 12. 5 오탈숙 효수, 최준숙 등 9명 체포당시 포살, 박인지 등 10명

장위대관에 압송, 이현숙 효수⁶⁾

한가지 주목할 점은 2차 기포시 오하영·오시영이 영광 농민군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원래 고창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급인 송문수와 양경수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영광에는 동학도들은 많았으나 뚜렷하게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고창에서 파견하여 지휘 책임을 맡겼던 것을 알 수 있다.⁷⁾

4) 「양호초토등록」 『동학란기록』 상, 171쪽.

5)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21쪽.

6) 「전라도소창 소획동도성책」 『동학란기록』 하, 708쪽.

7) 고창문화원장 이기화氏 증언. (1994. 4. 11)

2. 함 평

영광을 점령한 농민군은 6,7천명을 이끌고 4월 16일 함평으로 향했다. 함평 현감 권풍식(權豊植)의 보고에 의하면, “16일 신시쯤 동도 6,7천명이 영광으로부터 기를 앞세우고 창을 들고 칼을 휘두르며 충을 쏘면서 진격해 오는데 기마병이 100여명이 있고 그 중 갑옷을 입고 전립을 쓴 자도 있다”고 했다.

함평 동헌에는 校吏·奴令·守城軍 등 150명이 관문을 지켰으나 농민군이 들어오자 모두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농민군 진격소식을 접한 함평 士民 1백여명은 동헌에 와서 모여 있었다. 이에 수십명의 농민군이 동헌 마루에 올라 “우리는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읍폐민막을 교정하여 보국안민을 이룩하기 위해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 본현에 이르렀다. 지금 사민들이 동헌을 지키는 것을 보니 현감의 치적이 가히 알만하다”고 하며, 농민군을 환영하지 않은 공형들만 곤장 5대를 때려 쫓아버렸다.⁸⁾ 이로써 아무런 접전을 벌이지 않고 함평은 점령되었다.

이렇게 쉽게 무혈입성한 것에 대해 나중에 권풍식 현감은 동학도를 비호했다는 죄로 서울로 압송되어 1895년 3월 법무아문 권설 재판소에서 곤장 1백대에 처하는 형을 받았다. 한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는 “함평 현감은 처음부터 匪徒에 가담하고 인민들도 모두 동학당이였다”고 쓰여 있다.⁹⁾

18일에는 농민군이 위세를 과시하며 함평거리를 가로지른 행렬은 장관이었다. 황현은『오하기문』에 이렇게 썼다.

평민 한 사람이 십사, 오세된 어린아이를 업고 대열의 맨 앞에 섰는데 그 아이는 남색 홀기를 쥐고 군대를 지휘하였다. 그 뒤에는 농민군이 따라왔다. 먼저 피리를 부는 자가 따르고, 다음으로 仁자와 義자를 쓴 깃발 한 쌍, 다음에 禮자와 智자를 쓴 깃발 한 쌍, 다음에 백기 두 개가 따랐는데, 하나는 普濟, 다른 하나는 安民昌德이라고 썼다. 그 다음에는 황색 깃발이 따랐는데 普濟衆生이라 썼고 나머지 기들은 각각 읍명(邑名)을 표시했다. 그 다음에는 갑주를 쓰고 말을 타고 칼춤을 추는 자가 하나 따르고 다음에는 칼을 쥐고 걸어가는 자 4,5쌍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붉은 단령을 입고 나팔을 부는 두 사람, 피리를 부는 두 사람이 따랐다. 또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절풍모를 쓰고 우산을 들고 도복을 입고 나귀를 타고 따랐는데, 이 사람 주위에는 여섯 사람이 좁은 옷을 입고 같은 모습을 하고 따랐다. 두 줄로 늘어선 만여명의 총수(銃手)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맸는데 수건은 다섯 가지로 표시했다. 총수 뒤에는 죽창을 든 사람이 따랐

8) 『양호초토등록』 『동학란기록』 상, 170쪽.

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54쪽.

는데 그 보무(步武)가 꺾어지고 돌아서는 것이 혹 갈 지(之)자, 혹은 입 구(口)자를 만들어 진세를 배열하였다. 이들은 모두 맨 앞의 아이의 남색기가 가리키는 대로 하였다.¹⁰⁾

황현은 농민군의 이러한 모습을 “대개 도적(농민군)이 키가 작고 영리한 아이를 골라 진중에 두고 날마다 무슨 진을 만든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짐짓 신동이라 부르며 보고 듣는 것을 현혹시켰다. 이는 전단(田單)이 神師를 받드는 알팍한 지혜를 따온 것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신인이라 말했다”고 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처럼 적고 있다.

오지영은 『동학사』에, “이 때 전설에 의하면 전대장(전봉준)의 부하에는 7세의 신동과 14세의 신동이 있어 전대장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떠들었다”고 적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전봉준은 호남 각 지방에서 모인 농민군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홍계훈의 경군이 영광으로 향하고 있을 무렵 전봉준은 이미 홍계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작전을 펼쳤다. 먼저 18일 나주공형에게 통문을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였다. 다음 날 19일에는 초토사에게 글을 띄워 홍계훈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여기서 지적된 수령들의 탐학상황을 보면 1) 군전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 2) 환전의 폐단이 심해지는 것, 3) 세미를 명목없이 더 받는 것, 4) 각종 부역을 날로 더 많이 거두는 것, 5) 족장의 폐단이 심한 것, 6) 전운영의 가렴, 7) 군전관이 결수를 가지고 농간을 부려 세금을 받는 것, 8) 각 관아의 이서배들이 가혹하게 토색질하는 것 등이다. 이 때문에 십중팔구가 제 집을 잃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거리를 떠돌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¹¹⁾

경군이 영광에 도착할 무렵 전봉준은 경군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농민군을 나주와 장성으로 나누어 진격시켰다.

2차 봉기시 함평에서 이00라는 사람이 1천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일어났다고 오지영의 『동학사』는 기록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접주와는 달리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함평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 관변측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이익성과 이태형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으나 1천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기포했던 만큼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이씨성을 가진 접주는 몇명 있으나 「순무선봉진동록」에는 포살당한 이화진(李化辰)을 특별히 ‘東學魁首’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00는 이화진일 개연성이 크다.¹²⁾

11월 중순경 함평, 무안일대의 농민군은 나주성 공략을 위해 고막원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참패하였다. 고막원 전투로 인해 농민군측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일본군과 관군의 토벌정책으로 많은 농민군이 희생당하였

10) 황현, 『오하기문』 1筆.

11) 황현, 같은 책.

12) 배향섭, 「농민군의 최초 점령지 영광·함평·장성·나주」 『예향』, 1993년 3월호.

41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다. 기록에 남아 있는 처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94, 12, 5 巨魁 이화진(李化辰), 接主 김경오(金京五)·이춘익(李春益)·노덕휘(魯德輝)·이자면(李滋冕)·이곤진(李坤辰)·김성필(金成必)·김인오(金仁午)·김성서(金成西)·착득 포살, 이화진(李化辰)포획시 조병묵(曹丙默)·서우순(徐佑順)·김문조(金文祚)·김응모(金應模)·김봉규(金俸圭)·박준상(朴俊尙) 등 6명을 포획하여 귀화조치

12, 6 접주 김치오(金治五)·정곤서(鄭坤西)·김경선(金京先)·윤경옥(尹景郁)·정원오(鄭元五) 등 5명 포살

12, 7 접주 이두연(李斗連)·김학필(金學必)·김관섭(金觀燮)·김창규(金昌奎)·공명오(孔明五) 등 5명 포살

12, 8 접주 이재복(李在卜), 김원숙(金元叔) 등 2명 포살, 이은중(李殷仲)이 수성군에 잡혀 나주로 압송

12, 9 거괴 윤정보(尹正甫)·장경삼(張京三), 대접주 박춘서(朴春西)·정평오(鄭平五)·김시환(金時煥)·윤찬진(尹贊辰)·윤경문(尹京文)·박경중(朴京仲) 포살¹³⁾

1895, 1, 19 서우순(徐佑順) 등 10명 경군이 착득하여 우진영으로 압송, 홍곤삼(洪坤三) 등 11명은 잡아 押上¹⁴⁾

함평에서 수성군 측에 서서 공을 세운 인물로서는 수성장 李載淳, 향리 李永瑄이 기록에 제시되어 있다.¹⁵⁾

3. 무 안

무안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러나 무안은 원래 '匪類之巢穴'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동학도들이 있었다. 그 중 배상옥(배규인)·배규찬 형제는 무안의 거괴로 남도 연해지역의 괴수라 불리우며 전봉준·김개남·손화중·최경선에 맞먹을 정도의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¹⁶⁾

특히 배규찬은 1893년 2월 11일 동학지부의 핵심인 영남·호서·호남출신 40여명의 교인들과 광화문 앞에서 3일간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공인을 얻기 위해 벌인 교조신원운동인 광화문전 복합 상소에 참여하였다.¹⁷⁾ 신원운동 단계에서 전남출신 동학간부의 이름이 나타난 최초였다. 이것으로 보아 농민전쟁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동학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후 백산에 포진한 뒤 격문을 사방에 발송했을 때

13) 「순무사정보첩」, 『동학란기록』 하, 69쪽.

14) 「전라도소착·소획동도성책」, 『동학란기록』 하, 711쪽.

15) 「갑오군공록」, 『동학란기록』 하, 722, 726쪽.

1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05쪽.

17) 필자미상, 「해월선생」 『대선생사적』, 78쪽.

그 깃발 아래 모여든 두령급으로 무안에서는 배규인(裴圭仁)·배규찬(裴圭贊)·송관호(宋寬浩)·박기운(朴琪雲)·정경택(鄭敬澤)·박연교(朴淵敎)·노영학(魯永學)·노윤하(魯允和)·박인화(朴仁和)·송두옥(宋斗玉)·김행노(金行魯)·이민홍(李敏弘)·박춘경(朴春京)·이동근(李東根)·김광문(金廣文) 등 15명이 나타나 있다.¹⁸⁾ 이는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이다.

또 당시의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 황현의 『오하기문』이다.

4월 20일경 전라병사 이문영은 전라도 각 군현에 포군을 징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구례 50명, 광양·낙안·곡성·홍양 각 100명, 순천 150명, 창평·동북에서 각 50명씩 포군으로 징발되었고 그 중 200명은 무안성을 지키도록 파견하고 나머지는 병영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농민군 1차 봉기시 무안지역의 동학도들은 주로 전라도 연해지역과 영광·함평·나주 등지에서 활약했으리라 본다. 그 근거로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동학도들은 세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영광에 주둔하고 한 부대는 무안군에 주둔하고 한 부대는 함평에 있으면서 서로 합세하여 성원하고 있다”고 하는 4월 21일 보고와, 같은 날 받은 전라감사의 전보내에, “본현의 三內面에 있는 동학도 7,80명은 절반은 말을 타고 절반은 보행을 하면서 몸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 각기 긴 창과 큰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은 18일 하룻밤을 머무른 뒤에 나주로 갔습니다”라는 무안의 보고를 들 수 있다.¹⁹⁾

전주화약 이후 무안지역에도 집강소가 설치되었으며 아마도 이 때 배상옥이 집강으로 활약했을 것이다. 그런데 집강소시기의 『승정원일기』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무안현감 이중익(李重益)이 동학도의 소요로부터 성을 굳게 지켜 그 경내가 평안하였기 때문에 연임하도록 하였다²⁰⁾

이는 무안이 동학도의 수중에 있지 않았다고보다는 무안현감이 배상옥의 세력에 눌러 이렇다할 저항을 하지 않아 경내가 평안하였다는 말일 것이다.

6월경에 배상옥이 이끄는 농민군 수천명은 목포만호진을 습격하고 군기를 탈취하여 대월리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2차 기포시 무안에서는 배규인(裴相玉)이 2천명의 동학군을 거느리고 일어났다.²¹⁾ 11월 17일 배규인은 무안, 함평지역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막원에 출정하였으나 나주의 수성군에 패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12월 8일 무안 대월촌

18)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48쪽.

1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4, 25쪽.

20) 『승정원일기』, 고종 31年 8月 14日.

21)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48쪽.

43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에 든취한 농민군은 경군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해산하기 시작했다. 목포 만호진의 진속(鎭屬) 30여명은 그 정보를 듣고 대월리로 가서 6월에 빼앗겼던 무기들을 일일이 환수하였다.²²⁾

패전이후 농민군의 구체적인 포살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94. 12. 8 거괴 배정규(裴正圭)·박순서(朴順西) 포살²³⁾

12. 11 남하하는 좌선봉 이규태의 부대에 의해 무안접주 70명이 잡히고 그중 30명이 처형되고 40명은 옥에 갇혔다. 처형된 30명 중 渠魁 배규찬은 효수되고 次魁 오덕민(吳德敏)·조광오(趙光五)·김문일(金文日)·박경지(朴京之)·박기운(朴沂雲)·양대숙(梁大叔)·김효문(金孝文)·서여칠(徐汝七)·박기년(朴祺年) 포살.²⁴⁾

12. 15 옥에 갇혔던 40명중 박영삼(朴永三)만 放送²⁵⁾

12. 24 무안 대접주 배상옥(裴圭仁) 해남 청계에서 잡혀 포살²⁶⁾

12. 28 박정환(朴正煥)·배상옥의 마부인 김종곤(金鐘坤) 포살, 배상옥 隨從 윤석호(尹石浩)·윤문여(尹文汝)는 청계民이 착납하여 포살²⁷⁾

4. 주 요 인 물

영광 함평 무안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농민군 인물로는 송문수, 이화진, 배상옥 등을 들 수 있다.

영광 송문수의 출생지는 원래 고창의 당촌마을이었으나 영광에서 주로 활약하였다.²⁸⁾ 그는 영광 홍농면의 접주로 객사에서 동학군을 훈련시키면서 법성포에 수거해 놓은 세미를 군량미로 사용하였다.²⁹⁾

또한 영광에는 이현숙(李玄淑)이 있었는데 그는 법성포 진리(鎭吏)로서 갑오년 봄에 동학에 들어가 동학당 행세를 하다가 송문수를 착납하여 선봉진 별군관으로 차정되었다. 이현숙의 家童 金年淳의 초사를 보면 이현숙은 송문수의 지시로 서남해 연안의 여러 지역 (도초도·하의도·안창도·기좌진·진도)을 돌아다니며 약탈하였는데 경군이 고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하던 중 사창시에 留陣하던 송문수를 홀연 영광 홍농에서 만났다. 이현숙은 송문수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고 따진 뒤 송문수를 포살하고 그 시신을 영광읍 射亭(활 쏘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백정으로 하여금 참수하게

22)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上, 618쪽.

23) 「전라도소착·소획동도성책」 『동학란기록』 하, 708쪽.

24)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04쪽.

25) 같은 책, 607쪽.

26) 같은 책, 640쪽.

27) 「각진장졸성책」 『동학란기록』 하, 700, 701쪽

28) 고창문화원장 이기화氏증언. (1994. 4. 11)

29) 배항섭, 「농민군의 최초 점령지 영광·함평·장성·나주」 『예향』, 1993년 3월호.

하여 관에 착납하였다.³⁰⁾ 그러나 일본군에서는 이현숙도 동학도로 간주하고 12월 5일 효수하였다.

함평의 지도급 인물은 李化辰이다. 이화진은 철종 신유년 생으로 손불면 죽장리 장동에 살면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이름은 景鎮이고 자가 化辰이었다. 이화진은 함평에 본을 두고 나주 범성시 참여하였고 무안의 대접주 배상옥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2월 3일 무안에 갔다가 함평으로 돌아 오는 길에 수성군에게 잡혀 5일 포살되었다. 이화진으로 인해 3父子 즉 父 載明, 맏형 彦鎮이 함께 피살되었다고 한다.³¹⁾

최근 발견된 함평 갈등의 동학도 명단에서 그 지역의 지휘체계를 알 수 있다.³²⁾

鄭安冕 執綱	接主	李敦燮	執綱
鄭海郁 執綱	接司	李敦倡	執綱
全琪燮 執綱	都執	李穆憲	執綱
李儒英	教授	宋談臣	大正
李儒洙	教授	韓白龍	大正

이중 집장이면서 접주인 鄭安冕은 字가 敬進, 호는 윤림으로 철종 庚申년에 태어나 1921.2.2 죽었다. 그의 아버지는 효성이 지극하고 후덕있는 행동을 많이해서 아직까지도 그 명성이 있을 정도라 한다. 정안면 또한 학문에 조예가 상당히 깊었으며 그 당시 집터가 상당히 넓고 농사도 많이 지은 것으로 보아 부호층 평민이었던 것으로 볼 수있다. 그도 토벌기간 도안에 숨어 다니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집 뒤의 대밭에 굴을 파고 숨어 있었다 한다.³³⁾

무안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배상옥이다. 그는 무안 대월리 출신(現 목포시 대양동)으로 본관은 달성인데 일찍 동학의 교리를 받아 포교활동에 힘썼다. 배상옥은 무안뿐 아니라 함평, 해남 등지의 연해지방에서 가장 큰 동학 접주였다. 그의 세력은 손화중과 더불어 전봉준, 김개남보다 몇배나 더 컸다고 문헌에 나타나 있을 정도로 거대했다.³⁴⁾

그는 대월리에 살면서 그 마을에 연병장을 두어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2차 봉기시 동학군을 이끌고 나주 고막원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으나 그들의 신무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고막전투에서 많은 부하들을

30) 「선유방문 동도상서소지동서」 『동학란기록』 하, 385쪽.

31) 이경보氏(이화진이 증중조부: 손불면 죽장 2구 거주)증언. (1994. 4. 26)

32) 짚풀생활사박물관, 『동학농민전쟁 민속전』, 39쪽.

33) 정무석氏(함평 양지부락 거주) 증언. 정씨는 6.25때 그 굴로 인해 반란군을 숨겼다는 오인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고 이야기 했다.

34)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 『동학란기록』 하, 503쪽.

45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있고 그는 해남으로 피신하였다. 피신중 해남사람 윤규용에게 잡혀 일본대위 松木正保에게 포살되었다. 이때 무안지방에서 그를 기리는 민요가 나왔다.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군대 어디두고
쑥국대 밑에 잡드느냐 (쑥국대:사형장이란 뜻)³⁵⁾

무안군 해제 석용리에서는 최장현(崔璋鉉:자가 文彬이고 號는 민제)이 그의 아우인 善鉉, 奇鉉과 함께 배상옥에게 동학의 도를 전수받고 활약하였다. 그들 모두 학문에 깊었다고 한다. 그들은 임치진에 본부를 두고 해제지역을 영향권 하에 두고 지도 등지에서 사람들을 소집하여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2차 봉기 후 나주성 공략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여 3명 모두 함평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나주성으로 이송되어 나주성 서쪽에서 포살되었다. 15세 된 조카가 나주까지 가서 시신을 찾아 왔다 한다. 그후 후손들은 학문에 능통하면 화를 당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가르치지 않아 글을 배우지 못하였다고 한다.³⁶⁾

35) 무안군,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1년, 163쪽.

36) 최석봉氏(72세 최장현의 손자)증언. (1994.4.2) 3명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석용리 마을 앞에는 후손들이 세운 ‘三義士碑’가 있다.

5. 구례·곡성·광양·순천· 좌수영·승주의 동학농민혁명

장 신 영(사학 3)

1. 광 양

광양은 경상도 하동과 접경 지역이었고 영호대도소의 전진기지이다.¹⁾ 이때 하동은 부사와 토호들이 민병을 조직해 농민들과 맞서고 있었다. 그래서 1894년 6, 7 월경 광양 농민군과 하동 민병 사이에는 섬진강을 경계로 수차에 걸친 충돌이 있었다.

7월 26일경 광양 농민군 6백여 명은 그동안 부정한 짓을 자행해오던 蟾津鎭 兵吏를 곤장을 쳐서 징계한 다음 섬진강 나루터를 건너 하동을 공격하였다.

당시 농민군으로 활동하던 광양 출신의 대표적 인물은 봉강출신의 박홍서, 인덕출신의 성석하, 박소재, 박치서, 사곡출신의 한군협, 한진유, 옥룡출신의 서운약 형제와 이종례, 하종범, 서통보, 월포출신의 김명숙, 섬거역출신의 김갑이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접주로서 광양 농민군의 지도급 인물이었다. 이들은 하동 상인들과 합세하여 하동 읍내를 장악한 뒤 농민군 본부인 都所를 설치하였으나 하동 민병의 반격으로 도소를 폐하고 후퇴하였다.²⁾

그후 8월에는 큰 충돌은 없었다. 그러다 8월 하순에 김개남이 주도하는 남원 농민군 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전라도 동부지역 농민군이 다시 무력봉기하자 영호대도소 역시 본격적인 무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광양 농민군은 영호대도소 주력부대에 편입되어 전투에 가담했다. 순천 및 광양 등지의 농민군 수천 명이 9월 1일 섬진강을 건너 하동으로 진출하였다. 9월 2일 하동을 점령한 농민군은 읍내에 都所를 설치하고 5-6일 머문 후 일부는 호남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는 대접주 김인배와 류화덕을 따라 진주로 갔다.

9월 15일 하동 농민 수천 명이 곤양 多率寺에서 집회를 가지고, 광양 순천 농민군이 곤양 읍성에 들어왔다가 조총 20자루를 빼앗고 17일 진주로 향하여 진주 접경 完沙驛에서 합류하였다. 그러나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 부대는 지석영이 이끄는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다시 하동 방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순천, 광양지역의 농민봉기에 대해서는 김양식, 「동학농민전쟁 1백주년, 광주·전남 그현장을 가다 ⑤」, 『예향』 1993년 7월호에 개략적인 소개가 있다.

2) 黃玪, 『梧下記聞』 2筆.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동학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것은 10월 20일이었다. 부산에서 진주로 침투해 온 일본군의 한 枝隊가 하동의 섬진강변에 있는 산위에 진을 치고 광양 주둔의 동학 농민군과 대치한 것이다. 10월 20일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거리가 멀어 피해는 서로 없었다. 그러자 10월 21일 새벽에 일본군은 강을 건너 돌격하였다. 이때의 戰況을 일본군은 부산에 근거를 둔 일본 병참사령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진주방면에 파견된 스즈끼대위는 20일 및 22일 이틀동안 하동 부근에서 동학군과 싸워 이를 격퇴하였다. 我方은 軍夫 1명의 사상자만 있고 적의 사상자는 30명이고 포로가 7명이라고 하였다. 10월22일 농민군은 대접전 끝에 크게 패하고 섬진강을 건너 광양으로 퇴각했다. 광양으로 후퇴한 농민군은 서서히 포위되는 상황이었다. 서쪽으로는 좌수영에 막히고 동쪽에는 관군과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왔다.

그들은 농민군을 완전히 섬멸하려 하였으므로 농민군 피해는 막심하였다. 동학군으로서 관군, 일군, 수성군에게 당한 참살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그들 중 가장 참혹한 것은 호남이며 충청도가 그 다음이며 그밖의 여러 道에서도 살해가 많았다. 장성, 영광, 함평, 나주, 장흥, 보성, 순천등의 피해가 가장 심하며..... 광양 蟾津江에서 강물에 빠져 죽은 자가 3,4천에 이르렀다. 3)

위의 기록에서처럼 3,4천의 숫자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광양에서의 전쟁 참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점점 상황은 광양에 집결해 있는 농민군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농민군에서도 이탈하는 자가 속출하였으며 급기야는 12월 7일 순천의 경우처럼 한때 농민군편이었던 광양 관리와 주민들이 농민군을 배신하였다. 전에 군수를 역임하였던 김석우가 주동이 되어 광양 읍내에 주둔해 있던 농민군 본진을 습격하여 12월 7일 영호 대접주인 금구인 김인배를 효수하여 객사 중간에 걸어 놓았고 봉강 접주 朴興西와 도당 朱炳西, 朴已文, 金尙得을 砲殺하였으며, 성명 不知者도 17명이나 되었다. 4)

12월 8일에는 영호 수접주 순천의 류하덕을 효수하여 객사 중간에 목을 걸어 놓았고 인덕 접주 성석하, 박소재, 紗谷 접주 한군협, 玉龍 접주 서운악 형제, 이중례, 하종범, 서통보, 金且金 등을 포살하였다. 12월 9일에는 월포 접주 김명숙, 仁德의 朴治西, 朴治右, 徐達水, 성명 不知者 순천 5명, 진주 1명을 포살하였고, 12월 10일에는 순천 西面 접주 金哥, 紗谷의 韓辰有, 牛藏의 李具無, 玉龍 朴啓連, 紗谷의 河元俊이 포살되었다. 그의 성명 不知者

3) 吳知泳, 『東學史』, 263-264쪽.

4) 『雜冊綴』(奎 21970).

『東學亂記錄』상, 656쪽.

20여명도 총살당하였다.

한편 좌수영군 1백여 명을 中軍 申旻 中哨營將 曠경환이 통솔하여 南海島를 거쳐 9일 하동부 橋場터에 이르러 부산에서 온 鈴木대위(스즈키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1개중대와 합세하였다. 이 부대는 광양, 순천 농민군을 토벌하는 데 중심적인 구실을 하였고 12월 10일 이른 아침에 河東을 출발하여 광양현의 多鵬, 月浦에서 동학군을 몰아내고 광양 앞바다에 와 下浦로 분견대를 파견하여 농민군 경찰과 수색 임무를 담당하였다.⁵⁾ 일본군은 조직적으로 광양 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다. 또한 11일 하동에서 일군과 민병이 건너와 옥룡에서 농민군 31명을 체포해 좌수영군에 넘겨주었고 닥치는 대로 농민군을 살륙하고 민가에도 무차별 방화하여 소각된 집이 1천여 호에 이를 정도였다. 더욱이 농민군(7,80명)이 백운산 용성굴로 숨자 하동 민병과 일군은 굴에 불을 질러 농민군을 소탕하였다고 한다.⁶⁾

다압면과 월포면에서 농민군을 크게 격퇴한 일본군과 좌수영군은 오후 4시경 섬거역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섬거역은 농민전쟁 당시 대장인 김갑이가 살던 곳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곳이었다. 이곳에서의 전투가 광양지역에서는 마지막 전투였다. 여기서 농민군은 크게 패하여 도망하거나, 체포되어 총살당하였었다.⁷⁾

이날 蟾居驛에서 죽음을 당한 농민군 명단은 다음과 같다. 都接主 김갑이를 비롯하여 散賊, 金石俊, 李玄斗, 安正根, 金用守, 洪正其 廉東必, 金用伊, 金性伊, 羅時玆, 尹允元, 姜寬玉, 鄭得祖, 朴致西, 崔京千, 朴永祖, 柳連金, 鄭德元, 崔學列, 朴萬伊, 金宗辰, 姜性化, 鄭以成, 沈以俊, 趙伯元, 金小老末 이상 28명을 砲殺하였고 都執綱 丁洪燮을 참수하였다.⁸⁾

섬거역에 있던 농민군을 철저히 진압한 일본과 좌수영군은 12월 11일 광양읍내에 들어와 잔여 농민군을 수색하여 仁德의 金宗之, 朴日祚, 金白工, 秋成官, 金斗化, 姜在允, 徐性化, 鄭在午, 趙君先, 劉又石, 金順用, 沙谷의 金在允, 姜在晚, 高百俊, 高汝眞, 牛歲의 林水元, 姜宗午, 李萬水, 崔獨獨, 金致西, 七星의 南相集, 金樂玄, 金必成, 金元日, 玉龍의 鄭京順, 成通保, 李官俞, 金奉己, 順天의 金在右, 金洪斗, 李石其, 金允實, 晉州의 金鶴水, 仁德의 吳分玆, 吳石坤, 吳昌淳, 劉水卜, 順天 西面의 黃在淑, 光陽 順天 首接主 金鶴植, 七星의 朴東實, 鄭文明, 順天 朴汗辰, 求禮 金已哲, 慶尙昆陽 張鶴用, 林在石, 玉龍 云河의 朴宗律을 砲殺하였다. 이들 명단을 보면 진주 하동방면의 농민군이 광양지역으로 쫓기어 전사하였거나 혹은 체포 처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우선봉진 이두황군이 광양에 도착하여 살륙을 중지시켰다.⁹⁾

5) 『駐韓日本公使官記錄』 6권, 6쪽.

6) 옥룡면 접주 서운약 후손인 옥룡면 상평마을 서순식씨 증언(1994.4.5).

7) 섬거리의 김영수 노인회장에 의하면 현 진상국민학교 뒤에서 농민군들이 대거 처형되었다고 한다(1994.4.5. 증언).

8) 『雜冊綴』 (奎 21970).

2. 순 천

순천은 박낙양이 1894년 3월 22일 백산봉기에 농민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후 5월 7일 전주화약이 체결되어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해 각자 지역활동에 들어가자 순천 농민군은 금구 출신이 金仁培의 지도 아래 순창을 경유하여 순천으로 돌아왔다. 이들 중 순창에서 순천으로 돌아온 자는 100명 이하이고 이들은 각자 집있는 자는 귀화하고 집없는 자는 도로에서 방황하며追捕에 겁을 먹고 흩어지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순천지역 농민군은 1894년 6월 순천부 관아를 점령하여 영호대도소를 설치하였다. 영호대도소는 일종의 농민군 사령부로서 금구 접주 김인배와 순천, 광양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설치하였고 전라도 동남부지역 농민군의 활동거점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섬진강을 건너 하동, 진주방면으로 진출하고 그곳 농민군과 합세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하고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일본군을 축출하려는 데 있었다.

영호대도소의 조직은 매우 체계적이었다. 大接主는 김인배이고 부대장격인 首接主는 순천 출신의 류화덕, 都執綱은 승주 쌍암출신의 鄭虞炯이었고, 각 면에는 각면에는 해당 접주와 집강이 임명되어 폐정개혁과 치안을 담당하였다.⁹⁾ 이같은 조직구성을 갖춘 영호대도소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호들로부터 군수전과 군수곡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순천의 통치권은 사실상 영호대도소의 수중에 있었다. 8월에 순천의 신임부사로 이수홍이 부임했을 때 이미 김인배 등이 읍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영호대도소는 7, 8월간은 이렇다할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 영호대도소는 7월 6일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의 대타협 후 도내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라는 통문을 존중하며 소극적이거나 순천지역의 치안을 바로잡는 데 협조하였다. 그러나 8월에 들어와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로 점차 조선의 내정에까지 간섭해 들어와 농민군 토벌을 위해 군대 파견 준비를 관군과 더불어 진행시켰다.

8월 25일경 남원에서 김개남 주도로 2차 농민군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영남으로의 진출을 결정한 듯하다. 평소 김개남과 투쟁노선을 같이 하던 김인배와 영호대도소도 8월말부터 그동안 자제해 오던 방침을 바꿔 본격적인 무력진출을 준비하였다. 9월 1일 김인배와 류화덕은 직접 농민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하동, 진주방면으로 출전하였다.

영호대도소 주력부대가 광양을 거쳐 하동방면으로 출전한 상태에서 나머지 농민군은 평소 농민군에 비우호적이었고 만에 하나 농민군을 뒤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낙안을 먼저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

9월 15일 양하일이 이끄는 농민군 연합부대 1천여 명은 순천에서 출발하여

9) 『오하기문』 2筆.

10) 「二六新報」 1895년 1월 25일자.

선암사에 집결하였다.¹¹⁾ 이들은 오금재를 넘어 낙안읍성을 공략하며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9월 15일 술시쯤 동학군은 각자 총, 창을 가지고 본군 吏校廳에 난입, 포성이 진동하였고 밤새도록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9월 19일 신시쯤 그들은 군기고를 방화한 다음 서문을 열고 대부분 선암사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각 마을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순천점, 고산점, 금구점, 남원점, 태인점이라 하였다.¹²⁾ 이로 미루어 김인배의 영호대도소에는 고산, 금구, 태인, 남원 지역의 농민군이 지원차 내려와 합세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영호대도소의 후방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수에 있는 좌수영 군대는 농민군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다. 1894년 7월 3일 김철규 좌수사는 임명을 받아 부임하자마자 군교들과 농민들 방어대책을 숙의하였다. 이때 각지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해 고을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김철규는 부임하자마자 농민군 토벌을 위해 전라좌수영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토벌준비를 갖추었다. 이같은 좌수영의 움직임은 인근지역의 농민뿐 아니라 주력부대가 진주방면으로 출전한 순천 영호대도소에 매우 위협적이었고 쌍방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고조되어 영호대도소를 중심으로 한 농민군은 좌수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9월(날짜미상) 순천 농민군과 쌍봉 선소마을의 윤경삼이 이끄는 현지 농민군이 합세하여 좌수영을 습격하였다. 농민군은 남문¹³⁾에 이르러 대포를 쏘았고 좌수사 김철규는 진남관에서 지휘하여 농민군 34명을 잡아 목을 벤 다음 바다에 던졌다.¹⁴⁾

그후 농민군이 전라 좌수영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은 11월 10일이었다. 농민군 수만여 명은 덕양역에 이르러 좌수영의 정찰병을 물리치고 종고산에 나아가 웅거한 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성중 수비가 풀리지 않아 3일 머문 후 덕양역으로 후퇴하였다.¹⁵⁾

재차 공격은 11월 20일에 있었다. 순천의 농민군은 다시 덕양역을 거쳐 종고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좌수영 군대는 여수에서 급히 달려와 지켜 있어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이에 농민군은 힘을 얻어 흩어지는 관군을 좌수영까지 추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수영 군대는 거의 궤멸되었고 농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좌수영을 함락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좌수영을 포위한 농민군과 성내에 고립된 관군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농민군은 4천여 명 중 정예병을 뽑아 서문밖에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종고산에 올라가 3백여 명 정도 밖에 안되는 좌수영군을 협공하였다.¹⁶⁾ 상황은 점점 좌수영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좌수사 김철규는 11월 25일 여수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

11) 『오하기문』 2筆

13) 「낙안 군수 장교준이 전라병마사 서병목에게 보낸 보고문」 『고문서』 2.

13) 현재 여수시 중앙동 로터리.

14) 『여수 여천 향토지』, 1982.

15) 『오하기문』 3筆.

16) 『오하기문』 3筆.

쓰쿠바군함에 좌수영을 구원하고 동학도를 섬멸하여 주길 바란다는 비밀 서찰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본 쓰쿠바 함대는 11월 26일 전투부대를 좌수영으로 파견하여 김철규를 도와 농민군을 추격, 덕양리에서 농민군을 격퇴하였다.¹⁷⁾ 이리하여 여수, 순천의 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11월 말 이후에는 전세가 역전되어 농민군은 기세가 꺾여 수세적인 위치로 변하여 점점 쫓기는 상황이 되었다. 좌수사 김철규는 인근 지역에 숨어 있던 농민군을 일일이 수색하여 체포하고 효수하여 좌수영 남문에 걸어 놓아 주민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갖게 하였다.

한편, 좌수영 공격에 패하여 순천으로 후퇴한 영호대도소 농민군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상황이 정부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자 농민군을 배반하는 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고 12월 6일 새벽 4시 한때 농민군편에 가담했던 순천성 내의 吏 成備熙, 李榮柱, 校 李宗甲, 金彦燦, 千士成, 尹成涉 등이 주동이 되어 농민군 대장 鄭虞炯을 비롯하여 약 53명을 죽였다.¹⁸⁾

12월 8일 전라 좌수영 領官 이주회는 500여명을 인솔하여 순천을 향해 출발하여 9일 오전 砂項里 山上에서 동학도와 싸우며 41명이나 베어 首級하였다. 11일 이주회는 좌수영병 500여 명을 지휘하여 순천부 영장 李豐熙와 함께 일본군을 맞이하고 12일 일군과 좌수영병은 농민군을 수색하여 11일 李友會를 효수하고¹⁹⁾ 12일은 省察 권병택을 砲殺하고 東村面 接主 정재철, 省察 정지규, 황학련, 위광석을 가두고 西面 接主 김영구는 효수하고 김순옥, 馬夫 이복근을 가두고 別良面 接主 김영우와 月燈面 接主 남정일도 효수하였다. 松光面 省察 김배옥과 邑北內의 최종복은 감옥에 가두고 光州 省察 박현동, 慶尙都 陽山 接主 황두화, 雙巖面 接主 이우희 등 名不知者 94명은 他殺하는 등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 좌수영병 500여명은 순천을 출발하여 본영으로 돌아갔다.

12월 14일 오전 8시 領官 이주회, 防踏鎭簽使 김경운 및 좌수영 中哨領將 광경환은 官軍 50여 명을 인솔하고 일본군과 함께 낙안군을 향하였다.²⁰⁾ 15일 이른 아침 관군과 일본은 보성으로 향하였다. 1894년 12월 29일 낙안군수 보고서에 의하면, 선봉진이 낙안을 지나간 후에는 동학도의 출몰이 잠잠해졌는데 낙안 東面 李守喜가 순천에서 넘어와 동학군을 지휘하다가 25일 남상면 雙田里 앞길에서는 체포되어 邑民 앞에서 효수당하였다 한다. 1895년 1월 7일의 낙안군수 보고서에 東學將領 김개남이 12월 17일 청주를 침공할 때 그 先陣隊員으로 참전한 接主 강사원, 都接主 安奎福, 李秀希가 낙안에 들어와 낙안 일대에 중형무진 활약한 바 있었으나 낙안面民과 수성군이 합동으로 추격하여 1894년 12월 22일 外西面 突伊峙에서 안규복을 체포하여 효수시키고 강사원도 체포하여 살해한 후로 낙안읍이 조용해졌다고 한다.²¹⁾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240쪽.

1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5쪽.

19)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雜冊綴』 (奎 21970).

2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14쪽.

1984년 11월 하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순천지역과 좌수영, 그리고 낙안의 농민 봉기는 비참한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된다.

3. 곡 성

곡성, 구례지역의 농민군 세력은 다른 곳에 비하여 약하였다. 1894년 3월 白山에서 농민연합군을 편성했을 때 곡성에서는 趙錫憂, 趙在英, 姜日洙, 金玄基 등이, 구례에서는 林春奉이 참가하였다. 또한 곡성, 구례는 옥과, 임실, 담양과 함께 집강소 실시 이후 남원을 근거로 삼아 활동하던 김개남장군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던 지역이었다.

곡성에서는 5월 10일 농민군을 방어할 목적으로 村丁을 모집하여 인민들이 원망하므로 홍계훈이 이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²²⁾

김개남은 전주성을 떠나 이곳 저곳을 돌리보고 남원으로 들어간 6월 25일 직전에 곡성에 들어 며칠을 머물렀다.

7월초 장성부 霧岩里 李士弘당이 밤에 읍내에 들어와 군고의 무기와 민가의 재산을 뺏기는 피해를 당했다. 이일을 당한 후 吏民이 힘을 모아 수성군을 결성하여 士人 金明局을 수성 頭領으로 申正悅을 戶長으로 삼아 점차 군대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점차 인근 읍의 농민군 세력이 크게 팽창하면서 곡성의 수성군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 해산하게 되었고 김명국 등은 民包라 지목되어 농민군의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12월 들어 京軍과 日軍이 곡성에 들어오면서 곡성은 다시 관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12월 20일 召募所로부터 김명국을 압상해 가나 곡성 유생들이 소장을 보내 그를 옹호하였다.²³⁾

또한 곡성에서 9월경 사소한 실수로 김개남 부대의 농민군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남원을 떠난 농민군이 곡성현에서 군수물자를 점검하고 화약 4.5석을 대청에 운반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한 사람이 무심코 담뱃대를 화약더미 속에 꽂았다가 화약이 폭발한 것이다. 이 일로 간부급 7-8명과 농민군 70-80명이 어이없이 폭사하였다.²⁴⁾ 김개남이 머물렀고 화약이 터졌을 관아터에는 지금 군청이 자리잡고 있다.

4. 구 례

김개남은 8월 25일 남원으로 들어와 남원성과 교룡산성을 무력의 거점으로 삼고 농민전쟁을 열면서 무력항쟁을 준비해 나갔다. 이쯤 그는 그의 영향 아

21) 『樂安郡守牒報事』, 『東學亂記錄』 상, 644쪽.

22) 『東學亂記錄』 상, 212쪽.

23) 『谷城郡守 報狀』, 『東學亂記錄』 상, 99-100쪽.

24) 『梧下記聞』 2筆.

래 있던 남원의 산동방과 구례에서 군수미로 1결당 7두씩을 거두어 들여 3백섬을 구례 화엄사에 쌓아두도록 하였다.

구례의 농민군 접주는 경주 丹城 사람으로 빈촌인 광의면 사적동에 우거하고 있던 임정연이다. 그는 본래 丹城의 巫人으로 사적동에 옮겨와 살았다 하므로 신분이 천민으로 추정된다.²⁵⁾ 그는 격문을 돌려 입교를 권하고 사적동 李起玉, 유산 마을의 梁君燮 등이 호응하였고 전군에 그 수가 수백에 달하였다.²⁶⁾

갑오 5월에 조정에서 관군을 보내 토벌하려 했으나 도처에서 패배하였고 그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동학군이 북상 진격을 결행했을 때 구례 동학군도 가담 합세하였다. 그러나 11월 9일에서 12일까지 제2차 공주접전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합세 공격으로 대패하였다.

한편 남원에 우거하고 있던 김개남은 10월 14일 남원을 출발하여 16일 전주에 도착하고 10월 23일 금산을 점령한 다음 11월 11일 회덕과 신탄진을 점령하고 11월 13일 청주를 공격하였다. 10월 24일 김개남이 북상한 뒤 남원 농민군은 남원, 운봉 농민군에게 점령하고 있던 성을 빼앗겼다. 10월 27일 경유복만, 남웅삼(담양출신)의 지휘로 농민군은 성을 되찾았다.²⁷⁾

11월 13일 남원 농민군은 운봉을 넘어 경상도로 나가려고 남원 산동방 부동 마을에 진을 쳤다. 이 무렵 구례 농민군도 남원 농민군과 합세하려고 광의면 연파리에 모였다. 그리고 산동면 위안리로 행군하여 다름재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다름재는 산동면 위안리 월계 마을에서 북쪽으로 남원군 운봉면 고기리로 통하는 고개이다. 운봉으로 가는 길이 이 다름재를 넘는 길이다.

13일 남원 농민군이 산동방 부동촌에 진을 치고, 운봉의 민보군은 관음재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다가 11월 14일 새벽부터 15일까지 싸움이 계속되었다. 운봉의 민보군 대장 박문달²⁸⁾의 공격으로 6개월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남원성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

이 운봉싸움에서 구례 농민군들은 남원 농민군들과 합세하지 못하고 되돌아 퇴각하였다. 남원 농민군이 운봉 관음재 싸움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아니면 운봉 민보군이 가로막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11월末에서 12월初 즈음 구례 농민군도 민보군과 관군의 토벌에 의해 지도자들이 잡히자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위영 보령관이 경군 8백여 명을 이끌고 12월 9일 구례에 들어와 하루 머물고 11일 接主 임정연과 接司 양주신을 장위영 진앞에서 포살하고 順天府 北倉院으로 떠났다.²⁹⁾ 임접주는 포

25) 『求禮續誌』(1924) : 박준성,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광주·전남 그 현장을 가다④」 『예향』 1993년 6월호, 123쪽.

26) 『求禮續誌』(1924).

27) 「박봉양 經歷書」 『東學亂記錄』 하, 512쪽.

28) 박문달은 朴鳳陽의 처음 이름이다 (『梅泉野錄』).

29) 『東學亂記錄』 상, 657쪽.

살당한 뒤 광의면 지천리 구리실에 묻혔다고 한다.

한편, 장위영군이 도착하기 이전인 12월초 구례는 의병이 결성되어 농민군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그때 의병 맹주가 이기(李沂; 1848-1909)였다. 뒤에 을사오적 암살단 활동에 주도적 구실을 했던 海鶴 李沂가 바로 그다. 이기는 전라도 김제 萬頃에서 태어났으나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구례에 살면서 황현과도 친하게 지냈다.

제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전주까지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맺은 뒤 집강소를 설치하고 있을 때 이기는 전봉준을 찾아가 함께 조정에 들어가 간악한 무리를 배어버리고 國憲을 일신하자고 제안하였다. 전봉준은 자못 호쾌하게 그의 말을 옳다 여기고 남원의 김개남을 만나라고 하자 즉시 남원에 갔으나 김개남은 그를 만나지 않고 오히려 해치려 하므로 구례로 도망쳐왔다.³⁰⁾

구례에 머물러 있던 그는 농민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농민군 지도자 최경선, 김개남, 전봉준이 체포된 12월초 농민군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전라도 각 읍의 유림에게 의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띄우고 농민군 탄압에 앞장선 의병 맹주로 활약하였다.

이때 동맹을 맺고 격문에 서명을 같이한 구례의 인사들은 유학 王師春,³¹⁾ 朴海友, 前都事 金弘植, 전현령 南宮杓, 진사 金龍善, 전감역 朴健陽, 유학 柳濟陽,³²⁾ 朴泰鉉, 좌군 金淇文, 후군 安昌燮, 전군 高昌憲, 의병 중군 高燾洙, 이방 安翼燮, 호장 金在炫, 조수 金斗景, 진사 高光文, 우군 尹滋格, 집사 金履浩, 金光壁, 서기 尹相浩, 金光斗, 勸東旭였다.³³⁾

이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12월 9일 구례에 일본군과 함께 들어온 양호 순무 좌순봉 이두황은 10일 구례읍성에 들어와 보니 유학 이기가 수백 민병을 이끌고 성을 지키고 있어 읍에는 빈집이 없고 백성들은 모두 편안히 지내고 있으니 다른 읍에 비해 성이 공고하고 안온하다는 사정을 보고하면서 이기는 먼 지방의 글 읽는 선비로서 향민들의 추대를 받으며 의병의 깃발을 들고 간사한 무리를 깨끗이 하여 성을 지키고 밖으로는 적을 방어하고 있다고 가상함을 칭찬하고 있다.

이기를 중심으로 한 구례 의병소는 이두황의 장위영군과 일군이 떠난 후에

30) 鄭寅普, 『海鶴李公墓誌』.

31) 王師春(1834-1909 호: 노송)은 세종말 지천마을에 들어온 왕씨의 후손으로서 그 고조부때부터 만석군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유학에 전념하였다. 황현의 스승인 王錫輔의 조카로서 한일합방후 서당골(지천마을)에 학교(壺陽學校)를 세워 초대 교장이 되어 교육에 전념하였다.

32) 柳濟陽은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의 주인으로서 해학 이기, 매천 황현 등과 빈번한 왕래가 있었다. 그의 일기문을 보면 동학군의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씩 언급하고 있다. 그는 1894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농민군을 피해 지리산 골짜기 文殊洞으로 들어가 초가집을 짓고 숨어 살았다(『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7쪽).

33) 『東學亂記錄』 하, 317-318쪽.

도 東徒로서 작경이 심한 7명을 잡아 교수형에 처하였고, 나머지 무리들을 위협하여 따르게 하여 더이상 분란이 없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한다.³⁴⁾

이렇게 하여 이기는 求禮 義旅將으로서 甲午 軍功錄에 오르게 되었다. 구례의 유학자와 관련해서는 梅泉 黃玆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왕석보의³⁵⁾ 제자이고 원래 전라도 광양현 문덕봉 아래 서석촌에서 태어났는데 32세 되던 1866년에 구례 간전면 만수동으로 이사해 왔다. 이곳에서 농민전쟁을 겪고 1902년 광의면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 생을 마치었고 현재 광의면 월곡 마을에는 황현의 사당인 梅泉祠가 있다.

그는 농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농민군을 탄압하는 데 직접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농민전쟁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농민전쟁의 원인 배경을 고찰하고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梧下記聞』과 이를 토대로 정리한 『梅泉野錄』, 농민전쟁 후 수습책을 제시한 『甲午平匪策』(不傳)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철저한 유학자로서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노략질 등의 용어으로써 농민봉기의 부당성과 농민군의 반역성을 강조하였다.

34) 『東學亂記錄』 하, 317쪽.

35) 王錫輔(1816-1868)는 자는 윤국이고 호는 川社이다. 왕사춘도 그 조카이고 그 아들들(師覺, 師天, 師瓚, 師龍) 또한 유학자들로써 활동이 활발하였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한 王在一은 王師覺의 손자이다.

6. 장흥·강진·보성· 홍양의 동학농민혁명

박 순 미(사학 3)

1. 장 흥 · 강 진

갑오년 장흥지방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이름을 떨친 이인환, 이방언 등이 동학에 입문한 것은 1891년이였다. 추측컨대 장흥지방에 동학이 전래되는 기연은, 1880년대에 이미 전북, 익산, 부안지방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해월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인환, 이방언 등이 해월의 은거지를 수소문하여 직접 찾아가 受道했거나 아니면 해월의 지도를 받은 전라도 출신의 동학접주로부터 수도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¹⁾ 장흥지방 동학교인들이 신원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는 1893년 3월 보은취회 단계부터이다. 천도교측 기록에는 장흥지방에서도 수십명의 동학교인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신원운동의 여러단계를 계기로 하여 장흥지방 동학교세는 향촌사회 유생들로부터 조직적인 배척을 받을 만큼 급격히 성장하고 이듬해인 갑오년에는 강진, 해남, 완도, 능주 등 전라남도 서남부 지방을 통괄지휘하는 주력군이 될 만큼 발전하기에 이른다.²⁾

3월 21일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후 3일 머무르다가 白山으로 진출하였다. 백산에 진출한 전봉준은 3월 25일 이곳에서 ‘湖南倡義大將所’의 이름으로 전라도 각지에 보내는 두번째 檄文을 발하게 된다. 그 요지는 양반들과 부호들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小吏들로 하여금 봉기하여 농민군에 가담하라는 것이었다. 백산에서 발한 이 격문에 호응하여 전라도 각지의 동학농민군들이 기포하였으며 이때 장흥에서도 역시 이방언·이인환·강봉수 등이 지도자가 되어 기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강진에서도 金炳泰·南道均·尹時煥·安炳洙·尹世顯 등이 기포하였다.³⁾

황룡촌 전투는 갑오 4월 23일 장성 황룡강을 사이에 둔 月坪里 일대를 중심으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초토사 홍계훈의 선발대 즉 중앙에서 파견된 京軍간에 전개되었다. 『금성정의록』에서는 황룡촌 전투 당시 ‘장태’가 사용되었음을⁴⁾ 분명히 밝히고 있고, 『동학사』에는 장태를 장흥접주 이방

1) 朴孟洙, 『장흥지방 동학혁명사』, 105쪽.

2) 같은 책, 141쪽.

3) 吳知泳, 『東學史』 초고본, 24, 25쪽.

4) 이병수, 『금성정의록』 갑편.

언이 창안하였다⁵⁾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흥접주 이방언을 비롯한 장흥농민군들이 4월 23일 황룡촌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농민군본영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측이 관군측과 全州和約을 맺은 것은 갑오 5월 7일이었다. 동학농민군측은 자진해산의 형식으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완전히 해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농민군측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농민군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행정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때 농민군측이 설치한 행정기관이 바로 執綱所이며 선출한 대표가 바로 執綱이었다. 농민군측에 의한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활동은 대체로 일본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제2차 기포가 이루어지기 전인 9월까지 추진되었다. 장흥 지방 집강소는 제일먼저 龍溪面 자라번지에 갑오 6월경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그런데 이 자라번지는 이사경접주의 근거지로서 갑오당시 그 조직적 기반이 목촌리의 어산접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농민군들은 이곳 자라번지를 근거지로 하여 죄인이나 토호를 잡아다가 징치하는등의 집강소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장흥일대의 동학 농민군과 장흥 자라번지를 중심으로 하는 집강소의 폐정개혁 활동은 인근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7월초에는 강진현에도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강진현에 설치된 집강소 역시 장흥 자라번지 집강소와 대동소이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⁷⁾

동학농민군의 집강소는 하나의 군현에 하나의 집강소만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라번지의 집강소 외에 목촌에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6월경에는 이방언 역시 장흥에 돌아와 목촌일대를 중심으로 웅거하며 그 일대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친일 개화정권을 수립하고 일제의 침략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 이르자, 전봉준등 농민지도부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제2차 봉기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제2차 봉기는 9월 13일 전라도 삼례에서 이루어지는데 장흥지역에서는 이방언의 지휘하에 5천명의 농민군이 기포하였다.⁸⁾ 그러나 장흥의 동학농민은 제2차 기포 당시 장흥을 떠나 삼례의 농민군진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흥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사 박헌양은 7월 말(7월30일) 장흥부사로 부임하였다. 부임한 다음날 바로 그는 향교에 행차하여 유림들과 동학농민군 토벌계획을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수성군측은 10월경에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수성소를 설치하는 한편⁹⁾ 동학교인을 체포하여 포살하는 등 강경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아마 제2차기포를 전후하여 농민군의 주력이 북상함에 따라 취해진 조

5)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37쪽.

6) 現 夫山面 金子里 효자마을 앞 들판이다. 앞의 형국이 자라와 같다고 하여 자라번지라한다.

7) 박기현, 『日史』 갑오 7월 3일조.

8)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48쪽.

9) 박기현, 『일사』, 갑오 7월 3일.

9/14/12/13

치임에 틀림없다.

장흥지방 수성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과 공세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다. 첫째 인근에 병영이 위치하고 있어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점, 둘째 장흥부 바로 앞에 800여명에 달하는 역졸을 거느린 察訪이 주재하는 碧沙驛¹⁰⁾이 있었다는 점, 셋째 유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보군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삼례에서 기포를 단행하여 복상하고 있을 때 장흥지방 동학농민군들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장흥지방 농민군들은 10월 16일 경부터 장흥 社倉을 중심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여¹¹⁾ 11월 중순경까지는 장흥부 외각 즉 社倉, 熊峙, 會寧(보성군 회천면), 大興(大德邑) 등지를 중심으로 집결하여 군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¹²⁾ 또한 대체로 11월에 이르면 수천명에 달한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기포하여 장흥부 외각지대에 올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1월 25일에 대흥에서 李仁煥이 기포하였다는 기록¹³⁾)이 그 예이다.

장흥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목촌의 李芳彦접주, 자라번지의 李士京접주, 웅치¹⁴⁾를 중심으로 한 具敎徹접주, 고읍을 중심으로 한 金學三접주가 이끄는 세력이 모여서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갑오 9월 13일 전봉준이 삼례에서 기포하여 전열을 정비한 다음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로 진격을 개시하던 9월말경 바로 기포한 것이 아니라, 전봉준군의 복상에 따라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장흥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공세를 가하던 강진병영과 장흥부의 수성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포하게 되며 그 시점은 10, 11월경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봉준군은 9월 13일 삼례에서 기포한 다음 9월말까지 삼례에 머물러 복상을 위한 전력의 정비와 군세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광주에 머물러 있던 손화중 최경선 등에게 광주 나주 수성군의 공세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합류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일 합류한다면 광주 나주 수성군으로 하여금 농민군의 후방을 기습하도록 내주는 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화중 최경선군은 11월에 접어들면서 나주수성군측과 몇차례 싸웠으나 번번히 패하고 말았으며, 12월 1일에는 마침내 광주에서 후퇴하여 남평·능주·동북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장흥까지 후퇴하였다. 이

10) 당시 벽사역은 屬驛으로 可申, 波靑, 楊江, 洛昇, 鎭原, 通路, 綠山, 別珍, 南利역 등을 거느리고 있었다.

11) 박기현, 『일사』, 갑오 10월 16일.

12) 같은 책.

13) 같은 책.

14) 장흥군 安良面과 보성군 熊峙面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개로 갑오년 당시에는 장흥부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성군으로 이속되었다.

들 광주 나주에서 퇴각한 농민군이 합류함에 따라 장흥 동학농민군의 군세는 대폭 강화되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초를 전후하여 광주 나주 농민군의 예도 남평·보성·농주·화순 등지의 농민군도 상당수 합류했다. 15)

그러면 12월초 동학농민군이 벽사역 장흥부 강진현 강진병영을 차례로 점령하게 되는데, 그 대공세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2월 1일 사창에 집결한 농민군들은 12월 3일 벽사역과 장흥부 인근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에겐, 전술한 바와 같이 금구·광주·남평·화순·보성 등지의 농민군까지 합세하고 있었으며, 장흥의 이방언등이 이끄는 1만명 이상의 대병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장흥 인근지방의 모든 농민군이 집결하여 장흥부와 벽사역을 사면에서 포위하자 벽사역 찰방 金日遠은 장흥부 성안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해 버렸고 수성군 역시 벽사역으로부터 장흥부 안으로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2월 4일 아침 텅빈 벽사역을 점령하고 각 공해와 역졸들이 살았던 민가를 모두 불태웠다. 벽사역을 함락시킨 농민군은 장흥부로 향했다. 찰방 김일원은 병영으로 말을 달려 병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병사 서병무는 비류들이 병영으로 옥박해 오고 있으니 수군(守軍)을 풀어 파견할 수 없다고 하고 초토영에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주 초토영으로 보고한즉 초토영에서는 나주의 군병을 출동시키려면 大陣에 품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16)

농민군이 벽사역을 첫 공격 목표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즉, 고부에서 첫 봉기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된 장흥부사 李容泰가 이곳 벽사역을 데리고 가서 고부군민을 괴롭혔는데 이에 대한 응징의 뜻이 있었던 것이다. 17)

벽사역이 무너짐에 따라 충격을 받은 장흥부사 박헌양은 사태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성장졸과 부내 백성들을 독려하며 농민군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장흥부성은 예로부터 長寧城이라 불려왔다. 장녕성은 지금의 남외리와 장흥경찰서 일대를 둘러싼 장흥부의 府城을 말한다. 장녕성은 주변산을 이용하여 쌓은 산성으로 동쪽만이 평지이고 그외 삼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남쪽방향으로는 南山이 솟아 있는데 남산은 탐진천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성벽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쪽 평지앞에는 탐진천이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다. 18)

당시 농민군은 장녕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 주위를 에워싸고 12월 5일 새벽 총공격을 펼쳤다. 농민군은 용산면의 어산점(접주 이방언) 1천여명, 부산면의 용반점(접주 이사경) 5백여명, 웅치점(접주 구교철) 1천여명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천주부적이 찍힌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주문을

15) 박기현, 『일사』, 갑오 11월 7일조.

16) 「순무선봉진동록」 『동학란기록』 上, 12월 8일, 576쪽.

17) 우윤, 「동학농민전쟁1백년 광주 전남 그 현장을 가다」 『藝鄉』 1993년 3월호, 76쪽.

18)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185쪽.

외면서 인시(새벽3-5시)를 기하여 동학군의 일대는 우회하여 공격하였고, 주력부대는 정면에 있는 동문(지금의 장흥극장자리)에 진군하였다. 즉창을 휘두르는 소리를 신호로 3방면에서 총공격을 하였다. 동문에 진공했던 동학군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므로 수십명이 거목을 들고 동문을 파괴하고 입성하였으며 (중략) 동문이 열림과 때를 같이하여 석대군은 남문에, 웅치접군은 북문에 입성하여 관아를 불지르고 아전집 3호외에는 성내가 전부 소각되었다. 19) 이때 부사 박헌양은 선회당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농민군에 항복치 않아 칼을 맞아 죽었다. 부사의 시체는 동문밖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東村에 사는 어떤 과부가 거두어 암장해 주었다 한다. 20) 농민전쟁이 끝난 후 조선정부는 박헌양과 함께 죽은 장졸들을 기리기 위해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크기의 순절비를 세워주었다. 지금까지 이 비는 남산공원 한쪽의 언덕에 위치한 영회당의 비각안에 잘 안치되어 있다. 전면에는 「光緒 二十年 甲午東亂 守城將卒 殉絕碑」란 비명아래 박헌양과 함께 죽은 장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奇字萬이 撰한 박헌양의 공적에 관한 글이 새겨져 있다.

농민군들은 강진읍과 병영의 공격을 서둘렀다. 병사 서병무는 다급한 나머지 12월 6일 선봉진에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고 살려달라 간청하였다. 21) 장흥의 농민군은 6일 오후 2시경 장흥과 강진의 경계인 사인점(舍人店: 현재 장흥읍 송암리)앞들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7일 오전 8시경 강진현을 포위하였다. 이때 강진 현감 이규하(李奎夏)는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나주로 피해 버리고 없었으며 의병장 김한섭만이 그를 따르던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보군을 이끌고 수성하였다. 22)

김한섭은 유학자 임헌회의 문인으로 이방언과는 동문수학의 친구였다. 어제의 친구였던 이방언과 김한섭은 어제 적이 되어 운명적으로 싸우게 된 셈이다. 그러나 강진 수성군으로서의 수만명이나 되는 농민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이웃한 병영이나 해남 영암 등지의 수령들은 자기고을의 방어에만 급급할 따름이었다. 제자 수십명과 함께 서문을 지키고 있던 김한섭이 대포를 쏘며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농민군들은 동문과 남문을 깨뜨리고 서문으로 밀려들어왔다. 그리하여 외로이 수성하던 김한섭은 제자등과 함께 농민군에 의해 희생당하였고 이로써 농민군들은 강진현마저 쉽게 점령하였다.

당시 성이 함락되던 상황을 「순무선봉진등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세가 급박하여 병영으로 급보를 알려 원병을 청하였는데 구원병도 오기 전에 동학농민군은 다음 7일 8시께 성밖 5리까지 육박하여 왔다. 그리하여 성내의 장리(將吏)와 별포군은 민군을 동원하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

19) 『장흥군지』, 107-108쪽.

20)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上, 갑오 12월 21일, 622쪽.

21) 같은 책, 12월 8일, 478쪽.

22) 우윤, 「동학 농민전쟁1백년 광주전남 그 현장을 가다」 『예향』 1993년 3월, 78쪽.

고 있었는데 별안간 깊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니 동학농민군은 삼시간에 성을 포위하고, '죄없는 민군은 즉시 성밖으로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속 포군과 섞여 죽음을 당하리라' 하니 민군은 해산하고 성이 함락되었다.²³⁾

강진현을 함락한 농민군은 현내의 아전들의 집을 불태우고 총이나 칼로 적을 죽이면서 장흥에서와 같이 또 한번 분을 풀었다. 강진병영에서는 나주로 파발을 띄워 계속 원군의 파견을 요청했고, 또 이웃 고을인 영암에는 포군의 지원을 8,9차례나 요청했으나 나주초토영의 군사는 머뭇거리고 있었고 영암의 포군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²⁴⁾ 강진병영은 어떤곳인가. 태종 17년(1417년)에 병영성이 축성되어 호남에서 전주성다음으로 중요한 군사상의 중심기지이다. 그리고 강진병영은 병영에 설치된 농민군의 도소(집강소)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설치하는 한편 수천명의 민軍(농민군을 진압 토벌하기 위해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병)을 병영 장대에서 훈련시켰을 뿐 아니라 민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민군을 체포하여 포살하는 등 농민군 탄압의 기세를 올리던 곳이다. 따라서 장흥부를 점령한 농민군은 그동안 장흥 강진일대 농민군을 가장 위협해온 병영의 공략에 나선 것이다.

농민군들은 병영을 향해 세 길로 나뉘어 진격해 갔다. 농민군들은 9일 수천명씩 무리를 지어 병영과 10-20리 떨어진 장흥쪽 강진쪽 보성쪽에 주둔해 있었던 것이다. 10일 새벽 2시쯤 농민군은 병영을 들이쳤다. 농민군은 병영의 안산인 삼봉을 먼저 점거하고 일제히 대포를 쏘았다. 성안에서 꼼작않고 떨고 있던 병사 서병무는 겁을 집어먹고 두루마기를 입고 패랭이를 쓰고서 피난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영암쪽으로 달아났다. 포화는 성을 향해 쏟아지고 화약연기는 하늘을 가렸다. 목책(木柵)에 불을 지르고 성가퀴를 올라가자 수성군은 스스로 무너졌다. 이로써 병영도 점령된 것이다.²⁵⁾

한편 병영이 농민군의 수중에 함락되던 10일, 나주의 관군은 미나미(南小四郎)의 지시에 따라 세 길로 나누어 강진으로 진격했다. 한길은 영암쪽, 한길은 장흥쪽, 한길은 능주쪽을 택했다. 그러나 이규태군은 12일에야 강진을 거쳐 장흥으로 들어오게 되며 일본군은 15일 이두황군은 20일에야 장흥으로 들어오게 된다.²⁶⁾ 이때 인군의 농민군은 차츰차츰 남쪽으로 모여들어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들은 장흥 남문밖과 모정뒷산 등지에 주둔하게 되는데 이날이 마침 농민군 토벌임무를 띠고 내려온 경군의 선발대 역시 장흥으로 들어오게 되는 12일이다.

12일 남문밖과 모정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은 13일 새벽 통위대 교장 黃水玉이 이끄는 30명과 12일 밤늦게 장흥에 도착한 일본군과 1차 접전을

23)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을미 정월 20일, 685쪽.

24) 같은 책, 12월 9일, 588쪽.

25) 이이화, 「농민군의 전면 항쟁과 그 최후」, 『역사비평』, 333쪽.

26) 「선봉진일기」, 『동학란기록』 상, 갑오 12월 12일, 256쪽.

하여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하였다.²⁷⁾ 수천명이나 되는 농민군이 30명의 토벌군선발대에 밀린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토벌군의 신식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식무기의 위력에 밀려 퇴각했던 농민군은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재집결하여 수만의 군세를 이루면서 장흥부를 재차 포위하였다. 그러나 교도중대와 일본군이 장흥에 도착함으로써 전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15일 농민군은 고읍 방향으로부터 자율재를 넘어 석대들을 가득 메우며 장흥부로 진격해 들어왔다.²⁸⁾

당시의 전투상황을 순무선봉진등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교도중대가 잠시 쉬는 사이 뜻밖에 비류 삼만명이 고봉아래로부터 북쪽 후록 주봉까지 산과 들 가득히 수십리에 뻗혀 봉우리마다 나무사이로 기를 꽂고 함성을 질러 서로 호응하며 포를 쏘아대며 날뛰어 창궐하니 그 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요 성내 부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우성이었다. 일본군 중위와 상의한 뒤 통위병 30명으로 후록 주봉의 적을 막게 하고 교도병으로 성모퉁이 대밭에 숨게 하고 먼저 민병 수십명을 내보내 평원으로 유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로에서 공격하여 나가니 적이 도망하여 20리밖 자오현(자율재)까지 추격하다가 해가 저물어 본진으로 돌아왔다.²⁹⁾

기껏해야 20-30미터밖에 나가지 않으며 심지어는 불을 붙여 발사하는 조총으로 그리고 죽창이나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수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자율재 너머로 통한의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⁰⁾ 그러나 자율재 넘어 퇴각한 농민군은 17일에 또다시 玉山里에 재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여기서 다시 농민군 백여명이 포살되고 20여명이 생포되었으며 19일 강진에서는 생포자 15명이 포살되었다.³¹⁾ 이리하여 장흥일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농민군의 조직적 항전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패배한 농민군들은 더이상 조직적인 항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제 후일을 기약하며 피신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알고 있을 고향마을로 숨어들 수는 없었다. 유생들 중심의 민보군이 마을마을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들은 잔여 농민군을 체포하기 위하여 장흥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과 한통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혹은 인근의 천관산속으로, 혹은 강진의大口, 七良방향을 거쳐 해남으로, 혹은 보성 회령방향으로, 혹은 會鎭 등 남쪽 바닷쪽으로 숨어들었다가 배를 타고 섬으로 숨어들기도 하였다.³²⁾

27)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上, 갑오 12월 21일, 623-624쪽.

28)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198-199쪽.

29)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上, 갑오 12월 21일, 622쪽.

30)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202쪽.

31)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上, 갑오 12월 21일, 622쪽.

한편 20일에는 우선봉장 이두황이 이끄는 경군이, 29일에는 출진참모관 별군관이 이끄는 경군이 장흥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일본군과 함께 집집마다 수색을 하며 농민군들을 색출하여 매일 수십명씩 잡아다가 장흥장대와 벽사역뒤 저수지둑에서 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³²⁾ 강진부근에서는 320명, 장흥부근에서는 300명 정도였다고 한다.³⁴⁾

3. 주요인물

1) 이방언

이방언은 1838년(헌종4년) 용산면 墨村里에서 李重吉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당시 목촌일대에서 상당한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마을뒤로 筆峰이 자리하고 있는 목촌은 대대로 학문하는 선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부친은 장흥향교인 용산리 향약 청원계의 도정을 맡았다고 하며, 가세가 꽤 부유했다고 한다.³⁵⁾ 그리고 어느 해에는 장흥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규정대로 조세를 바치라는 독촉이 빚발쳤다. 이방언은 감연히 일어나 장흥부사에게 조세 탕감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전라감사와 단판하여 감세를 해결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그는 평민을 억누르는 토호가 아니라 의협심이 넘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그는 동학에 1891년 입도하였는데, 반주자학적 생각을 가졌던 그가 동학의 진보적인 측면을 인정함으로써 변혁의 의지를 실현해 보려는 뜻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아무튼 그와같은 유력자가 동학에 입도하게 되자 주변사람들은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어산접의 접주가 되었으며, 또 자연스레 장흥지방의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되었다.

이방언은 12월 15일 석대들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은신하였다가 25일 장흥에서 이두황군에게 체포되어 나주초토영으로 이송되었다가 서울로 다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증거가 없다고 1895년 3월 무죄방송되었다. 석방후 서울로 불잡혀갔다가 같이 석방된 보성군수 柳基元의 도움으로 보성땅 회령면(지금의 회천면)새터에 사는 이의원의 집에 숨어지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전라감사 이도재가 혈안이 되어 그를 찾아내어 장흥 장대에서 그의 외아들 성호와 함께 1895년 4월 25일 처형하였다. 그의 출생지인 현재 용산면 목촌리앞의 도르쇠 들판에는 5척높이의 立石이 2개 서 있다. 그는 이곳에서 농민군을 훈련시켰던 것이다.

2) 이사경

32) 같은 책, 갑오 12월 26일, 638쪽.

33)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204쪽.

3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62쪽.

35) 이방언의 증손 이종찬씨의 증언(1994년 2월 25일)

36) 이이화, 『한겨레신문』 1993년 2월 25일.

이사경은 용계 瓦里(지와물 현재의 부산면 용반리) 출신의 대접주로서 일찌기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를 지낸 부친 浩仁의 뒤를 이어 대접주가 되었다. 즉, 대물림 접주이다. 그의 부친은 白山봉기에 참여하였다가 연로하여 체력이 한계에 이르자 귀향하여 용반리에 돌아왔다. 이때 그를 따르던 휘하 농민군들이 이접주를 따라 용반리에 들어왔고 이접주의 아들인 이사경이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있고 인품 또한 넉넉한 것을 알고 접주로 추대하여 계속 모셨다고 한다.³⁷⁾ 따라서 자라번지의 집강소는 이사경접주의 부친(李浩仁)과 이사경의 주도아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뒤 용반리 기억산에 은신하였다가 이듬해 1월15일 체포되어 장흥 벽사역에서 처형당하였다. 이사경의 집안 역시 이방언과 같이 그 고을에서 유력한 집안으로서 마을의 권력자로 지금 이사경의 후손인 이정태씨는 이방언보다 부유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³⁸⁾

2. 홍 양 · 보 성

전봉준軍이 3월 白山에서 布陣한 후 격문을 발송하였을 때 홍양지방에서는 유능한 접주 柳希道 외에 具起瑞, 宋年浩 등이 기포하여 백산으로 진군하였고, 보성에서도 文章衡, 李致義 등이 참여했다.³⁹⁾ 이 백산에 운집한 수만명의 동학 농민군은 장성 황룡촌전투에서 접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斥倭를 부르짖는 9월의 재봉기때에도 류희도가 3천여명의 동학농민군을 모병하여 기포하였고⁴⁰⁾ 그리고 보성에서도 2차기포 때 문장형이 3천여명을 거느리고 기포하였다.⁴¹⁾ 보성은 장흥 강진과 이웃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농민군들은 11월부터 12월초를 전후하여 장흥 인근지역 농민군들과 합류하였다.⁴²⁾ 이들은 장흥 사창에 집결하여 벽사역을 점령하고 장흥부를 치고 강진현과 강진병영을 점령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석대들전투에서도 큰 희생을 치렀다. 그리고 장흥에서 집강소가 설치된 자라번지는 보성과 지역적으로 가까와 보성은 이곳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음은 보성과 홍양의 농민군을 토벌했던 사정을 「순무선봉진등록」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다.

보성군에서는 경, 일군이 도착하였을 때 10여명을 포착하였고 보성군과 수성군이 협력하여 수색해 30여명을 포살했다.⁴³⁾ 그리고 보성의 安奎復은 낙안 수성군과 인민들이 12월 22일 外面 突伊峙에서 체포하여 당일 효수하여 좌수영에 보냈다.⁴⁴⁾ 안규복은 湖左都接主로서 동학당의 巨頭였다. 그는 보성사람

37) 용반 마을지 편찬위원회, 『우리의 보금자리 지와물』, 57-58쪽.

38) 이정태씨 증언(1994년 3월 1일).

39)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24, 25쪽.

40) 같은책 초고본, 48쪽.

41)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49쪽.

42) 박기현 『일사』 갑오 11월 7일조.

43)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上, 갑오 12월 26일 638쪽.

인듯하며 낙안에 피신하여 낙안 동학당을 지휘했다 한다.⁴⁵⁾ 홍양에서는 12월 초 劉奉萬이 무리 천여명을 거느리고 성안과 밖 동북 2개의 산에 나누어 둔 거하니 수성소에서 초토하고자 할 때 기미를 알고 해산하였다.⁴⁶⁾ 을미 정월 초 2일 낙안읍에서 출발한 경군은 홍양땅 楊江院에 이르러 경속하고 40리를 가 홍양읍에 이르렀다. 당시 홍양읍은 현감이 임하기 전이었고 여러해 동안 가뭄이 들어 무척 궁핍하였다. 이에 수성을 설계하고 劉奉萬(劉奉萬과 동일 인물인듯 - 인용자), 吳俊彦등 27명을 잡아 죽이고 곧바로 진을 옮겼다 한다.⁴⁷⁾

이 름	거 주 지	활 동 내 용
李芳彦	장흥 용산면 묵촌리	보은집회, 백산전투, 황룡촌전투 참여. 전주화약후 폐정개혁활동, 석대들 전투지휘. 장대(현 장흥국교)에서 처형됨(1895, 4, 25)
李士京	장흥 용계면 지와물	보은집회 백산전투 참여, 자라번지에서 집강소 설치하여 폐정개혁활동, 석대들 전투참여 벽사역에서 처형됨(1895, 1, 15)
李仁渙	장흥 대덕면 연지리	보은집회 고부점령 때 참여, 석대들 전투참여, 나주에서 처형됨(1895, 3, 27)
金學三	장흥 관산면 성산리	보은집회 고부점령 때 참여, 전주점령 때 참여, 석대들 전투에 참여, 벽사역에서 처형됨, (1895, 1, 13)
姜瑋秀	장흥 대흥	대흥출신 접주, 백산전투 참여
朴采炫	장흥 남외리	고부점령, 전주점령, 석대혈전에 참여 벽사역에서 처형됨 (1894, 12, 28)
具敎楸	보성군 웅치면	웅치 접주로 활약
尹世顯	강진 대구	갑오 4월 1차 기포에 가담, 7월에 강진에서 폐정 개혁활동, 장흥 강진전투 참여, 1933년 사망
南道均	강진	강진 출신 접주, 일본군에게 처형됨 (1894, 12, 27)

44)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上, 12월 29일, 645쪽.

45) 『낙안군지』, 65쪽.

4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을미 정월초 2일, 652쪽.

47)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上, 을미 정월 13일, 679쪽.

67 전남지방의 등학농민혁명

尹世煥 (尹時煥)	강진	백산전투 참여, 접수 1894, 12, 27 처형됨
安奎馥	보성	
劉卜萬	홍양	
吳俊彦	홍양	
威良振	홍양	
柳希道	홍양	백산전투 참여, 2차 기포시 삼례에 직접참여
具起瑞	홍양	백산전투 참여
宋年浩	홍양	백산전투 참여
文章衡	보성	백산전투 참여, 2차때 기포
李致義	보성	백산전투 참여

7. 해남·완도·진도· 우수영의 동학농민혁명

황 혜 린(사학 3)

1. 해 남

해남에서는 1894년 여름에 동학농민군이 읍성을 점거하여 집강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고문서에 의하면, 6월, 12일 28명, 17일 200여명, 23일 10여명, 29일 60여명, 다음달 3일 240명, 8일 20명, 16일 200여명의 동학군이 각기 총과 창, 검을 들고 발포하며 入城하였다고 한다.¹⁾

집강소 설치는 농민군 역량의 가시적 표현으로 중앙의 봉건권력을 차단하고 농민중심의 농민의 정치를 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남의 집강소는 남동리 일대에 세워진 듯 하며 그 이틀 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 아전인 안씨 집안이 불태워졌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동학군이 봉기했음을 보여준다. 남동의 동학 중심 세력은 정·김씨 일가에 의해 형성되었고 후에 아전인 안씨 집안은 동학군을 소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붙잡힌 동학군들은 나무에 매달린채 총살되어 함께 불태워지는 잔인한 보복을 당하게 된다.²⁾

해남의 집강소는 설치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그 해 9월에 철폐되었다. 이것은 본격적인 전투를 위한 준비였다. 장흥, 강진, 병영을 점령하고 영암으로 진출하려던 농민군은 남하하는 경군을 피해 다시 장흥으로 돌아와야 했다. 토벌군 선발대와의 1차 접전에서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자율재 너머로 퇴각한 농민군 4·5천명은 17일에 또 다시 옥산리(현 장흥군 관산 옥당리)에 재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이 전투로 인해 장흥 일대에 위세를 떨쳤던 농민군의 조직적 항전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패배한 농민군은 전의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일부는 천관산에 몸을 숨기고 일부는 대구, 칠량을 거쳐 해남으로 유입되었다. 바다로 쓸어 넣어 버리려는 듯한 기세로 몰아오는 관군을 피해 농민군은 이 땅끝까지 후퇴해야 했다. 해남의 농민군은 이웃 강진 농민군과 연합하여 장흥 전투에 참가하였고, 장흥에서 밀리자 거점을 해남으로 옮기고 읍성을 점령, 성 주위를 포위하였다. 좌선봉 이규태 부대는 해남쪽에서 위급하다는 전갈이 오자 우선봉 이두황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흥을 떠났다. 이 때 해남 현감은 이규태의 조카사위였고 전라

1) 「道人經過來歷」(짚풀 생활 박물관 소장).

2) 백일만씨의 증언(1994. 5. 12).

우수영의 우수사 또한 이규태와는 아주 가까운 인척이었다. 장흥에서의 뒷마 무리도 내팽개친 채 이규태는 혈육을 구하려고 해남쪽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당시 농민군의 공격목표가 된 해남읍성은 해남현을 둘러싸고 있는 읍성이었다. 뒤로는 금강산이 에워싸고 있고, 우로는 남각산이 해풍을 막아주고 있고, 좌로는 달음산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있는 천연의 요새가 바로 해남읍성이었다. 해남읍성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알려진 후 통위영 부대는 가장 먼저 해남에 들어왔다. 통위영중우참령관의 첩보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2월 18일 午時쯤에 본진이 30리 나아가 연당리에 도착, 駐宿하였고 그날 밤 丑時 쯤 해남현 근경에 도착하여 적형을 근탐한 후 비도 수천명이 성 밖에 둔취하고 있다고 한다. 양 소대를 둘로 나누어 진병한 즉 비류들이 여러차례 발포하였다. 이에 아군이 일제히 응포하며 나아가자 적도가 사산분주하였다. 이중 포에 맞아 죽은 자가 8-9명이고 謀士 全由禧와 南里驛 大接主 金信榮은 생포되었다.”³⁾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주요 지도자를 잃고 말았다. 다음날 강진읍에 도착한 민병들이 포로로 잡은 15명을 즉시 죽이고 해남읍을 탐색하였고, 교도병 병정 3백여명까지 해남에 들어와 농민군 색출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해남 우수영과 진도까지 그 수색망을 넓혔다.

그러자 이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농민군이 득세했을 때 협조하던 각 면 동리의 인사들이 자기는 동학이나 농민군과는 무관하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려는 듯이 농민군 색출에 앞장섰다. 마포면 외호리의 이자연, 은소면 신평리의 윤원포, 연동의 윤옥규, 이도면 신동의 김재하, 양업삼, 둔곡면 태인동의 정평규, 산일면 원후리의 박화문, 현이면 용정리의 김재옥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해남 읍내의 박유진은 황소 한 마리와 백미 3섬을, 민건호는 황소 한 마리와 탁주 세 동아리를 통위영에 바쳤다.⁴⁾

12월 21일에는 一三面 巨里의 朴水行과 縣一面 川邊의 許權, 진도 三寸里의 金仲也, 縣一面 新化의 申아무개가 포살되었다.⁵⁾ 다음날 22일에는 드디어 우선봉 이두황부대가 해남에 도착하였다. 우선봉진의 첩보에는 일본군과 교도병은 이미 해남을 떠났고, 성읍의 내외가 10집 가운데 9집이 비어 있고 소란스러운 모습이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⁶⁾ 같은 날 통위영에서는 梨道面의 접주 金順五, 교장 朴益賢, 집강 李銀佑, 별장 朴士仁, 교수 金夏振을 잡았다는 첩보를 선봉진에 보낸다.⁷⁾ 이리하여 숨어 있던 농민군 지도자는 하나 하나 체포되어 현으로 끌려왔다. 우선봉진에서는 10월 이후 거들된 흥년과

3) 『巡撫先鋒陣騰錄』, 『東學亂記錄』 하, 619쪽.

4) 『東學亂記錄』 하, 407-409쪽.

5)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22쪽.

6) 『罪人錄』, 『東學亂記錄』 하, 700쪽.

7) 『罪人錄』, 『東學亂記錄』 하, 700쪽.

비요로 피해를진 민정을 수습한다는 명목아래 수성규칙을 만들고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장흥 등지에서 동학 접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관망의 기운을 보이자 방을 붙이고 정보를 수집하여 농민군을 잡는 일을 독촉하였다.⁸⁾ 12월 24日에는 은소면의 윤규룡등이 무안 접주 배상옥을 잡아 바쳤다. 이 때 일본 보병 대위 松本正保의 日陣이 도착하여 그 자리에서 배규인을 죽이고 은소면에 천냥의 상금을 주게 했다.⁹⁾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인명을 살상하는 사례는 관군이나 동학군 모두에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날 金春斗와 金道日, 朴昌會, 姜準浩, 金東說, 鄭采鎭, 姜瑞玉, 姜点岩, 成臣仁, 南處成, 白長安을 잡아들이라는 전령도 함께 도착하였다. 다음날 縣一面 海里的 김춘두 형제가 화일면 김만국과 박헌철 등에게 잡혀와 일본군 진영에 압송되었고 일본군은 다시 나주로 이송, 그들을 붙잡은 사람에게 포상할 것을 명하였다.¹⁰⁾ 김춘두와 김도일은 1차 봉기 때 백산 전투에 참여한 접주들이다.¹¹⁾ 26日에는 해남민군이 영암 경내에서 작경한 崔必畬와 강진 영암 등지에서 작경한 梁氏阿的을 비곡면 별진역에서 체포하였다.¹²⁾

당시 민간에는 산재된 군기들이 來納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숨겨두고 있다가 발각되었을 시에는 家主 뿐만아니라 마을의 頭任까지도 처단을 받게 되었다.¹³⁾ 현재 해남을 대표하는 사찰 가운데 하나인 대둔사도 피를 부른 이 물결을 피하지 못하였다. 勢가 다한 동학군들이 대둔사의 복암까지 피신하였기 때문이다. 뒤에 이들은 추자도 등 섬으로까지 밀려가게 된다.¹⁴⁾ 선봉진에서 대둔사에 전령을 보내어 동학군을 숨기다가 발각되면 모든 사찰이 도륙되고 어육이 되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았다.¹⁵⁾

한편 비곡면의 장수동 등이 관군으로부터 勿侵標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협조적인 마을에 대해 내리는 관군의 조치였다.¹⁶⁾ 12월 30일 가리포 첨사의 첩보에 의하면 25일 공문에 의해 각 고을에 동학거괴 백장안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발포수교 홍용인이 돌아와 고하기를 거괴 백장안은 25일 밤중에 해남읍 녹산면 수성군들에게 완도의 가리포진 拂目里에서 체포되어 압송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⁷⁾ 여기서 우리는 퇴각하던 농민군들이 해로

8) 「巡撫先鋒謄錄」, 『東學亂記錄』 상, 641쪽.

9) 「先鋒陣各邑了發官及甘結」, 『東學亂記錄』 하, 366쪽.

10) 「罪人錄」, 『東學亂記錄』 하, 701쪽.

11) 오지영, 『東學史』 470쪽.

12)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 『동학란기록』 하, 344쪽.

13)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 『동학란기록』 하, 335쪽.

14) 백일만씨의 증언(1994. 5. 12).

15)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 『동학란기록』 하, 365쪽.

16)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 『동학란기록』 하, 367쪽.

17)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48쪽.

를 통해 섬으로 은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군은 다른 누망자들이 반드시 완도 등 도서지방으로 흩어질 것을 알고 배를 수색하고 주요길목을 정탐하였다. 28일에는 鹿山 山林洞의 접주 金京在와 접사 朴興寧, 배규인의 마부 金鍾坤, 접사 姜準浩가 함께 포살되었다. 이미 가리포진에서 붙잡힌 백장안과 山林洞 교장 尹鍾武도 같은 날 포살되었다.¹⁸⁾ 29일에는 해남 현산면 풍헌 주기안등이 접사 張克瑞와 교수 李重鎬, 도집 林濟煥, 집강 崔元奎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있음을 통위영에 보고하였다.¹⁹⁾ 1894년 12월 29일에 체포된 장극서와 이증호, 임재환, 최원규는 이 달 5일에 일진에 착납되어 刺殺되고 말았다.²⁰⁾

자료상에 나타나는 해남지역의 상황이 이렇듯 모두 붙잡히거나 포살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까닭은 1894년 12월 말을 전후로 동학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으며 그 잔존 세력이 전라도 서남해안 지방으로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월 29일에 참모관 별군관은 해남을 떠나 강진에 도착하였다. 이에 남면, 칠량 등지에서 도망은 동학군들이 산에 숨거나 섬으로 은둔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군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성소를 세웠다. 1895년 1월 4일에는 김도일의 조카사위인 崔以禧가 儒會에 의해 捉囚되었다.²¹⁾ 김춘두, 김춘인 형제와 무안 지방의 배씨 접주들을 보면 동학이 가족 및 혈연을 중심으로 포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라에서 사교로 판정한 이상 철저한 보안이 필요했던 터일 것이다.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적발되는 날에는 다른 가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체포될 지경이었으므로 많은 동학군들은 성과 이름을 바꿔야 했다. 그래서 유명 거괴로 지목된 접주들도 족보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해남은 주로 鹿山(현 삼산면), 縣山, 比谷(현 계곡면 일부)을 중심으로 동학의 세력권이 형성되었다. 녹산면에서는 백장안이 우수영을 치기위해 12월 16일에 기포하였다. 그리고 산림동의 金京在가 백장안의 영향 아래서 활동하였다. 현산의 동학군은 白浦의 尹監役(尹鎰浩)宅의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자발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강제성을 띤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후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해남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였던 백장안은 1888년에 강진 병영에서 실시한 향시에서 武科 丙科에 급제하였다. 무과에는 급제하였으나 실제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한터라 ‘백선달’로 불려졌다고 한다.²²⁾ 아마도 이런 처지가 그를 동학군에 가담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2월 16일 기포하여 25일

18) 「죄인록」 『동학란기록』 하, 700쪽.

19)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43-644쪽.

20)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 『동학란기록』 하, 367쪽.

21) 「죄인록」 『동학란기록』 하, 702쪽.

22) 백종남씨의 증언(1994. 5. 12). 그는 백장안의 증손으로 紅牌를 보존하고 있다.

73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에 완도 불목리에서 잡힌 후 28일 삼산천에서 포살되었다. 대둔사 앞의 구림리 37번지가 그의 본적이고, 그의 묘는 상가리 선산에 있다.

농민 봉기에 대한 해남군민의 관심은 타지역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군사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새로 편찬중이라는 군사에도 별다른 내용을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 해남에서의 전투 및 농민군 활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탓에 주목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2. 완 도

완도는 1894년 6월에 큰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웅덩이를 파서 물을 퍼올리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해남을 거쳐 蘆花, 所安에 침입한 동학군 몇 명이 지방민과 합세하여 수십명 작당되어 모병을 이유로 여러 섬을 거쳐 완도 大也里까지 진출하였다.

이 보고를 접한 가리포진에서는 보고문을 전주감영과 병영에 띄우니 3일만에 병영에서 指令으로 완도 지방에 둔취해 있는 동학도들은 하나같이 다 병영에 압송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에 장정 50인을 모집해서 각기 무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노화도로 가서 60여명을 잡아다가 鎭浦에 실어다 놓았다. 붙잡힌 동학군들은 매를 맞아 이미 반절쯤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들을 일일이 취조하여 죄가 가벼운 사람은 놓아 보내고 무거운 사람은 병영에 압송하였다.

이렇게 한바탕 소탕작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도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9월에 전주에 全尙律과 古今島, 助藥島 사람들이 완도면 花興里 書齋에 모임을 만들어 内外面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권고하기를 “각 처에서 동학도들이 극심하게 猖獗하는데 만약 본소(집강소를 가리키는 듯-인용자)를 세우고 왕래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본소를 세우는 목적은 단지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또 貪官汚吏와 土豪 및 武斷者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 하고 위협하니 누구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로 회합하여 임원을 선출하니 회장에 沈景善과 朴乃瑞가 당선되었다. 이들은 동학교도는 아니었으나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 집강의 임무를 띠게 되었다. 그 나머지도 각각 소임을 정한 뒤에 먼저 吏房 金寬七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경계하였다고 한다. 가리포진에서는 이 사실을 병영에 보고하고 회장과 임원을 잡아다 가두었다. 전주·고금도·조약도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먼저 기미를 알고 도망해 달아나 버렸다. 지난번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소임을 맡았건 맡지 않았던 간에 서로 殲劫하여 혹은 산속으로 가서 숨고 혹은 배를 타고 멀리 피해갔다. 그 때 검사의 妹夫人 아전 車由善이 직접 병영에 보고하여 완도 사람은 하나도 범한 자가 없고 전주·고금도·조약도 사람들이 다른 賊을 備禦한다 하고 달래고 위협하여 이 모임을 만들었고 이방을 매질하는 것도 그들이 한 일임을 알렸다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무사히 처리되었다.²³⁾

3. 진 도

진도에서는 그해 봄부터 여름 사이에 농민봉기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1894년 8월 14일에 부사가 새로 부임함에 따라 수성군 조직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9월 18일에 형세를 살펴본 부사는 관리와 아전의 부패와 거듭된 흉년에 연이은 동학군의 소요로 흥흥해진 民心을 파악한다. 10월 10일에 民丁을 징발하여 1322명의 수성군을 조직하여 수영과 힘을 합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는 단지 砲軍 10명만으로 守城한다고 버트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쉽지 않게 조직된 수성군은 남북으로 나뉘어 한편에서는 轅門의 입구를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열에 아홉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수성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사는 아직 상납되지 않은 稅穀 53석과 執報勘前의 세미곡 55석을 군량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취해 쓴 공전도 1510양이나 되었다.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한 부사는 소요된 전곡을 다시 보충할 길이 전혀 없음을 보고하면서 참작해 줄 것을 선봉진에 청한다.²⁴⁾

12월 17일 좌선봉의 첩보에 의하면 무안으로부터 목포로 향하여 13일 밤에 목포진에 이르렀는데 밤에 비가 온 후 파도가 세게 일어나서 16일까지 계속되어 고생이 많았으며 반면에 동학을 공격할 수 없어 경계를 엄하게 했다고 한다.²⁵⁾ 경군이 무안을 거쳐 목포까지 진군한 까닭은 바로 이 곳 진도에 은둔한 동학군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였다.

12월 18일 선봉진의 감결에 의하면 수성장 曹龍奇가 수성한 후에 그 비용을 빙자하여 科外로 조세를 거둬들이는 폐단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장 압상하여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²⁶⁾ 이를 후 진도 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성군을 조직, 통솔한 그의 공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진도 屯結作梗때 관련된 民과 鳥島面 농민군 대장 朴仲辰에 대해 보고하였다. 첩보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적괴 박중진이 7월부터 영광·무장 등지에서 군

23) 『枕泉金先生自書錄』, 번역본, 157-163쪽.

24)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하, 615-616쪽.

25)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09쪽.

26)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 『동학란기록』 하, 331쪽.

중을 모아 (아마도 영광의 李賢淑 일당을 가리키는 듯 - 인용자) 배를 타고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에 백성들이 모여서 그 거괴와 일당을 붙잡아 여러 날 가두어 두었다. 거괴는 자결하였다. 그 남은 자들의 처리 방안의 지시를 바란다.” 한편 해남에서 작성한 古郡內面 內洞里的 孫行權과 石峴里的 金秀宗이 체포되었다. 이 중 김수종은 손행권의 권유에 의해 동학군에 가담한 사람이다. 1895년 1월 7일 진도부사의 첩보에 의하면 李方鉉, 金允善, 朱永白, 金大旭, 徐奇宅등을 체포하여 심문하였고 27일 오전에 읍의 역참에 도착하여 수성군을 보내 구속중인 죄인들을 조사한 뒤 손행권, 김유선, 김대옥, 서기택을 백성들과 대질시켜 처리했고 남은 사람은 석방하였다.²⁷⁾

27)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15-616쪽.

1. 전남지방의 동학혁명일지

이 일지는 『역사연구』 「1894년 농민전쟁 일지」 1993년 2월호의 송찬섭·김용의 편을 참고 하였으며, 문헌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충하였다.

----- 범 레 -----

『甲午略歷』(略歷), 『奎章閣古文書』(奎古), 『錦城正義錄』(錦城), 『東學黨征討略記』(略記), 『東學史』(東學), 『隨錄』(隨錄), 『巡撫先鋒陣膽錄』(巡膽), 『東匪討論』(東論), 梅泉野錄(梅泉), 『先鋒陣上巡撫使書』(先巡), 『先鋒陣日記』(先日), 『先鋒陣呈報牒』(先牒), 『巡撫使各陣傳令』(巡傳), 『兩湖右先鋒日記』(兩右), 『兩湖招討膽錄』(兩招), 『梧下記聞』(梧下), 『二六新報』(二六), 『日本外交文書』(外交), 『日本人』(日人), 『日省錄』(日省), 『日清戰史』(戰史), 『駐韓日本公使館記錄』(公使), 『聚語』(聚語), 『日史』(日史), 『草亭集』(草亭), 『韓國東學黨蜂起一件』(一件) 외 다수.

1893년

- 3.10 보은집회를 열다. 정부에서는 동학을 금하는 명령이 내려져 교도 가운데 잡혀서 침학을 받는자가 매우 많게 되므로 최시형은 이날 순병회등과 의논하여 전국에 통문을 보내어 보은에 교도들이 모일 것을 명하다(敎史)
- 3.27 전라도 영광등지에서 동학도 백여명이 보은에 도착하다(聚語).
- 3.30 보은에서 동학도들이 해산하기 시작하다. 영암, 무안, 순천, 인동, 知禮역 260명이 湖水赴義, 湖長大義, 湖南水義라고 쓴 기를 들고 해산하는 길이라고 보고하다(聚語).

1894년

2. 2 전라감사 김문현이 관문을 띄워 5진영과 금구, 정읍, 부안, 김제, 담양, 무장, 태인, 흥덕 등11개 읍의 군사로 하여금 군비를 갖추게 하다(담양).
- 2.25 순천부사 김갑규(金甲圭)의 수탈이 심하여 농민들 수천명이 모이자, 이들이 바라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애걸하여 해산시키다(梧下).
- 2.28 영광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난다. 군민들이 폐막을 고친다면서 관아에 뛰어 들어가 군교를 찢으며 군수 민영수(閔泳壽)를 공격하고는 앞장선 김국현(金國炫) 등이 감영에 가서 호소하다(梧下).
- 3.18 이날까지 사방에서 농민군 천여명이 몰여들어 영광, 법성 경계에 모였는데 이들은 법성 진량면(陳良面) 용현리(龍峴里) 대나무 밭에서 죽창을 만들고 총포등을 준비하였다(隨錄).
4. 4 농민군들이 영광 법성포(法聖浦)의 이향(吏鄕)에게 통문을 발하다(東討).

- 정창권이 정읍, 장성, 창평, 남원 등 4읍의 포군 230명을 거느리고 고부에 도착하여 부안 줄포로 향하다. (장성, 창평)
4. 7 담양 수성군 국인목, 고부 황토현 전투에 참여하다(담양).
4. 9 영광군수가 농민군이 읍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도망하였다(兩電).
- 4.10 농민군이 노령을 넘어 나주, 장성으로 향한다고 하다(聚語).
- 4.12 무장에서 사흘을 보낸 농민군이 곧바로 영광을 공격하다(兩招, 隨錄)
수천명의 농민군이 나주를 공격하였으나 항병에게 패퇴하였다(公使).
- 4.13 농민군이 계속 영광에 머물고 일부는 아직 무장에 머물다(兩招).
- 4.15 김문현이 정읍, 나주, 장성, 고부, 흥덕, 무안, 영광, 함평, 나주, 광주, 고창 등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군량을 준비하도록 하다(梧下).
- 4.16 영광에 있던 농민군 6,7천명이 함평을 공격하는 길에 전운(轉運) 위원 2명과 수성별장 정만기(鄭萬基)를 죽이다(隨錄).
함평에서는 수성군등 150여명이 지켰으나 농민군이 공격하여 함평을 공격하여 함평을 점령하다. (兩招: 隨錄)
- 4.17 영광 창의소에서 전주의 유진소(留陣所)에 통문을 보내다. 여기서 대원군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일어났다고 밝히다(隨錄).
- 4.18 농민군이 나주 공형(公兄)에게 탐관을 징계하고 보국안민을 실현하겠다는 통문을 보내다. 여기에 대해 나주 목사 민종열(閔種烈)은 '명분없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법에 따라 주륙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다(梧下).
농민군이 함평으로 가다.
- 4.19 함평 농민군 부대에서 초토사 홍계훈에게 군전(軍錢)을 때도없이 마구 배정하는 것, 환전(還錢)의 원본을 수채하는 것, 세미(稅米)에 명목도 없이 덧붙여서 거두어 두는 것, 여러항목의 연역(烟役)을 첩징하는 것, 연척(烟戚)에게 마구 배정하는 것, 전운영에서 가렴하는 것, 군전관(均田官)이 전결을 속여 징세하는 것, 각사(各司) 교예배(校隸輩)가 심하게 토색하는 것 등 8개 조항을 내걸고 폐정개혁을 요구하였다(梧下).
- 4.20 홍계훈이 정읍에서 출발하여 한편으로는 행군하여 농민군이 모여 있는 함평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앞서 나가는 대관(隊官)에게 농민군 실태를 탐문하도록 하였다(兩招).
- 4.21 함평농민군이 장성, 나주로 향하다(兩招).
농민군 만여명이 장성에 도착하여 월평(月坪) 삼봉(三峰)아래에 진을 치다(梧下).
홍계훈이 영광에 도착하여 자다(兩招).
- 4.22 전봉준 부대가 장성에 도착하고 전라좌도의 농민군도 장성에 집결하였는데 그 수가 수만명에 이르다(略歷).
홍계훈이 함평에 종사관 이기응(李基應), 배은환(裵垠煥) 등을 보내어 선유하도록 하다.
홍계훈이 대관 이학승(李學承), 원세록(元世錄), 오건영(吳建永)과 병정 300명을 장성으로 보내다(兩招).
- 4.23 장성 황룡촌 싸움이 벌어지다.
황룡촌에 있던 전봉준 부대는 월평촌의 홍계훈 부대 선봉 200여명의 기습을 받아 삼봉산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다(梧下). 이때 농민군은 대나무로 만든 장태라는 기구를 이용하였는데, 전봉준은 등에 '靑乙'이라는 부적을 써 붙이고 앞 옷깃을 물고 엎드려서 장태를 굴리면 적의 포탄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다고 한다

79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謙山).

농민군은 장성 월평에서 노령을 넘어 정읍으로 향하다(兩招).

홍계훈 부대의 선봉장 이학승이 전사하다.

홍계훈 선봉 200여명이 영광에서 농민군을 공격하고 나서 월평에 도착하다(梧下).

4.25 홍계훈이 영광에서 회군하여 고창에 도착하여 머물다(兩招).

5. 2 홍계훈이 전주부내 大小民에게 전령을 내려 농민군에 협력하지 말도록 효유하다(兩招).

순창 담양군수에게 전령을 내려 본읍에 있는 포군 300여명을 4일까지 유진소(留陣所)에 도착하도록 하다.

5.10 곡성에서 농민군을 방어할 목적으로 村丁을 모집하여 인민들이 원망하므로 홍계훈이 이를 금지하도록 하다. 또 만경현 포군 24명을 귀가시켜 농업에 힘쓰다(兩招).

5.17일경 농민군이 17, 18일간 井邑를 공격한 다음 장성으로 향하다(兩電).

5.18 태인 농민군 가운데 한 무리가 오후 2시경 장성으로 가다(隨錄).

5.20 전봉준이 장성으로 가다.

5.21 근일 태인에 있던 농민군은 장성으로 갔고 그 수는 많지 않으며 순창에서 순천으로 간 자는 100명 이하이고 이들은 각자 귀화한다는 보고가 있다(兩電).

5.24 장성과 고부에 수백명의 농민군이 모였다(公使).

5.28 농민군 한 부대가 장성 백양사에 머물러 있으며, 또다른 500여명의 농민군이 담양에 뛰어들어 점령하다(隨錄).

6. 2 농민군 40여명이 정읍 경계로부터 담양으로 들어와 수성청(守城廳)을 불지르고 수성별장(守城別將) 국인묵(鞠仁默)의 집을 부수다(隨錄).

6. 9 전봉준이 순창에서 담양으로 가다(二六).

6.11 홍양 농민군이 樂安 牧場으로 향하면서, 吏鄕에게 통문(通文)을 발하다(邑報).

6.12 동학도 28명이 해남 읍성에 들어오다.

6.14 홍양 농민군 수백명이 읍폐(邑弊)를 교정(矯正)한다고 하면서 성내로 뛰어들어 이향을 구타한 뒤, 곧바로 낙안으로 떠났다는 보고가 있다(邑報).

6.16 전봉준이 광주에 머물다(日人).

6.17 전봉준이 남평에 머물다(日人).

동학도 2천餘人이 창과 검, 총을 들고 발포하며 해남에 입성하다(道人經過略歷).

6.18 전봉준이 능주에 머물다(日人).

6.19 전봉준이 능주에서 동남방향으로 떠나다(日人).

6.20 동학도인들이 장흥 자라번지(鰲番地)에서 도회를 열어 죄인을 잡아다 징계하다(日史).

6.22 정부는 김학진을 병조판서로 임명하고 장흥부사 박계순(朴齊純)을 전라감사로 임명하다(日省).

6.23 동학도 10餘人이 해남에 입성하다.

6.29 동학도 60餘人이 해남에 입성하다.

7.3 농민군이 장흥으로부터 강진으로 이동하여 도회를 열다(日史).

동학도 240명이 입성하다.

- 7.5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 부대가 나주를 공격하다(錦城).
- 7.? 농주 농민군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다(奎古).
- 7.? 나주 공격에 패한 최경선이 전봉준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전봉준은 이를 거절하였다(梧下).
- 7.? 하동 민병이 도소를 설치하고 있던 광양 농민군과 하동 상인들을 강너머로 쫓아냈다.(梧下)
- 7.8 동학도 20명이 해남에 입성하다.
- 7.10 강진 병영에 도인접(道人接)이 설치되어 다른 지역의 동학도의 과격한 활동을 막다(日史).
- 7.12 김학진이 6월 28일과 7월 2일자 군국기무처 의안을 각군에 공문으로 보내어 널리 알리고 각자 시행토록 하였다(隨錄). 이 공문은 지역마다 도착한 날짜가 다른데 강진은 7월 21일 도착하였다.(日史).
- 7.14 강진 병영의 집강소에서 병영 우후(虞候)를 때린 농민군 30여명을 잡아다 죽이다(日史).
- 7.16 동학도 2200餘人이 입성하다.
여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9월쯤에 본격적인 전투를 위해 집강소를 철폐하고 10월 이후에 수성군을 다시 만들다.
- 7.18 정부는 나주목사 민종열과 영장 이원우를 파직하다(實錄).
- 7.20 전라도 광양 농민군 300여 명이 민을 잡아다 징계한 뒤 흩어지다(邑報).
- 7.23일경 농민군 수천명이 전라 우수영(右水營)을 공격 군수품을 빼앗아 가다(邑報).
- 7.24 정부에서는 전라남도 농민군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다(關草).
- 7.26 광양, 홍양, 농민군 2,000명이 하동에 온다는 기별이 있었으며, 광양 농민군 400여명이 하동에 들어왔다가 돌아가다(邑報).
- 7.27 농민군 2만여명이 나주를 공격하였으나 패하다.
농민군 800여명이 광양으로부터 순천으로 향하다.
농민군 600여명이 섬진(蟾陣)병사를 곤장을 때린 다음 하동으로 들어가다(邑保).
- 7.28 농민군이 광양등지에 대단히 많다(邑保).
- 7.? 강진과 농주등의 軍校, 民丁, 營吏들이 거짓 입도하여 도소를 차린 다음 다른 지역의 동학도들이 들어와 작폐하는 것만 금지하다(日史).
- 7.30 부사 박헌양 장흥에 부임
8. 1 부사 박헌양 향교에 행차 유림들과 동학 농민군 토벌계획 상의하다.
8. 7 정부는 이미 농민군을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우다(公使).
- 8.13 전봉준은 전라감사의 명을 띠고 나주를 찾아가 민보군 해산을 권고하다(錦城).
- 8.14 진도부사가 부임하다.
- 8.19 전라도 홍양, 보성, 태인, 남원 山東坊 釜洞 등지의 농민군 연합과 부대 천여명이 남원 군기고와 교룡산성 무기고를 부순 뒤 무기를 모두 빼앗다(嶺上).
- 8.30 담양의 동학거괴 김형순, 김문화가 국홍목을 살해 기도하다.
9. 1 순천 영호대도소의 농민군 부대가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하다(순천).
9. 2 하동을 점령한 농민군은 읍내에 都所를 설치하고 5-6일 머물고 일부는

81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 호남으로 되돌아 가고 나머지는 김인배를 따라 진주로가다(梧下).
- 9.10 강진 병영도소에서 민정을 뽑아 성을 지키다(日史).
- 9.15 - 19일까지 순천의 농민군이 낙안읍성을 완전 장악하다.
경상도 하동 농민군 수천명이 곤양 多率寺에서 집회를 가지고, 광양, 순천농민군 수천명이 곤양읍성으로 들어 왔다가 조총 20자루를 빼앗고 진주로 향하여 진주 접경 完沙驛에서 합류하다(奎古).
순천집강 양하일(梁河一)이 금구접과 남원접의 협력을 얻어서 낙안을 점령하다(梧下).
- 9.16 농민군 100여명이 남원 대도소 김개남의 지휘에 따라 능주에서 軍需錢과 軍需數을 거두어들이다(公使).
강진현 이교들이 강진현에 동학도소 설치를 막고 수성함.
- 9.17 광주에 통문을 보내, 군수품을 거두어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公使).
- 9.25 호남에 새로 임명된 수령가운데 장성부사 이병훈을 소모사로 임명하다(啓草).
- 10.1 강진 이교들이 병영에 설치되어 있던 농민군의 도소를 혁파하고 수성소를 세우다(日史).
강진 병영에 설치된 동학도소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설치
- 10.10 진도에서 민정을 모아 1,322명의 수성군을 조직하다. 수영과 함께 무안과 경계인 사도진(沙島津)을 지키다
- 10.16 동학 농민군 천여명 장흥 사창시에 집결
김개남부대가 전주에 도착하고 여기서 고부군수 양필환, 남원부사 이용현, 순천부사 이수홍을 처형하다.(梧下)
- 10.18 강진 병영에 설치된 수성소에서 수천명의 민정을 뽑아 병영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日史).
10. ? 농민군이 섬진강을 건너 鷹峙, 三峰山, 蟾津驛에서 일본군, 관군과 싸워 패하다(釜山).
- 10.28 나주목사 민종열을 호남초토사로 임명하다(日省).
- 10.29 강진현감, 강진경내 농민군 진압을 위해 순무선봉진에 병력 파견을 요청함
- 11.3 강진병영의 병사와 吏奴들이 병영에 살고 있는 동학교도의 집을 부수고 동도인 선달 김응일(金應日)을 총살하다(日史).
- 11.7 10월 30일경 광주, 남평, 보성, 장흥, 금구, 능주 등지를 출발한 농민군이 장흥 흑석포에서 집결하다(日史).
- 11.10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이 덕양역 종고산을 거쳐 전라 좌수영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다.(梧下)
- 11.18 선봉진이 통위영병과 일본군을 이끌고 나주를 원조하다(實記)
- 11.20 농민군 1,000여명이 전라좌수영을 2차공격하다(公使).
농민군이 나주성을 포위하다(實記).
양경수(梁京洙)등이 이끄는 농민군이 영광을 공격하다(巡騰).
- 11.21 농민군이 종고산에 거점을 두고 다시 전라 좌수영을 공격하다(公史).
농민군 수천명이 장흥 熊峙에 집결하다(日史).
- 11.22 장흥에서 급보가 와 강진 도총장 윤권중(尹權中), 수성별장 방관숙(房管叔)이 200명의 민군을 인솔하여 강진읍 군사 200명과 함께 장흥으로 진격하다(日史).
- 11.23 웅치에 집결한 동학농민군 행인 3-4명을 살해. 장흥 수성장이 웅치 농

- 민군을 추격하여 농민군 격퇴시킴
전라 좌수사 김규철이 일본군함에 구원을 요청하다(日史)
11. 25 장흥 동학접주 이인환(李仁煥)이 大興面에서 기포하여 웅치의 농민군과 합세하다(日史).
전라좌수사 김철규가 여수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군함에 다시 구원을 요청하다(公使).
11. 26 장흥 동학접주 이방언, 이사경, 이인환, 구교철 등이 이끄는 농민군이 會 寧鎭(보성군 회천면)에 웅거. 농민군 병력 수만에 이름. 장흥의 수성군 천여명이 출정하였으나 패하여 돌아와 병영에 구원 요청함
병사 서병부, 銃手 3백 武士 1백 파견
11. 27 손화중, 최경선부대 수만이 광주를 함락하다(巡膳).
11. 29 병영군이 벽사역에 주둔함. 농민군 3명 참수하고 웅치로 진격
병영군이 농민군을 3명 참수하고 1명은 생포하여 병영으로 이송하고 웅치동학농민군 토벌하고자 함
11. 30 병영군, 보성 경계까지 농민군을 추격함. 농민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함. 보성에서는 민군 수백명이 죽창을 들고 농민군과 대치.
12. 1 손화중과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이 광주에서 해산하다. 최경선이 '귀화한다'는 깃발을 내걸자, 광주목사는 광주 동학접주 주윤철(朱允哲)등 5명을 곤장을 쳐 죽이고, 광주접주 박사집(朴士執), 나주접주 전유창(全由昌)은 초토영으로 압송하다(巡膳, 先牒).
선봉진이 각소대와 일 경병을 거느리고 장성읍에 도착하여 하룻밤묵고 일본대위와 대관 신창희, 오창성, 별군관 이지효, 황범수, 이주산, 교장 박상길, 황수옥과 병정 150명과 일병을 거느리고 담양에 둔취해 있는 비류들을 토벌차 출발하다.
금구, 나주, 남평, 화순, 능주, 장흥, 보성의 농민군이 장흥 사창에 집결碧沙後坪. 杏園前坪까지 진출하다.
12. 3 대관 오창성이 담양부로 부터 일본대위와 함께 들어오다.(담양)
담양부 의병들이 창기해 읍을 지키고 순창의병도 와서 돕다.(담양)
대관 신창희 거괴 잡음(담양).
12. 4 이방언(李芳彦)이 이끄는 농민군이 장흥 벽사역을 진시(오전 8시경)에 점령하다(巡膳).
담양에서 22명이 잡혀 李文永, 蔡大老末, 張大辰, 林松郁는 포살되고 국문보, 김희완은 나주에 압송.(별군관 황범수, 이지효, 이선과 담양부 의병장 구상순) 이곳 접주, 이장태도 일본군에 잡혀 포살되고 그 부하 15명은 담양 감옥에 갇히다.(장성)
선봉진의 각 부대가 장성에서 유숙하였는데 정읍의 동학거괴 손덕수와 손화중부대의 정정칠 그리고 장성과 아곡에서 잡아온 장성의 거괴 이봉학 3인을 효수하다.
12. 5 장흥부사 박헌양 이하 수성장졸 96이 이방언이 이끄는 농민군이 장흥부를 점령, 장흥부사와 공형을 총살하다(巡膳).
영광군 홍농면(弘農面) 이현숙(李賢叔)과 의병이 농민군 대장 송문수(宋文水)의 머리와 동학군 30명을 잡아왔음을 영광순수가 순무사에게 보고하다. 이현숙을 순무영 별군관에 임명하다(巡膳, 先牒).
함평현감이 농민군 대장 이화진(李和辰) 접주 김경오(金京五)등 9명을 총살하다(巡膳, 先牒).

83 전남지방의 등학농민혁명

통위영병과 일본군이 영광에 도착하다(巡膳).

담양 용구동 대곡 두곳에 비류들이 조 80여석을 저장된 것을 담양, 순천, 양읍 의병소에 나누어 주다.

12. 6 함평현감이 접주 김치오(金治五)등 5명을 총살하다(巡膳).

오후 2시경 농민군이 장흥.강진 경계지점인 舍人店까지 진출함

6월이후 금구의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 10만여명이 순천성내 설치한 영호대도회소가 吏 성용회, 이영주, 校 이종갑, 김언찬, 천사성, 윤성섭등이 주동이 된 순천성내의 관리와 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농민군 대장 정우형을 비롯한 58명 처형(순등, 공사, 이육)

12. 7 장흥에 있던 이방언 소속 농민군이 민군을 물리치고 강진현을 함락하다.(巡膳, 先牒, 巡膳).

순창 유향소가 전봉준, 양해일(梁海一), 최명선을 일본 대대진에게 넘겨주다(巡膳).

광양의 관리와 주민들이 순천에서 도망온 농민군을 공격하여 영호대접주 김인배와 도접주 유하덕(劉夏德)을 비롯한 200명을 처형하다(巡膳).

주동자는 전군수 김석하(金碩夏)로 그뒤 義旅로서 포상받다(各陣).

함평현감이 이두연(李斗連)등 5명을 총살하다(巡膳).

광주목사가 화순 대접주 김규석(金圭錫)이 곤장을 맞다 죽었다고 보고하다(巡膳).

일본군대와 장위영의 군인들은 순창을 거쳐 담양에 들어 닦쳤다. 그들은 담양을 분탕질하고 그곳 접주 이장태를 잡아 포살하고 광주로 발길을 돌리다.

10시경. 농민군이 강진현을 점령하다. 현감 이규하는 나주로 도망하고 의병장 김한섭은 희생당함.

12. 8 무안 대월촌(對月村)에 있던 무안 농민군 배상옥의 지휘아래 수천명이 해산하다(巡膳).

營軍 500여명이 순천으로 떠나다.(일사)

12. 9 순천 사항리(砂項里) 산상(山上)에서 농민군과 싸워 41명을 살해하다(公使).

함평현감이 농민군 윤정보(尹正甫)등 8명을 총살하다(巡膳).

전라좌수영 中軍 申완 중소영장 곽영환이 100여명의 영병을 이끌고 좌수영을 7일 출발하여 남해도를 거쳐 9일 하동부 교장터에 이르러 부산에서 온 백목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1개 중대와 합세하다.(公使)

전라 좌수영 영관 이주희가 500여명의 군졸을 인솔하여 8일 좌수영을 출발하여 9일 순천 사항리(砂項里) 선산에서 농민군과 싸워 41명을 살해하다(公使)

- 12.10 일본군과 전라좌수영이 하동을 출발하여 광양 다압(多鴨), 월포(月浦)에서 농민군을 격퇴하고 오후 4시 섬거역(蟻居驛)에서 도접주 김갑이(金甲伊) 외 27명을 총살하다(公使).

일본 스쿠바 함대는 12월 9일 좌수영을 출발, 광양 앞바다에 도착하다(公使).

농민군 강진병영을 점령함. 병사 서병무는 도망감.

하동 의병이 광양 옥룡면에서 농민군 31명 체포, 관군이 포살하다.

선봉장 이규태는 나주에 머물다.

- 12.11 곽영환이 이끄는 전라좌수영병 100여명이 광양 백양촌에 이르러 농민군

- 우두머리 정홍서(丁弘西)를 효수하다. 하동에서 온 일본군관 좌수영병이 광양에 와서 남은 농민군을 수색하여 90여명을 총살하다(公使). 이때 이두황이 광양에 도착하여 살륙을 중단시키다(梧下). 이주희가 이끄는 수영병 500명이 순천에 도착하다(公使). 좌선봉 이규태 부대가 무안에서 접주 70명을 잡아 처형하다(巡贍). 일본군과 관군 40명이 담양에서 광주로 나와 나주로 갔으며 이어 12일에는 일본군 14명과 卜軍 95명이 담양을 거쳐 광주로 나왔다가 다시 나주로 빠졌다.
- 용구동 김형순, 김문화등이 무리를 거느리고 창평 용구산에 은거하다.
- 12.12 일본군과 전라좌수영병이 광양을 출발, 순천에 도착하여 농민군을 수색하였으나 모두 장흥이나 홍양으로 퇴각한 상태이다(二六). 농민군이 장흥으로 귀환하여 남문밖과 모정 뒷산에 주둔하다. 농민군 토벌을 위해 경군의 선발대가 장흥에 들어옴(이규태군)
- 12.13 장흥부 남문밖에서 농민군이 통위영병 30명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20여명이 죽다(巡贍). 순천에 있던 전라 좌수영병 500명이 좌수영으로 가다(公使). 장흥. 농민군, 통위영병과 일병으로 이루어진 30명의 토벌군 선발대와 1차접전을 하여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하다. 자울재를 넘어 남면.고읍등지로 일시 퇴각하다. 일본육군과 좌수영병 모두 순천부에서 휴식을 취하다.(公使)
- 12.14 강진에 있던 농민군이 경군이 오자 해산하다(巡贍). 좌수영병 50명과 일본군대가 순천에서 낙안으로 출발하다(公使).
- 12.15 이방언이 이끄는 농민군 수만 명과 교도병, 일본병, 장흥민병이 장흥 싸움을 벌여 농민군 수만이 죽고 무기를 잃다(巡贍). 일본군이 장흥에 들어오다. 장흥 농민군, 고읍방향으로부터 자울재(眼峙)를 넘어 석대들을 가득메우며 장흥부로 진격하다. 그러나 경군, 일본군의 도착으로 자울재 너머로 퇴각하다.
- 12.17 장흥 죽산시(竹山市)에서 장흥에서 후퇴한 농민군이 옥산리에서 관군과 싸웠으나 패하다(巡贍). 자울재너머로 퇴각했던 농민군 4-5천명은 玉山里(관산읍 옥당리)에 재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 12.18 해남에 있던 농민군이 통위영 중우참령군과 해남싸움을 벌여 모사 전유희, 남리역 대접주 김신영이 붙잡히다(巡贍, 先牒). 전라 좌수영병이 13일 순천에서 잡아온 좌수와 공형을 총살하다(公使, 巡贍).
- 진도 도호부사가 진도 둔결작경(屯結作梗)때 관련된 민과 7월부터 영광에 무리를 모아 진도를 공격한 진도 조도면(鳥島面) 우두머리 박중신(朴仲辰)에 대해 보고하다. 진도 수성장 조용기를 선봉진으로 압상하여 조사하여 처분할 것을 명함 7월부터 해남에서 소요를 일으킨 古郡內面 內洞里的 손행권과 김수종을 잡아들이다. 우참령관병이 연당리에 머문 후에 해남근경에 둔취하다. 성바깥에 있던 농민군 수천명과 경군이 소위 해남 싸움을 하게 되어

- 8-9명이 관군에 포를 맞아 죽고 모사 전유희와 남리역 대접주 김신영이 생포되다.
- 해남읍의 박유진이 황소 한마리, 백미3섬, 민건호가 황소 한마리와 탁주 3동이를 관군에게 바치다.
- 12.19 교도병이 강진에 도착하다(巡臚).
교도병 300명이 해남현에 도착하여 그 수색망을 우수영과 진도까지 넓혀 농민군을 색출하다.
- 12.20 교도병 300여명이 해남현에 도착하다(巡臚).
진도도호부사가 수성장 조용기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다.
우선봉 이두황 부대가 해남에 도착하다.
통위영에서 이도면 접주 김순오, 교장 박익현, 집강 이은우, 별장 박사인 교주 김하진을 잡았음을 보고하다.
우선봉진에서 손익중과 고원숙, 안기홍, 임석범을 잡다.
- 12.21 일삼면 거리의 박수행과 현일면 천변리의 허근, 진도 삼촌리의 김중야가 함께 포살되다.
- 12.22 이두황부대가 해남에 도착하다(巡臚).
통위영 중우참령관이 해남 이도면(梨道面) 접주 김순오(金順五), 교장 박익현(朴益賢), 집강 이은좌(李銀佐), 별장 박사인(朴士仁), 교수 김하진(金夏振) 등 5명을 잡았음을 선봉진에 보고하다(先牒).
우선봉진이 해남 동학배가 무안과 장흥등지와 왕래함을 보고하다.
보성으로부터 병사 50여명을 좌수영으로 보낸다.(公使)
- 12.23 장성도호부사 겸 소모사가 장성부 농민군 공기노(孔基魯)·김종익·이기주·공치환·남나구·이궁궁·한덕일·김사문을 처형하다(先牒).
일본인 26명과 경병16명이 순창등지에서 들어와서 다시 나주로 향함.
- 12.24 해남 은소면의 윤규룡등이 무안 접주 배규인을 잡다.
일본 보병대위 松木正保의 일진이 도착하여 배규인을 죽이고 상금 천냥을 주게 하다.
이주회의 군대, 1명은 보성을 출발하여 장흥부에 도착 이날 밤 우산에 이르러 순천의 都省察 孫作亂이 高田山의 토굴속에 숨었다는 것을 듣고 생포하다.
- 12.25 장흥 농민군 대장 이방언이 장흥에서 우선봉 이두황군에게 잡혀 나주로 압송되다(巡臚).
해남에서 소요를 일으킨 김춘두 형제를 화일면의 김민국와 박헌철이 잡아들인 후 일진에 압송하다. 일본군이 이들을 다시 나주로 압송하여 구속하다.
해남민군들이 영암군의 최필기와 양씨아적을 비곡면 별진역에서 잡아들이다. 비곡면의 장수등이 관군으로부터 협조의 대가로 勿侵標를 받다.
현일 고도지의 천인병이 포살되다. 산이면 외송의 박인경이 무죄로 석방되다.
- 12.26 녹산면 수성군이 가리포진의 불목리에서 농민군 대장 백장안을 잡아들였음을 발포 수교 홍용인이 보고하다.
- 12.27 장성도호부사겸 소모사가 장성부 농민군 강일희(姜日澮)를 비롯한 10명을 장성을 장시날에 처형하다(巡臚).
보성접주 안규복을 잡아 효수하고 민증을 경계시킴
- 12.28 강진 민병이 강진 접주 윤세형을 총살하고 교장 이무주(李茂朱), 접주

남도군(南道均)은 일본군에게 넘기고 도망한 농민군을 일본병과 함께 추격하여 백여명을 죽였음을 강진현감이 순무영에 보고하다(巡膳).

김제의 정서현, 녹산 산림동의 김경재, 무안 교동의 박정환이 함께 포살되다.

해남 산림동의 접사 박홍영, 김종곤, 무안접괴 배규인의 마부가 함께 포살되다.

해남 현산면 풍헌 주기안이 접사 장극서와 교장 이주호, 도집 임제환, 집강 최원규를 잡았음을 통위영에 보고하다.

백장안과 산림동 교장 윤종무가 포살되다.

1895년

1. 4 한마치가 일진에 착납되다.
영암 송동의 박홍조가 儒會에서 착인
1. 5 최원규와 은소면 신동리의 김공삼이 일진에 착납되어 刺殺되다.
1. 7 출진 참모관 별군관이 낙안 농민군 대장 감사원 안규복 이수효를 잡았는데 이들은 전봉준이 청주를 공격할 때 선두에 섰으므로 효수당하다.
(巡膳)
1. 초 이방현, 김윤선, 주영백, 김대옥, 서기택 등을 체포하여 심문하다.
1. 11 장성도호부사 겸 소모사가 별군관, 참모, 유회(儒會), 상사(商社), 민보의병(民堡義兵)의 민폐가 막심하니 그들을 엄히 다스릴 것을 순무영에 보고하다.
1. 12 배규인의 협종자 윤석호가 청계인에 의해 착납되다.
1. ? 홍양의 유복만이 무리 천여명을 거느리고 성안과 밖, 동북 2개의 산에 나누어 둔거하였으나 이내 해산함.
1. 15 장흥 용계 자라번지의 접주 이사경이 기억산에 숨어 있다 체포되어 벽사역에서 포살당하다.
1. 22 암행어사가 김형순을 정읍에서 잡아 담양군에 압도 호장청에 구수
1. 26 경군이 벽파진에 止宿하다.
1. 27 읍참에 도착한 경군이 수성군으로 하여금 순행권과 김유선, 김대옥, 서기택을 처리하고 남은 사람은 석방하게 하다.

2. 全羅南道 捉·所獲東道成冊¹⁾

지 역	등 급	이 름	검 거 일	압 송 지	처 별
光 州	巨 魁 接 主 " " " " " 徒 黨 " 接 魁 "	全 秀 吉 許 仁 朱 允 哲 朴 元 化 鄭 水 海 李 秉 祚 鞠 永 信 金 占 用 金 判 勸 李 有 昌 朴 士 集	1894.12.2 1894.12.3 " " 1894.12.4 " 1894.12.9 " " " "	押付右鎮營 " 押付右鎮營 " "	梟 首 仗 殺 " " 砲 殺 輕 重 酌 處 " " 처 督現 아들 督現
潭 陽	賊 魁 " " " " " 接 主 同 黨	22名중 李 文 水 蔡大老未 張 大 辰 林 松 郁 鞠 文 甫 金 喜 完 李 長 泰 15名	1894.12.4 " " " " " " " "	京 軍 所 " 日 軍 所 牢囚該府	砲 殺 " " " " " 砲 殺 分輕重酌處
昌 平	巨 魁 其 他 " " " " " " " " " "	韓 忠 相 曹 公 瑞 張 永 玉 河 在 元 金 奉 哲 白 俊 水 韓 成 玉 元 萬 石 李 石 用 姜 判 石 鄭 永 云 白 處 士	1894.12.6 " " " " " " " " " "	牢囚該懸獄 " " " " " " " " "	結 果 輕重酌處 " " " " " " " "
同 福	賊 徒	220명중	1894.12.3	日軍捉去	

1) 『東學亂記錄』下, 707쪽.

		157명 生擒63名内 崔 敬 善 李 亨 伯 張 雲 鶴 朴 健 洋 金 仲 玄 金 炳 赫 59명 崔 子 仲 盧 益 浩 全 敬 先	" " " " " " " 1894.12.8 " "	日軍捉去 押 上	臨戰砲殺 徑 斃 經訊後徑斃 " " " 牢訊該付 押上中徑斃 " "
和 順	巨 魁 接 主 " " 巨 魁 " 同 黨	王 日 臣 金 用 甫 曹 番 介 金 自 斤 崔 性 七 崔 範 九 徐尚祚等10名	1894.12.7 " " " 1894.12.9 " 1894.12.10		砲 殺 經訊物故 "
咸 平	接 主 " " " " " " " " 其 他 " 巨 魁 同 黨 " 巨 魁	金 京 玉 李 春 益 李 在 民 李 坤 辰 金 成 必 金 仁 五 金 成 五 金 成 西 盧 德 八 金 致 五 鄭 元 五 鄭 權 西 全 京 先 尹 京 五 李 化 辰 曹丙默等6名 李斗連等5名 鄭 京 宅 徐 基 鉉 尹 正 甫 張 京 三 朴 春 西 鄭 平 五 金 時 換	1894.12.2 " " " " " " " " 1894.12.7 " " " " 1894.12.8 " 1894.12.9 1894.12.10 " 1894.12.11 " " " "		砲 殺 " " " " " " " " 臨捉砲殺 " " " " 分輕重酌處 " 臨捉砲殺 分輕重酌處 臨捉砲殺 " " " "

89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巨魁 同黨	尹贊辰 金京文 朴京仲 李殷仲 李在卜 金元淑	" " " 1894.12.12 "	押上右鎮營	" " " 嚴訖得情 臨捉砲殺 "
務安	接魁 同黨 賊黨 巨魁 同黨	裴正圭 朴順西 徐汝七等6名 18名內 金應文 金子文 鄭汝三 張用辰 趙德根 12名	1894.12.8 " 1894.12.9 " " " " "		臨捉砲殺 " 分輕重酌處 經訊後致斃 " " " " " 分輕重酌處
綾州	賊魁	13명중	1894.12.12		7名臨捉砲殺 6名日軍所梟首
靈光	賊魁 巨魁	宋文洙 吳泰淑 崔俊淑等9名 朴仁之等10名 梁京洙 李玄淑		押付狀衛隊	12.5日 梟首 " 臨捉砲殺 臨捉砲殺 梟首
玉果	巨魁	全在錫 金洛有 黃贊黥	1894.12.10 " "		臨捉砲殺 " "
望雲	賊魁	李益先等4名		押付右鎮營	嚴訖得情
南平	接主	賊徒10名中 羅鴻集 許在仲 朴信煥 朴德已 金士玄	1894.12.10 " " " " "	押送右鎮營 " " " "	5名 砲殺 分輕重酌處 " " " "
羅州		姜道守 鄭士心 李化三 韓達文, 朱心		押送右鎮營	臨戰砲殺 " " 嚴訖得情

	接 主	彦等 14名 崔局西等3名 竹浦捉得2名 吾山捉得1名 餘髻捉得1名 三加捉得1名 道林捉得1名 用文捉得2名		" 押付右鎮營 " "	" 臨戰砲殺 臨提砲殺 " " 輕重酌處 " "
--	-----	--	--	------------------------------	---

	徒黨	徐通甫 金且金	砲殺 砲殺
初九日			
月浦	接主	金明淑	砲殺
仁德	接主	朴治西	砲殺
	徒黨	朴治右	砲殺
		徐達水	砲殺
	名不知	順天 5漢	砲殺
		晉州 1漢	砲殺

初十日			
順天西面	接主	金哥	砲殺
沙谷	接主	韓辰有	砲殺
牛藏	徒黨	李且兼	砲殺
玉龍	徒黨	朴啓連	砲殺
沙谷	徒黨	河元俊	砲殺

初十一日
仁德徒黨 金宗之, 朴日祚, 禹巖斗, 金白工, 秋成官, 金斗化, 姜在允, 徐性化, 鄭在午, 趙君先,
劉又石, 金順用
沙谷徒黨 金在元, 姜在晚
三嘉 高百俊, 高汝眞
牛藏徒黨 林水完, 姜宗午, 李萬水, 崔獨獨, 金致西
七星徒黨 南相集, 金洛玄, 金必成, 金元日
玉龍徒黨 鄭京順, 成通甫, 李官僉, 金奉己
順天 金在左, 金洪斗, 李石基, 金允實
晉州 金鶴水
仁德徒黨 吳分芻, 吳石坤, 吳昌淳, 劉水卜
順天西面 黃在淑
光陽順天 首接主 金鶴植
七星徒黨 朴東實, 程文明
順天 朴汗辰
慶尙昆陽 張鶴用
求禮 金己哲
慶尙昆陽 林在石
玉龍云河 朴宗律
以上 砲殺

3. 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갑오12월 초10일 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都接主 金甲伊 斬首

93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

散賊 金石俊, 李玄斗, 安正根, 金用守, 金必守, 洪正其, 廉東必, 金用伊, 金性伊, 羅時丕,
尹允元, 姜寬玉, 鄭得祚, 朴致西, 崔京千, 朴永祚, 柳連金, 鄭德元, 崔學列, 朴萬伊,
金宗辰, 金日先, 姜性化, 鄭以成, 金小老未, 沈以俊
童夢 趙伯元
以上 27人 砲殺

都執綱 丁洪燮 斬首 蟾溪驛上洞民人捉上

4. 답 양 혈 서

고명 용귀동 이소사

우근언정 판은의 여의 가부가 당초의 동학구경혼일업시어게날자피여가서 사경을 당하여 짜호오이 세상의 일언 원정이 잇소이가 제일 본춘짜 함기자되여온 빅성처의 호문호시면 흑백을 분간 하시온거시니 즉지희방호옵쇼서 천만부탁입니다.

성주쳐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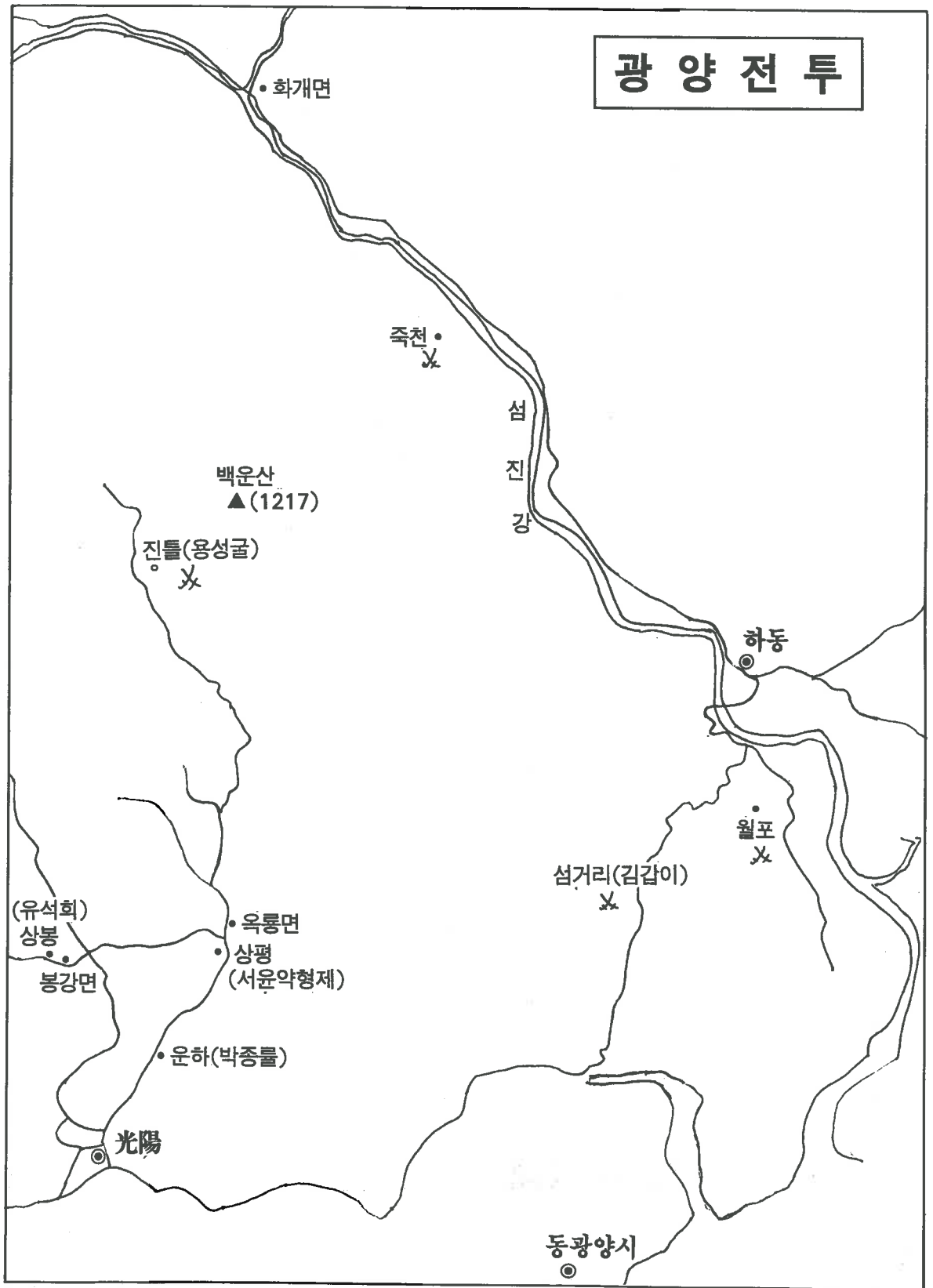
갑오십이월 일

당분간 방송하여 비심싱도향수
초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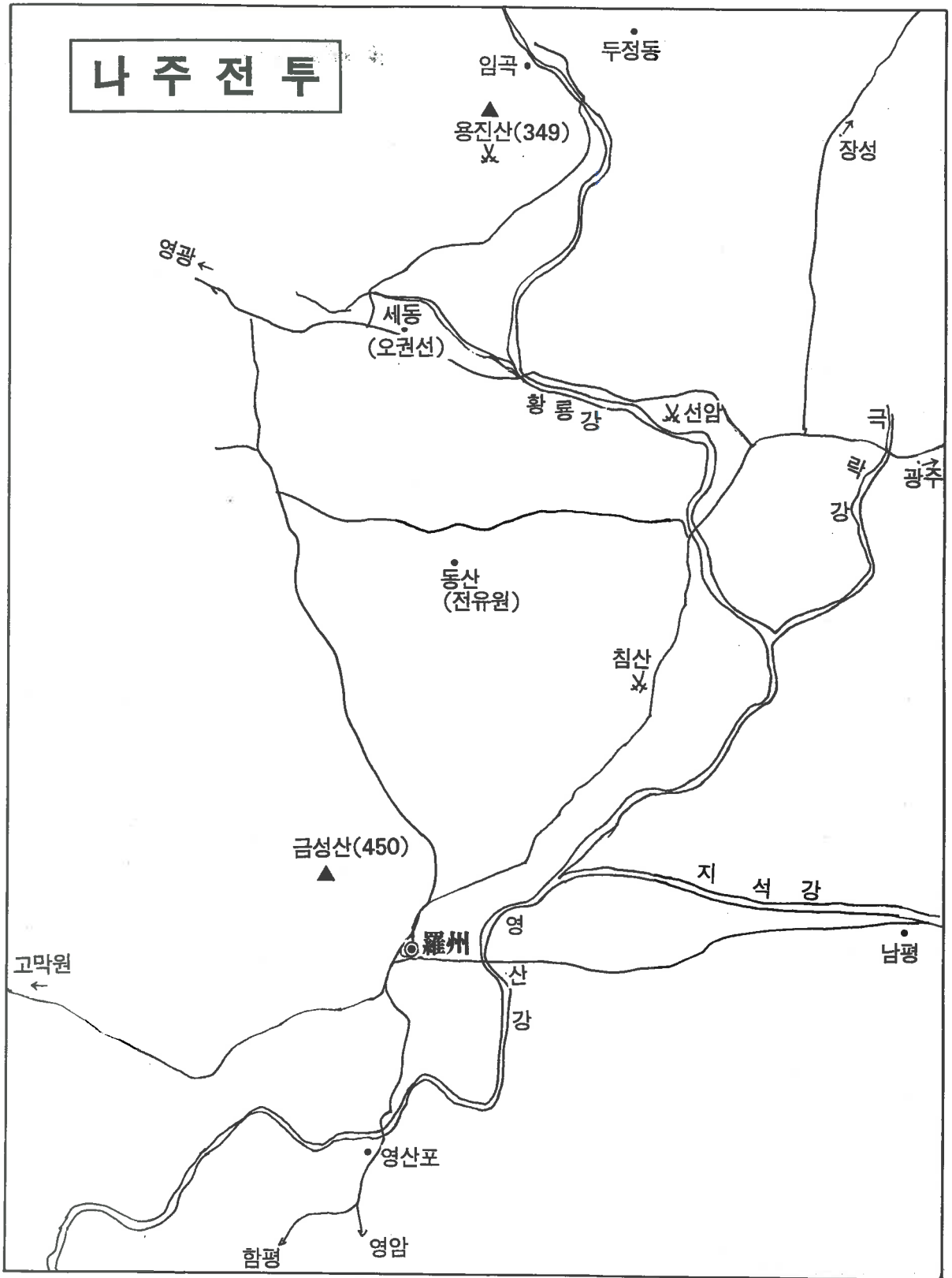
5. 道人經過來歷

今六月十二日東學二十八人, 十七日二千餘人, 二十三日三十餘人, 二十九日六十餘人, 七月初三日二百四十餘人, 初八日二百餘人, 十六日二千二百餘人, 前後過去者爲四千七百餘人, 入來者各執槍銃劔 放砲入城 其勢危凜 人民騷動而供饋則自州內各家與市邊酒家分次爲是며 配所尹兵事宅所捧錢四千三百兩內 一千一百兩派給民間 五百兩派給奴令及各漢婢子鼓人等爾 而供饋浮費條爲六千餘兩內一千兩 官當餘數自執綱所排定於各面饒戶處是乎며 鳥銃二十五柄及千步銃柄環刀三柄 火藥五千 鉛丸一千介威脅奪去是白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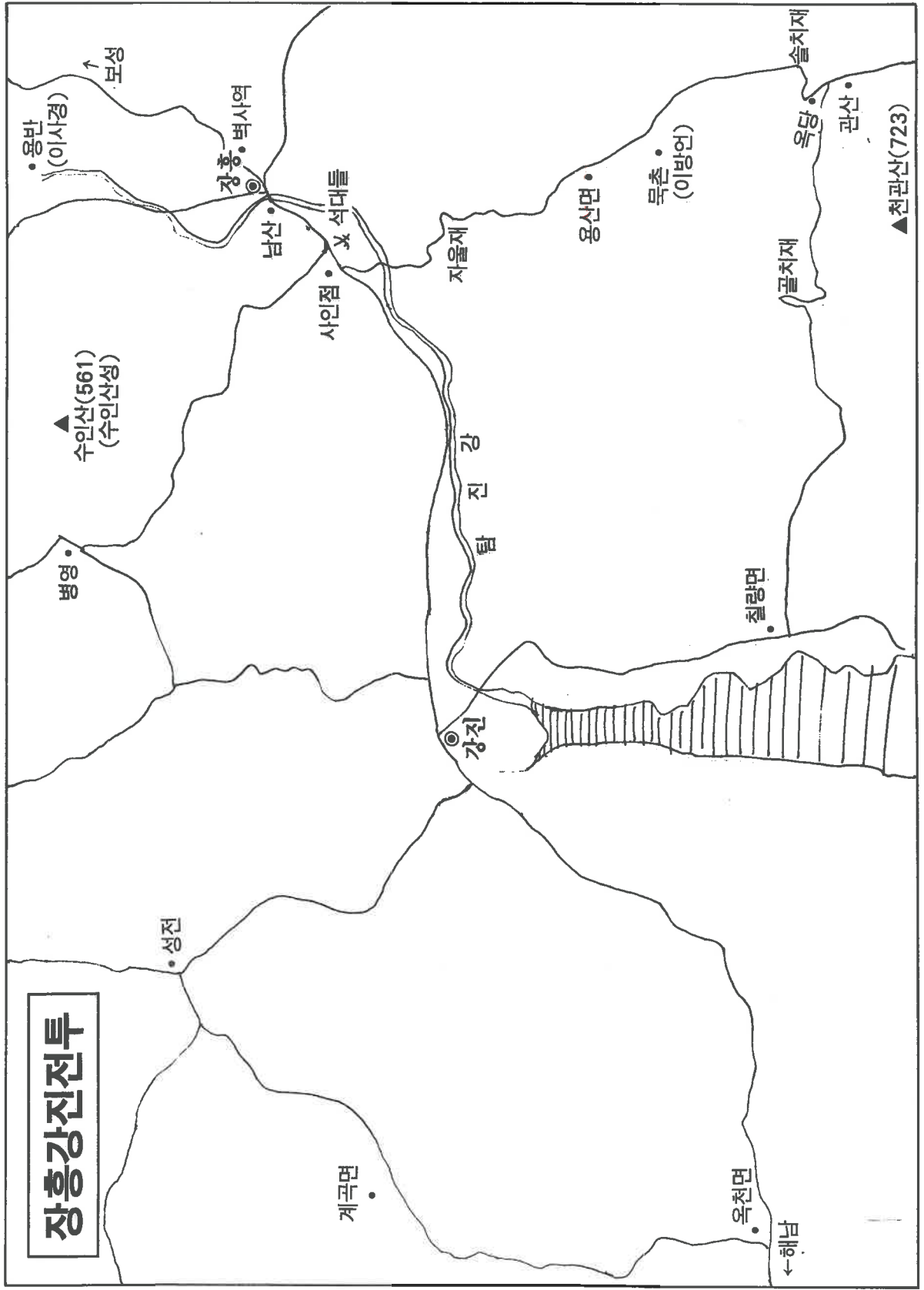
광 양 전 투



나 주 전 투



장흥강진전투



正 誤 表

쪽	줄	誤	正	쪽	줄	誤	正
9	2	5월	5월 이후의	71	5	松本正保	松木正保
9	3	10월 이후의	9월 이후의	73	25	전주에	전주의
9	10	이용태는	이용태(당시 장흥부사)는	74	2	검사	첨사
9	22	정백현(鄭伯鉉)	정백현(鄭柏賢)	74	17	익미를	길목을
12	1	재계	재기	74	33	『沈泉金先生自書錄』	『沈泉金先生自叙行錄』
12	3	일전이	최후의 일전이	75	9	김유선	김윤선
13	14	順昌縣	淳昌縣	79	35	(道人經過略歷)	(道人經過來歷)
14	4	유봉만	유복만	79	45	입성하다.	해남에 입성하다.
14	24	새제	내제	80	15	"	"
14	32	내제	다섯	80	29	(邑保)	(邑報)
19	22	폐해	피해	80	30	"	"
22	12	남편(이재휘)	남편(이재휘)	84	35	죄수영	죄수영
23	2	이문영	이문수	86	9	포살되다.	포살되다(해남)
29	27	무안군	나주와 무안군	86	14	刺살되다.	刺殺되다(해남)
33	28	11월 14일	11월 24일	86	22	청계인에	해남·청계인
34	33	전제 삭제		87	28	止宿하다.	지숙하다(진도)
44		일본군과관군에	일본군삭제	87	30	하다.	하다(진도).
47	24	류화덕	유하덕	87	1	全羅南道捉·所東道成冊	全羅道所捉·所獲東徒成冊
48	10	'10월 22일'부터 줄바꾸고 "오지영 '동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를 추가		87	7	仗殺	杖殺
52	25	防蹈鎭簽使	防蹈鎭僉使	87	29	牢因該顯獄	牢囚該縣獄
52	31	12월 17일	삭제	89	25	押付狀衛隊	押付壯衛隊
53	6	趙錫憂	趙錫夏	90	3	臨提砲殺	臨提砲殺
53	33	농민전쟁을 열면서	삭제	93	17	우근언정 단온의 여의 우근언원정 단온 의여의	
53	33	이즘	즈음	93	17	계날자피	계날 자피
54	8	8째줄부터 11줄까지 삭제		93	18	당하여 다하오	당하여다하오
58	40	7월 3일	삭제	93	18	본촌스 다	본촌
67	4	劉卜萬	柳卜萬(柳希道)	93	19	하시온거시니	하시올거시니
67	1	백산전부	백산봉기	93	19	즉지희방	즉지하방
67	4	劉卜萬	柳卜萬(劉希道)				
69	7	16일 200여명	17일 2천여명 참가				